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석사학위논문

독서모임 구성원의 참여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전공

張 彩 華

독서모임 구성원의 참여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지도교수 조 용 환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전공
장채화(張彩華)

장채화(張彩華)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1월

위 원 장 소 경 희 (인)

부위원장 강 대 중 (인)

위 원 조 용 환 (인)

초 록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 젊은이들이 독서모임에 자주 참여하는 모습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한국 젊은이들이 왜 독서모임에 대해 열정적인지 궁금하였다. 한편 한국에 독서모임은 많지만 독서모임에 대한 연구는 그 수가 적다. 독서모임에 대한 연구 중에서 교육의 눈으로 독서모임을 연구하는 것은 더욱 찾기 힘들다. 지금 이 시대에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사람들의 선택지가 넓다. 책을 읽는 것보다 휴대폰에 더 쉽게 빠진다. 한국에서 인기가 많은 독서모임에 대한 연구가 사회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여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교육학 연구에서 그 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독서모임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다. 표면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독서모임의 심층적인 특성도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독서모임 구성원들의 참여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독서모임의 교육적인 의미를 재조명하는 것도 이 연구의 목표이다. 독서모임을 보다 깊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나는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연구 현장으로 “진지함”, “깊이”와 “재미”를 추구하는 자발적인 독서모임 프리책을 선정하였다. 연구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설정하였다.

첫째, 프리책은 어떤 독서모임인가? 둘째, 프리책 구성원들의 참여 양상은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 셋째, 독서모임의 교육인류학적 의미는 무엇인가?

연구참여자 선정은 프리책 독서모임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고 특징이 서로 다른 5명의 구성원을 고려하였다. 자료수집은 나는 질적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참여관찰, 현지자료조사, 그리고 심층면담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의 잠정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프리책이 어떤 독서모임인가에 대해 정리하였다. 모임장 햄은 독서모임이 의미가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여 다른 세 명의 초창기멤버들과 함께 프리책을 만들었다. 이후 구성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그는 휴대폰 앱을 통해서 프리책 독서모임을 개설하였다. 독서토론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장소예약, 도서선정, 발제, 사회 등 여러 사항에 대한 구성원들의 지지와 도움이 필요하다. 이곳에서 활발하게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운영진이 된다. 독서토론이 끝나면 구성원들은 뒷풀이를 하기도 한다. 이처럼 프리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구성원”, “운영진”, “소모임”, “독서토론”, “뒷풀이”, “규칙”의 여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특히 독서모임은 결국 사람들이 모여서 독서토론을 하는 활동이므로 “구성원”과 “독서토론”이 독서모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래서 “구성원”과 “독서토론”과 관련하여 더 깊이 들여다보았다.

다음으로 나는 “참여의 유형”, “참여의 특성”, “참여부진의 원인”이라는 세 부분을 통해 프리책의 참여 양상을 알아보았다. 연구참여자들의 “참여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햄과 같이 경제적인 성공보다 “현자”가 되고 싶어하는 “현자지향형”이다. 두 번째 유형은 순영과 지수처럼 다른 구성원들보다 성찰을 많이 하는 “성찰지향형”이다. 세 번째로는 유경과 같이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회문제책임형”이 있다. 마지막 유형은 카이처럼 지식과 감정 또는 의견을 공유하며 모든 것을 공부하려는 “공부지향형”이다.

프리책은 구성원들의 참여나 탈퇴를 개개인에게 맡기는 자발적인 독서모임이다. 그러나 질이 높은 토론을 위해 책을 완독하거나 존댓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강제성도 발휘된다. 또한 프리책 독서모임은 누구나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는 개방성을 지닌다. 그런데 토론과정에서 폐쇄적인 측면도 찾을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인 햄, 유경, 순영 그리고 지수는 독서모임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반면, 카이는 프리책 독서모임에 자주 참여하지 않는다. 그가 참여에 부진한 이유는 사람들이 “솔직한 이야기”보다 “뻔한 이야기”와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서선정의 문제와 소통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 점도 그가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원인이다.

이러한 기술과 분석을 바탕으로 나는 프리책 독서모임을 교육의 눈으로 해석하였다. 독서모임의 구성원들은 “더 나은 사람”과 “더 나은 사회”

를 지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책과의 대화, 사람과의 대화, 자기와의 대화를 통해서 지식을 나누고 학습하고 있었다. 독서모임과 학교교육의 학습과정을 비교해 보면, 모르는 상태에서 아는 상태로 변화하는 방향은 같지만 세부적인 흐름은 같지 않다. 학교교육에 비해서 독서모임의 구성원들은 학습에 더 능동적이다. 공부를 시키는 사람이 없고 학습했는지를 감독하거나 독촉하는 사람도 없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찾는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에서 다양한 시각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독서토론 과정에서 사람들이 여러 원인으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진실한 생각을 숨기는 사람도 있지만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해서 솔직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성격, 성별, 관계, 말재주, 문화 등 여러 요소들이 여기에 작용하고 있다.

연구의 과정은 나에게도 학습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연구를 통해서 나는 교육인류학과 질적 연구, 그리고 독서모임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연구의 범위와 한계로 인해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부분도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해서 더 새로운 이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주요어 : 독서모임, 참여, 독서토론, 솔직한 이야기의 문제
학 번 : 2017-28748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연구 문제 ····· 4
3. 연구 방법 ····· 6
   1) 연구참여자 ····· 6
   2) 연구 과정 ····· 8
   3) 자료수집과 자료분석 ····· 10
4. 연구의 범위와 한계 ····· 15

Ⅱ. 선행연구 개관 ····· 17

1. 독서모임의 교육적 의미 ····· 17
   1) 독서모임의 개념 ····· 17
   2) 독서의 의미 ····· 19
   3) 독서토론의 의미 ····· 20
2. 국내외 관련 연구의 동향과 과제 ····· 21
   1) 국내 독서모임 관련 연구 ····· 21
   2) 국외 독서모임 관련 연구 ····· 24

Ⅲ. 독서모임 프리책 ····· 27

1. 프리책의 기본 상황 ····· 27
   1) 구성원 ····· 28
   2) 운영진 ····· 29
   3) 소모임 ····· 30
   4) 독서토론 ····· 32
   5) 뒷풀이 ····· 34

6) 규칙 ····· 35
2. 연구참여자 이야기 ····· 36
1) 햄: “소위 이제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순간이 오는데” ····· 37
2) 유경: “그냥 무작정 좋아서” ····· 44
3) 순영: “햄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취미활동이라는 것 때문에” ····· 51
4) 지수: “아는 거도 많은데 말도 잘하고 책도 엄청 많이 봤어요” ··· 56
5) 카이: “걔네들은 도대체 책을 왜 읽는 거야” ····· 64
3. 프리책의 진행과정 ····· 70
1) 도입 단계 ····· 71
2) 토론 단계 ····· 74
3) 마무리 단계 ····· 81

Ⅳ. 참여 양상의 분석 ····· 83
1. 참여의 유형 ····· 83
1) 현자지향형 ····· 84
2) 성찰지향형 ····· 85
3) 사회책임형 ····· 87
4) 공부욕구형 ····· 90
2. 참여의 특성 ····· 93
1) 자발성 vs 강요성 ····· 94
2) 개방성 vs 폐쇄성 ····· 98
3. 참여부진의 원인 ····· 104
1) 솔직한 이야기의 문제 ····· 105
2) 도서선정의 문제 ····· 108
3) 얻을 것의 문제 ····· 109

Ⅴ. 해석 및 논의 ····· 112
1. 집단독서의 교육적 의미 ····· 112
1) “더 나은 인간 형성의 존재론적 지향” ····· 113

2) “변증법적 대화의 과정” ····· 114
3) “학습과 교수의 해석적 상호작용” ····· 116
2. 집단독서의 한계 ····· 118

Ⅵ. 요약 및 결론 ····· 125
1. 요약 ····· 125
2. 결론 ····· 129

참고문헌 ····· 132
Abstract ····· 139

표 목 차

[표 1] 연구참여자 기본 정보 ····· 7
[표 2] 1차 인터뷰 질문 ····· 11
[표 3] 2차 인터뷰 질문 ····· 12
[표 4] 3차 인터뷰 질문 ····· 13
[표 5] 프리책 3무·3유 정책 ····· 36

사 진 목 차

[사진 1] 독서토론 장면 ····· 33
[사진 2] 독서토론 장면 ····· 33
[사진 3] 뒷풀이 장면 ····· 34

자 료 목 차

[자료 1] 순영이 그린 <피프티 피플>인물관계도 ····· 95
[자료 2] A독서모임 가입제한 ····· 99
[자료 3] B독서모임 가입제한 ····· 99
[자료 4] C독서모임 가입제한 ····· 100
[자료 5] 프리책 가입주의사항 ····· 100

그 림 목 차

[그림 1] 교육의 본질 ····· 113
[그림 2] 학교교육 학습의 과정 ····· 117
[그림 3] 독서모임 학습의 과정 ····· 117

Ⅰ.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세상에는 좋은 책이 너무 많아서 살아 있는 동안에 다 읽을 수 없을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한다. 내가 태어난 지역은 30년 전만 해도 고등학교 졸업생이 드물었다. 학교교육과 독서는 나를 포함한 많은 아이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학교교육이 아이에게 스스로 걸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면 독서는 아이로 하여금 더 큰 세계를 꿈꾸게 한다. 학교교육이 없으면 더 큰 세계로 향해 나아가기 어렵고 독서가 없으면 학교교육의 효과가 줄어든다. 그러나 학교교육이 진학과 시험공부로 기울어지면서 독서는 '학교교육'을 방해하는 요소로 간주되었다.

학교에서 독서를 자유롭게 할 수 없어서 학생들이 독서를 더 하고 싶어지는 것 같다. 무협소설, 고전명작, 위인전, 판타지소설 등 책을 누가 한 권을 구매하면 전 학급이 돌려가며 읽는다. 학과 수업을 들을 때와 달리 독서를 할 때 학생들이 더 흥미로워한다. 교과서에서의 추상적인 지식을 억지로 외우는 것과 다르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읽는 과외 서적의 경우, 그들은 더욱더 저항감 없이 내용을 더 쉽게 받아들인다.

고도로 발달한 정보 사회에서는 기존의 결과 지향적이고 학력 중심적인 교육 체제만으로 더 이상 구성원의 교육적 수요와 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 따라서 현행 교육 체제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이국환, 2010; 정재기, 2011). 예컨대, 지금 우리의 교육 체제는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의 흥미와 특성을 도외시한 채 객관화·절대지식화하는 교과 내용에 맞춰 학생들을 조형함으로써(장상호, 2009), 이러한 패러다임에 부응하지 못한 수많은 학생들을 낙오자, 실패자, 탈락자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교육 패러다임에 학교 중심에서 전 사회 중심, 아동·청소년기 중심에서 전 생애 중심으로, 그리고 교수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국환, 2010). 학교교육이 분명히 의미가 있고 아이들의 영혼을 깨우치는 사업인데 학생들이 왜 학교만 이야기하면 흥미보다 거부감을 더 많이 드는지에 대해를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시대에 접어들면서 무한한 지식 정보가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 사람들은 매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부터 확인한다. 친구가 위챗[1]으로 소식을 보내 왔는지, 지인들이 최근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사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새로 보내 온 이메일이 있는지 등과 같이 확인해야 할 것이 많다. 글과 영상을 보다 보면 하루의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린다.

무궁무진한 정보 속에는 가끔 공부할 만한 글이나 영상을 맞닥뜨리기도 한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지식파편화" 또는 "정보파편화"라고 일컫는다. 때로는 하루라도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으면 남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거나 대화에 끼어들기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책과 같은 내용이 길고 분량이 방대한 매개체의 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사실 텔레비전이 풍미하였던 20세기 80년대부터 일부 학자들은 새로운 미디어가 사람들의 여가시간을 침식함으로 인해, 책과 같은 어렵고 시간이 드는 매체를 기피하게 되는 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제기하였다. 이런 문제의식은 나의 상심(傷心)[2]이기도 하다. 텔레비전 시대에서 컴퓨터 시대로, 컴퓨터 시대에서 휴대폰 시대로 나아가면서 독서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 오웰은 우리가 외부적인 압제에 짓눌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하지만 헉슬리의 비전은 달랐다. (중략) 사람들은 스스로 나서서 압제를 반기게 되고 그들의 사고 능력을 해칠 테크놀로지를 숭배하게 될 것이라는 게 헉슬리의 비전이었다.[3](Neil, 1986: 5)

---

1) 중국에서 유행하는 카카오톡과 비슷한 무료채팅 앱이다.

2) "상심"은 조용환 교수가 교육문제를 거론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다. "상심"에 대해 조용환(1997)에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 있다. "'상심'이라는 용어는 키어케고르(S. Kierkegaard)가 복음서에서 따온 개념을 이홍우(1991)와 임병덕(1990)이 재해석하여 사용한 것이다."(조용환, 1997: 28)

3) 저자가 오웰의 <1984>와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를 비교하면서 전개하였다.

> 오웰은 우리가 증오하는 것이 우리를 파멸시킬까봐 두려워하였다. 반면 헉슬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우리를 파멸시킬까봐 두려워하였다.(Neil, 1986: 6)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나는 여닐곱의 한국 젊은이들과 신촌에 있는 쉐어하우스에서 같이 살았다. 그들이 자주 하는 말들은 몇 가지가 있었다. 예를 들면, “뭘 먹을까?”, “알바 가야 돼”, “다이어트 꼭 할 거야”, “독서모임에 갔다 왔어” 등이었다. 다른 말들은 중국 젊은이들도 자주 하지만 독서모임에 대한 것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었다. 처음에는 그냥 흘려들었지만 이 말을 여러 번 들으면서 한국 젊은이들이 독서모임에 많이 참여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왜 중국과 달리 한국에서 독서모임이 성행하는지 매우 궁금해졌다.

권현지(2019)는 통계 수치로 독서모임의 성행 현상을 언급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8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독서모임 수는 확인된 것만으로도 20,160개에 이른다. 그 외에 통계로 잡히지 않는 지역의 자생적인 독서모임은 대략 2만여 개로 추정할 수 있으며,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독서모임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치열한 입시경쟁과 ‘지긋지긋’한 학교공부에서 어렵게 벗어나 사회로 투입되고 직장생활을 하는 그들은 왜 책으로부터의 도주가 아닌, 독서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일까? 또한 스마트폰이라는 전자제품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독서모임에 참여하는 동기가 무엇일까? 독서모임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 입시경쟁이 심한 오늘날, 학생들이 학업에 싫증을 쉬이 느끼게 되는 이 시대에 자발적으로 독서를 하고 토론하는 독서모임을 연구하는 것이 상술한 기존 교육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육내용과 형식의 다양성을 확장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독서모임의 수량과 대조적으로 독서모임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특히 조직이나 도서관에 의존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작한 독서모임에 대한 교육적 의미를 탐구한 연구는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박정아,

2018; 권현지, 2019). 교육이라고 칭할 때 초·중등 교육, 고등교육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다수이다. 그러나 소위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또는 배움은 교육이라는 용어에서 배제된 채로 주변화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연구에서 주변화 되었던 학습공동체인 독서모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즉, 독서모임의 운영방식, 참여인원 등 피상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독서모임의 심층적인 특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독서모임 구성원들의 참여에 방점을 두고 조밀하게 들여다봄으로써 나아가 자발적인 독서모임의 교육인류학적인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은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이어진다. 이 연구는 한국의 여러 모임 중에서 독서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시작된 오프라인 독서모임에 주된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독서모임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왜 한국 청년들은 독서모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지, 왜 중국에 비해 한국은 독서모임의 수가 많고 접근성이 높은지, 독서모임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모임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단, 한국은 독서모임이 방대하므로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프리책'이라는 독서모임을 사례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리책은 어떤 독서모임인가?

나는 초등학생일 때부터 80, 90년대의 대학생들이 취미 활동으로 독서모임을 많이 한다는 기사를 접했고 크면 독서모임에 꼭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내가 대학생이 된 이후, 독서모임은 주변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접근성 또한 낮았다. 그래서 한국으로 유학을 오기 전까지 독서모임에 참여해 본 적이 없었다. 따라서 실제 독

서모임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하였다. 하지만 독서모임의 형식과 구성은 사람, 지역, 시대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전부 살펴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의 사례로서 프리책 독서모임을 꼼꼼히 들여다보기로 하였다.

둘째, 프리책 구성원들의 참여 양상은 어떠한가?

현대인들은 여가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선택지가 많아졌다. 텔레비전, 컴퓨터, 휴대폰, 아이패드 등의 전자제품들은 쉬이 사람의 시선을 잡아 끌어 당긴다. 모아라·이소현(2017)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휴대폰에 중독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사람들이 책을 완독하고 모임에 참여하게 되는 원동력이 무엇일까? 더군다나 한국에는 등산, 외국어 공부, 재테크 등 다양한 모임들이 있는데 왜 굳이 독서모임을 선택할까? 참여자들이 독서모임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지속, 탈퇴 등과 같은 결정을 하게 하는지, 독서모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독서”와 “모임”으로 구성되어 있는 독서모임에서 실제로 양자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였다.

셋째, 집단독서의 교육인류학적 의미는 무엇인가?

독서모임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다양한 직업, 다양한 학습 배경, 각기 다른 독서모임에 대한 목적과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에 참여관찰, 심층면담, 현지자료조사 등을 통해 이들이 독서모임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독서모임의 참여 과정을 교육인류학적 의미에서 해석한다면 이 모임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독서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함께하는 독서모임은 사람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에 연구자는 독서모임에 대한 기대나 선이해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독서모임 구성원들의 다중적 시각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 교육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찾아보기로 하였다.

3. 연구방법

연구자는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자발적 독서모임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구체적으로 질적 연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세 가지 방법(3Es)인 참여관찰(Experiencing: participant observation), 심층면담(Enquiring: in-depth interview), 현지자료조사(Examining: field document/native self-report analysis)를 통해(조용환, 2012) 프리책 독서모임을 연구하였다. 참여관찰, 심층면담, 현지자료수집 등을 통해서 얻게 된 다양한 자료는 상호보완적인 속성을 갖는다. 이는 단편적인 정보일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및 편견을 줄이고, 자료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며 질적 연구의 엄격성을 높여준다(Yin, 2016). 연구자는 앞서 설정한 연구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매주 금요일 저녁, 프리책 독서모임 활동에 직접 참여하였다. 참여관찰과 현지자료를 통해서 수집하기 어려운 부분은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보완하였다. 인터뷰 참여자는 프리책 독서모임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며 인터뷰 장소는 식당, 카페 등에서 이루어졌다. 인터뷰 시간은 연구참여자들과 상의해서 편한 시간대로 정하였다.

1) 연구참여자

프리책 독서모임은 “소모임”이라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누구나 수시로 신청 및 가입할 수 있다. 그래서 신입 회원들을 자주 만날 수 있고,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진 회원도 많다. 이처럼 매번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이 달라서 연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회원에게 별 부담 없고, 선택 폭이 다양한 독서모임은 지금도 유행하고 있지만 나중에도 성행할 추세로 보인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이러한 유동성을 연구의 저해요인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독서모임의 한 특성으로 보고 탐구하였다. 다음 <표 1>은 연구참여자들의 기본 정보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연구참여자 기본 정보

이름	나이[4]	성별	직업
햄	40대	남	공무원
유경	40대	여	학원 강사
순영	40대	여	교사
지수	30대	여	회사원
카이	40대	남	자영업자

구성원들의 사적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장소 이름, 독서모임 이름, 구성원들 이름은 모두 가명이나 닉네임을 사용하였다. 연구참여자 선정은 프리책 독서모임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특징이 서로 다른 구성원을 고려하였다.

햄은 모임장으로서 프리책 독서모임의 기본 운영형태를 형성하는 데에 주된 역할을 하였고, 유경은 중요한 진행자로서 주된 역할을 맡았다. 순영은 다른 연구참여자들과 달리 독서나 토론 활동 자체를 좋아하기보다는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이라서 독서모임에 참여하였다. 지수는 깊게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지만 토론 현장에서 매력적인 관점을 많이 제공하였다. 카이는 창립멤버이지만 다른 연구참여자들에 비해서 프리책 활동에 매우 적게 참여하였다.[5] 전반적인 연구 작업은 연구참

4) 이 표를 근거로 프리책의 나이대가 “30, 40대” 중심이라는 추론이 나올 수도 있지만 사실 2018년에 그들을 처음 만났을 때 햄과 순영이 아직 30대였고 나도 아직 20대였다. 즉 프리책이 처음부터 “30, 40대”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30대”위주로 모임하면서 “30,40대”로 변하였다.

5) 원래 나도 프리책에 오래 다녔고 다른 사람과 차이가 크고 내부자의 독특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연구참여자로 선정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논문 제Ⅲ장을 작성할 때 내가 나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다른 연구참여자들과 병치해서 기술할 때, 연구참여자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어서 나를 연구참여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럼에도 프리책의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잘 드러내기 위해, 나의 이야기를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 속에 녹여놓았다.

여자들의 허락을 받아서 진행하였다.

2) 연구과정

(1) 준비 단계

연구 과정은 크게 준비 단계와 본격적인 조사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 준비 단계의 기간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로, 이 단계에서는 독서모임의 실체를 알아보기 위해 2018년 1학기에는 <교육문화기술법>이라는 질적연구방법론 강의를 수강하며 수업에서 배웠던 이론과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아울러 참여관찰, 심층면담, 현지자료조사, 포토에세이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독서모임에 대해 파악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19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같은 학교의 중국 유학생들이 중국 철학가 풍우란(馮友蘭)의 작품을 읽는 독서모임에 참여하였다. 모임에 참여하면서 중국인들의 독서모임과 한국인들의 독서모임의 차이가 무엇인지 유심히 관찰하였다.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한국의 독서모임을 연구하려면 기본적인 문화나 배경 지식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한국 근대교육사 수업도 함께 수강하였다. 수업을 통해 “근대교육의 맹아”, “국민 만들기”, “학교 평준화” 등의 개념과 역사를 알게 되면서 한국의 독서모임을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었다.

2019년 7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내가 관찰한 모임의 형식과 특징을 참조해 학교에서 중국 유학생들과 함께 토론모임을 만들었다. 토론모임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반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구성원들이 매주 한 명씩 하나의 주제를 제공하고 같이 토론하였다. 6주 동안 토론한 주제들은 “페미니스트”, “민주”, “수학”, “인생의 의미”, “성격” 등이 있었다. 첫 번째 토론 후에는 서로 다른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하지만 나날이 서로 너무 예의를 지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자신의 생각을 꺼내서 깊이 토론하기보다는 칭찬을 많이 하

고 비판과 같은 본인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결국 이 모임은 한 달이 지나서 자동으로 해체되었다. 이러한 모임의 시도를 통해서 나는 모임의 운영과 유지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독서모임을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개인적인 논문자격시험을 준비하면서 독서모임에 관련된 문헌들을 두루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이때 독서모임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관련 문헌들도 살펴보았지만, 여전히 독서모임에 대한 그림이 뚜렷이 잡히지 않았다. 사람들이 왜 독서모임에 참여하는지, 독서모임은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만드는지,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고 지속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독서모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등의 궁금한 점이 많았지만 앞서 밝힌 준비 단계의 조사로는 풀기 어려웠다.

(2) 본격적인 조사

나는 2018년 프리책 독서모임에 가입하였지만 본격적인 조사의 경우, 2020년 7월부터 시작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동의를 받고 게시판에 있는 연구참여자들의 게시글을 개인별로 수집하고 시간순서별로 정리하였다. 모임장 햄의 게시글을 바탕으로 프리책의 중요한 전환점과 사건들을 타임 라인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햄과 유경의 게시글과 통합적으로 본 결과, 과거에 어떤 책을 읽었는지, 발제를 어떻게 하였는지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순영과 지수의 게시글을 통해서 그들이 프리책의 활동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협조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프리책이라는 독서모임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파악하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면담에서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윤곽이 잡히기 시작하였다.

연구 계획을 연구참여자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내가 무슨 연구를 어떤 방법으로 할지 잘 모르겠다고 토로하였다. 그래서 연구문제, 연구동기, 연구계획, 자료수집방식, 예상목차, 예상질문 등의 내용이 포함한 PPT를 만들어 연구참여자에게 설명하였다. 이후 2020년 8월에서 11월

사이에는 5명의 연구참여자들과 각 3번의 인터뷰를 하였다. 원래 대면으로 인터뷰를 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져서 인터넷으로 인터뷰를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햄과 유경이 사회를 본 독서모임 토론 현장을 각각 한 번씩 녹음해서 기록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각각 카톡과 이메일로 나에게 보내준 개인의 블로그, 영상, 사진 등과 프리책 독서모임 자체에 대한 자료들도 연구에 도움을 많이 주었다.

3) 자료수집과 자료분석

질적 연구의 자료수집은 3Es 즉, 참여관찰, 현지자료조사, 심층면담 세 가지 방식을 제일 많이 활용한다. 이 연구의 현지자료조사는 주로 연구참여자들의 게시글과 연구참여자들이 제공해 준 자료들로 이루어진다. 연구참여자들이 프리책에서의 맡은 역할이 달라서 그들의 게시글을 합치면 프리책의 기본 틀을 잡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언제 프리책을 시작한 것인지, 모임 장소가 어떻게 정해지고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프리책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인지, 언제 어떤 책을 읽었는지 등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이처럼 프리책에 대한 기본 정보를 파악한 후에야 연구참여자들과 인터뷰를 할 때 무엇을 물어야 되는지 분명해진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과 자료분석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자료수집

현지자료조사에서는 분석보다 수집 및 정리 작업에 집중하였다. 수집한 현지자료에서는 프리책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하였지만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심층면담은 참여관찰과 현지자료조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참여관찰과 현지자료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없는 내용들은 연구자가 직접 연구참여자들에게 물어볼 수 있다. 이에 심층면담을 위해 5명의 연구참여자들과 대면으로 각각 3번씩 면담을 하고 추가 질문이 있으면 추후로 인터

뷰를 더 할 계획이었다. 인터뷰 질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표 2> 1차 인터뷰 질문

예상 질문	
1	프리책을 만든 동기, 목적, 과정은 무엇인가?
2	프리책에 가입한 동기는 무엇인가?
3	사회자로서 모임에 참여할 때와 일반 역할로 참여할 때 다른 점은 무엇인가?
4	프리책 지정도서를 어떻게 선정하는가?
5	프리책에서 읽었던 책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책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6	독서모임에서 나의 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7	프리책은 내 삶에서 얼마만큼을 차지하고 있는가?
8	프리책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9	존댓말, 완독, 문학/비문학, 정원 등 규칙을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1차 인터뷰를 하기 전 참여관찰과 현지자료수집으로 프리책의 상황을 대략적으로 파악하였다. 이후 프리책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위와 같은 질문을 만들었다. 인터뷰는 기본적으로 위의 질문들을 순서대로 물어보았지만 궁금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물어보기도 하였다. 반(半)구조화의 인터뷰라고 할 수 있다. 1차 인터뷰를 하면서 프리책과 연구참여자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다. 2차와 3차 인터뷰 질문은 다음과 같다.

<표 3> 2차 인터뷰 질문

독서모임에 대해	
1	과거에 참여해 봤던 독서모임은 얼마나 있었나요? 그 모임은 어떤 독서모임인가요?
2	그 독서모임에 언제쯤 가입했나요? 모임을 얼마 동안 지속했나요?
3	그 독서모임들을 알게 된 방식이나 가입한 방식은 무엇이었나요?
4	독서모임은 보통 어떤 곳에서 진행하나요?
5	독서모임에서는 보통 어떤 책을 읽나요?
6	독서모임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혹은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나요?
7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의 독서모임이 변화가 있었나요? 있었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8	시간이 지나면서 내 독서모임 취향의 변화가 있었나요? 있었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9	나와 독서모임의 몇 가지 이야기(아무 이야기나 다 좋습니다)
프리책에 대해	
1	프리책에 언제 가입했나요?
2	프리책에서 사회자나 운영진이 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3	프리책의 사회자나 운영진이 된 원인이나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4	프리책이 다른 독서모임과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5	프리책이 다른 독서모임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6	나와 프리책의 몇 가지 이야기(아무 이야기나 다 좋습니다)

1차 인터뷰에서는 프리책의 기본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러나 1차 인터뷰만으로는 다른 독서모임과 프리책과의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2차와 3차 인터뷰에서는 “독서모임”, “프리책”, “독서”, “나”라는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하였다. 1차 인터뷰와 비슷하게 2차와 3차 인터뷰도 대략 1시간 정도 걸렸다.

<표 4> 3차 인터뷰 질문

독서에 대해	
1	독서를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2	처음에 읽었던 책이 무엇인지 기억하나요?
3	책에 대한 취향의 변화가 있나요?
4	왜 책 읽기를 좋아하나요?
5	독서 외에 다른 취미가 있나요?
6	작품을 창작하는 것을 시도해 본 적이 있나요?
7	좋아하는 책은 무엇인가요?
8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친 책은 무슨 책이었나요? 그 책은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9	책읽기가 나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10	나와 책의 몇 가지 이야기(아무 이야기나 다 좋습니다)
나에 대해	
1	나의 정체성
2	“고민, 왜, 젠더, 폭력, 세월호, 관계, 광주, 진실, 진상, 깊이, 혐오, 분쟁, 문학적 저항, 상실, 종교, 여성성, 공동체, 장애, 차별, 빈곤, 사회운동, 고독, 나눔, 위안, 죽음, 죄책감, 정체성, 장르문학, 악인, 성장, 이름, 진심, 성찰, 페미니스트, 기억, 함께, 미래…” 위와 같이 프리책 공지 글에서 자주 나다나는 키워드들 중에서 나한테 중요한 키워드가 있나요?(여기에 있지 않은 것도 상관 없습니다.)
3	닉네임의 유래와 의미
4	내 인생의 몇 가지 이야기(아무 이야기나 다 좋습니다)

유경과는 온라인으로 한 번 인터뷰를 했고 직접 만나서는 두 번 인터뷰하였다. 그리고 지수와는 총 세 번의 온라인 방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카이와는 대면으로 진행하였다. 제일 먼저 진행하고자 했던 햄과

순영의 인터뷰는 마지막으로 하게 되었다.[6] 온라인 인터뷰 진행은 나쁘지 않았지만 중간에 신호가 끊기거나 약간의 어색한 분위기가 느껴지기도 하였다.

(2) 자료분석

인터뷰를 하고 나서 바로 전사 작업을 시작하였다. 한 사람당 약 60페이지 내외 정도의 분량이 나왔다. 전사 작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누가 언제 어떤 말을 했었는지 잘 기억이 났지만 여러 번 읽을수록 내용들이 섞여서 오히려 헷갈리기 시작하였다. 또한 자료의 양이 많아서 코딩 작업이 어려워 여러 번 시도하였으며, 덧붙여 Ⅲ장과 Ⅳ장을 작성하기 위한 코딩 방법은 차이가 있었다.

우선 Ⅲ장을 작성할 때 코딩 작업은 전사 파일을 출력해서 여러 번 읽고 소제목을 대략적으로 뽑았다. 이어서 논문 작성에 필요할 만한 내용들을 펜으로 표기하고 페이지 밑의 빈자리에 중요한 부분을 짧은 “emic한 언어”[7]로 기록하였다. 이후 이런 언어들을 공책으로 옮겨서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지수와의 1차 인터뷰에서는 “네이버 카페” “접근성” “심리책” “한국 소설” 등 28개 키워드를 뽑아냈다. 2차와 3차 인터뷰는 각각 21개, 17개 키워드를 정리하였다. 그 다음에 “지수는 어떤 사람인가?” “지수는 어떻게 프리책에 가입하였는가?” “지수는 프리책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등과 같은 질문들을 만들었고 각 질문에 해당한 키워드들을 그 질문 밑으로 정리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프리책이 어떤 독서모임인지, 기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았다.

---

6)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의외의 상황이 많이 발생하였다. 프리책의 전반적인 그림을 파악하기 위해서 모임장 햄부터 인터뷰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햄과 순영은 부부이기 때문에 함께 면담 시간을 잡아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 순영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외부인 비대면 권유 규정이 내려왔다. 질적 연구는 대면 인터뷰로 진행해야 하는 의례가 있으므로 인터뷰를 연기하였다. 그러나 코로나가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음으로 유경과 지수와의 약속을 잡을 때는 직접 온라인진행으로 건의하였다.

7) 조용환(1997: 62)에 따르면, 에믹(emic)한 언어란 현지인의 언어를 일컫는다. 에틱(etic)한 언어는 연구자가 설정한 개념이다. 이와 대응하는 개념은 내부자 접근(emic approach)과 외부자 접근(etic approach) 등 개념들도 있다.

프리책의 기초정보를 알아봤지만 이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해서는 자료에 대한 코딩 작업을 다시 해야 하였다. 이를 위해 프리책 구성원들의 참여 양상을 학술용어로 어떻게 기술할지에 대해 계속 구상하고 변경하기를 반복하였다. 예를 들어 현지자료수집과 참여관찰, 인터뷰를 근거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진선미와 문화상대주의” “도서선정” “토론방식” 등 개념을 소제목으로 정하고자 하였지만, 여러 차례 반복적인 코딩작업을 통해 “참여의 유형” “참여의 특성” “참여 부진의 원인”을 소제목으로 정하였다. 참여관찰을 할 때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의 성격, 취향, 동기 등이 서로 다름을 뚜렷하게 감지했지만, 체계적인 분류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처럼 인터뷰 자료의 코딩을 통해 구성원들의 서로 다른 특징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프리책 구성원들의 많은 참여 특성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자발성이었다. 그러나 자발성과 함께, 독서모임의 강요성도 발견되었다. 또한, 개방성이라는 뚜렷한 특징도 나타났지만, 동시에 인터뷰를 통해 폐쇄적인 면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각각 “자발성과 강요성”, “개방성과 폐쇄성”에 대한 자료들을 네 개의 파일로 따로 만들었다. 주제에 크게 상관없는 내용, 그리고 Ⅲ장에서 코딩 및 기술한 중복된 내용들을 삭제하고 파일을 따로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자료의 출처를 표시하지 않으면 헷갈리기 쉬우므로 남은 자료들이 누구와의 몇 차례 인터뷰인지, 원본 자료에 몇 페이지에 위치하고 있는지 등의 정보들을 일일이 표시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Ⅳ장에서 정리하였다.

4. 연구의 범위와 한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독서모임의 수가 방대하며 이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과 자원의 한계로 모든 독서모임을 다 연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선행연구와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연구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독서모임을 보다 깊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연구자는 질적 사례연구라는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프리책 독서모임은 “진지함” “재미”와 “깊이”를 강조하고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므로 교육적인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연구 사례로 설정하였다. 또한 프리책에서 대표성이 있는 5명 구성원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고 그들의 참여를 중심으로 독서모임의 양상 모습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연구방법과 연구범위로 인하여 한계를 갖는다. 연구방법의 경우, 질적 사례연구를 연구방법으로 차용함으로써 독서모임의 넓이보다 깊이 자체에 방점을 두기 때문에 다양한 독서모임을 두루 연구하기 어려운 점이 이 연구의 한계이다. 이 또한 질적 사례연구 방법의 특징이기도 하다. 연구범위의 경우, 이 연구는 프리책 만의 특성을 갖는 독서모임에 대해 심도 있는 탐색을 하고자 함으로, 전반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독서모임의 특징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그 외에도 연구자가 외국인으로서 독서모임을 연구하는 것이 문화 배경의 차이, 언어적 제한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한계가 있다. 사실 프리책 활동에 참여할 때 내가 외국인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외국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대우를 다르게 받았다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았다. 프리책에서 국적이나 계층이나 출신보다 “독서하는 사람”이라는 특징으로 구성원들을 새로 묶어 주었다. 그래서 참여하는 과정에 프리책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다.

그러나 연구는 단순히 현재의 시간과 공간에 머물 수 없다. 독서모임을 포함한 다양한 한국문화는 한국인에게 익숙한 배경이지만 나한테는 낯설고 어려우며, 추상적인 지식으로 다가온다. 문헌을 통해서 독서모임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지만 역사와 일상 속에 녹아 있는 뉘앙스와 같은 부분은 내가 체득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와 동시에, 외국인의 눈으로 한국의 독서모임을 새롭게 볼 가능성도 함축되어 있다고 보인다.

Ⅱ. 선행연구 개관

네이버 지식백과에서는 독서모임을 “문학 작품을 읽고 개인적인 느낌을 쓰고 협동적으로 토의하도록 계획된 모형”이라고 하였다.[8] 이처럼 독서모임은 의미의 구성 과정을 중요시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글에 대한 사실적 이해보다는 글에 대한 독자의 반응을 강조하고 글을 읽은 후에 나누는 생각 즉, 담화 공동체의 참여를 강조한다. 이에 독서모임은 정해진 토론 시간까지 각자 책을 읽어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독서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이에 독서모임의 종류와 형식은 다양하지만 기본적인 형태는 독서와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번 장에서는 독서모임의 교육적 의미와 국내외 관련 연구의 동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1. 독서모임의 교육적 의미

독서모임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니 독서의 의미를 강조하는 글은 많았지만 독서모임에 대한 연구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독서모임의 성행에 비해, 독서모임에 대한 연구가 대조적으로 적은 형상은 상당히 흥미롭다. 이것은 아마 한국 사람들이 독서모임을 일상으로 당연시하였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독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데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독서모임의 구성원 참여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1) 독서모임의 개념

8)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39221&cid=47319&categoryId=47319 검색일:2020.12.02. 검색키워드: 독서모임. 지식백과에서 독서모임 아니라 독서클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선연(2016)은 독서모임의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텍스트의 유형과 모임의 진행 방법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책이나 글을 읽고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토론을 하는 형태를 지닌다고 하였다.

김윤자·김현애(2017)는 독서모임을 통해 집단 독서활동은 구성원 간에 같은 책을 읽고 느낀 점을 말하고 토론하면서 타인을 이해하고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사회 적응력을 길러줄 수 있는 활동이라고 하였다. 또한 독서모임을 통해 독서의 생활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이러한 계속적인 활동은 개인에게 지적 능력과 인격적 발전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나아가 지역적·국가적 차원의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고 하였다.

독서모임을 시간상으로 나누면 토론 전, 토론 중, 토론 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우창호, 1997; 이선연, 2016; 박정아, 2018; 권현지, 2019). 토론 전은 독서를 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말하고, 토론 과정(토론 중)은 글을 읽은 후의 생각이나 느낌을 나눌 수 있는 담화 공동체에의 참여를 강조한다. 토론 후는 주요 감상문이나 다른 쓰기 과정을 거쳐 독서 과정을 한 층 더 심화하는 것이다.

이처럼 독서모임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분명한 것은 독서와 독서토론이 독서모임을 구성하는 두 개의 중요한 축이라는 것이다. 위에서 정리한 학자들의 개념들을 종합해서 나는 독서모임을 “책을 읽고 함께 토론하는 모형”으로 보겠다.

한편 독서모임이라는 용어 외에도 독서동아리, 독서클럽(네이버 지식백과), 독서회[9], 독서공동체(박정아, 2018), 북클럽(권현지, 2019) 등 다양한 용어들이 있다(권현지, 2019). 본 연구에서는 프리책 독서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습관을 따라서 “독서모임”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앞에서 밝혔듯이 독서와 독서토론은 독서모임을 구성하는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독서모임의 의미를 독서토론에 더

9) 중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많이 두면서 독서의 의미와 기능을 소홀히 한다고 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면서 독서와 독서토론에 대해 살펴보면서 독서모임의 의미와 기능을 풀어나가겠다.

2) 독서의 의미

독서의 의미와 기능은 상대적으로 대답하기 쉬운 질문처럼 보인다. 독서의 중요성은 많은 명인들의 책과 글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보통 부가적인 것으로서 다른 주제 아래에 산재하고 있다. 독서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것은 비교적 접촉성이 강하지만 체계성, 이론성 면에서는 정리와 요약이 부족한 실정이다. 독서의 의미에 관한 내용은 주로 지식, 사고력, 인간성, 가치관, 성장과 공동체 소속감 등 몇 가지를 둘러싸고 있다.

김경일(1981)은 독서에 대한 의미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도서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① 독서의 즐거움을 유도해 줄 수 있는 것. ② 독서 영역의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③ 사고(思考)의 심화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④ 마음과 애정을 내면화하여 인간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것”(p.216)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연구자가 생각하는 독서가 “즐거움”, “영역의 확대”, “사고의 심화”, “인간성 촉진” 등 의미를의 지님을 알 수 있다.

김재윤(1996)은 고등학생들이 도서를 선택할 때 이용하는 주된 정보는 ‘친구 추천’(남 29.9%, 여 25.2%)이 가장 높고 ‘도서선정·추천 목록’을 이용하는 것보다 2~3배나 더 높다. 김은엽(2013)의 연구에 따르면 한 참여자는 “남들은 다 읽었는데 나 혼자만 안 읽었다면 이상한 기분이 든다.”고 언급하였다. 우창호(1997)는 독서교육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논의하면서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인간 교육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독서 교육은 지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미성숙 단계에 있는 학생들이 훌륭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을 만나게 함으로써 폭넓은 지식을 얻고, 올바른 도덕관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다.”(p.156)고 하였다.

변우열(2009)은 독서를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형성하는 통로가 되는 성장의 도구라고 하였다. 또한 독서는 인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앎과 깨달음, 감동을 얻는 핵심적인 방편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독서는 개인적인 조건이나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두면 독서생활이 태만해지기가 쉽고, 독서 방법도 자기의 생각에만 얽매여 편협해지기 쉽다고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모임을 통해서 집단으로 독서활동을 전개하여 개개인의 독서편향을 바로잡고 독서 영역을 확대시키며 개개인의 사고의 폭과 깊이를 확대할 수 있는 독서활동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3) 독서토론의 의미

독서토론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 학자들은 주로 “함께”, “같이”를 강조하였다. 아울러 독서 연장선상의 의미와 기능을 강조하였다. 이는 독서의 의미와 비슷하다고 여겨지지만 차이점이 있기도 한다.

우창호(1997)는 독서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독서토론회를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그가 생각하기에 독서토론은 “하나의 작품을 두고 주제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는 힘, 작품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의미를 함께 찾아가는 길이 될 것이다. 더불어 토의와 토론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독서에 대한 흥미도 갖게 되는 이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p.160)고 하였다.

서미경 외(2011)는 독서토론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고 논점이 되는 문제들에 대한 지식, 이해, 판단, 결정 등을 내리고 독서의 과정에서 생긴 의문점이나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에 대한 답을 얻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김은엽(2013)은 중학생 고전문학 읽기 북클럽 운영의 의의와 과제를 연구하면서 도출된 독서토론의 의미와 기능을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하였다. 이는 “① 혼자 하는 독서에서 생길 수 있는 피상적이고 독단적인

이해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고. ② 좋은 책을 골라 정밀하게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③ 자기 의사를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과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듣는 자세를 기를 수 있으며. ④ 합리적으로 이성을 중시하는 과정을 통하여 민주적 소양을 기를 수 있다."(p.129)이다.

이선연(2016)은 독서토론의 교육적 효과와 의의는 크게 요약한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서토론 전에 독서를 하고 이를 이해하여 토론해야 하기 때문에 독해능력이 증진된다. 둘째, 비판적, 논리적인 사고력 등 고차적 사고능력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셋째,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능력과 그 과정에서 공동체의식과 긍정적 태도를 함양할 수 있다."(p.8)

2. 국내외 관련 연구의 동향과 과제

국내외 독서모임 관련 연구의 동향과 과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나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독서", "모임" 등의 키워드를 각각 검색하였다. 이 중의 "독서"에 관한 자료가 가장 많았지만 범위가 너무 넓어 연관성이 긴밀하지 않았다. 그 다음 범위를 축소해서 "독서모임"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21개의 자료로 그 양이 너무 적어서 추가적으로 "독서교육", "독서운동" 등을 키워드로도 검색하였다. 이어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주요 검색 엔진으로 "독서모임"을 검색하였다. 하지만 이 역시 자료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그 중 최근 몇 년간 나온 석·박사학위논문은 참고 가치가 높은 편이다. 아울러 이 학위논문들의 참고문헌을 통해 일부 참고 자료를 구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국외문헌은 CNKI-CAJ online(중국학술지), CNKI-CDMD(중국 석·박사학위논문) 자료를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1) 국내 독서모임 관련 연구

한국은 역사적으로 독서를 중요시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서유경(2018)에 의하면 조선시대에 독서는 그 자체로 학습의 과정이고 관료로 진출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법이었다. 뿐만 아니라 관료들로 하여금 독서에 몰입할 수 있도록 세종 때는 사가독서제도(賜暇讀書制度)가 실시되었다. 성균관, 서원, 향교, 독서당 등 공적 독서 공간에서 일어나는 집단적 배움과 달리 고정한 장소 없이 전기수(傳奇叟) 한 명이 소설을 낭독하고 함께 들음으로써 이루어지는 독서 형식도 있었다. 지식백과[10]에 따르면 근대 이후 식민지 상황 속에서 당시의 각 학교에서는 소설에서부터 공산주의서적까지 다양한 책들을 읽고 토론함으로써 자기들의 역사적 사명감을 고취하는 독서회가 조직되었다. 고대에서 근대까지 한국과 중국의 독서역사가 높은 유사성을 보였고 근대 이후는 경제, 이데올로기, 정치 등 영향을 받아서 양국의 독서문화 차이가 점점 커졌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및 RISS 등을 통해 검색해본 결과, 독서에 대한 연구 중에서 독서교육, 문헌정보학, 독서치료, 독서지도 등 주제가 가장 많았고 독서모임, 독서공동체와 관련된 연구는 매우 적은 편에 속하였다. 독서에 대한 연구는 주로 「독서연구」, 「국어교육연구」, 「독서문화연구」,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등과 같은 학술지에 실렸다. 검토 결과 “독서연구”와 “국어연구”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양상이 나타났다. 독서모임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들어서야 점점 많아지고 있다.[11](김은엽, 2013; 이용준, 2014; 김윤자·김현애, 2017; 최지원·서문기, 2018; 박정아, 2018; 권현지, 2019; 이옥부, 2021)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은 평생교육, 독서교육이나 국어교육의 시각으로 보는 경향성이 있다. 연구대상은 중학생, 직장인, 중년 여성 등이 있었으며, 연구 방법은 질적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모임에는 주로 직장 내 독서모임이나 공공도서관, 평생학습과 등 기관의 독서모임, SNS에 기반을 둔 독서

10)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43891&cid=46644&categoryId=46644 검색일:2020.12.10. 검색키워드: 독서.

11) 많아지고 있지만 그 양이 매우 적고 연구 범위도 제한적이다.

모임 등이 있다. 아동 및 청소년의 독서모임에 대한 연구는 많음에 비해 성인을 대상을 하는 독서모임에 관한 논의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박정아, 2018; 권현지, 2019). 자료 검색 결과를 분석하면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영국도 이런 현상이 있었다. 독서의 다른 영역보다 독서모임을 다루는 연구 자체가 많지 않은 편이고 독서교육이나 독서운동에 관한 연구들이 많았다(허재영, 2005; 윤금선, 2008; 김명순, 2011; 김상욱, 2012; 우한용, 2013; 김혜정, 2016).

김지원(2010)의 직장인들의 독서모임 참여 실태를 탐색한 연구는 구성원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하고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 책을 읽고 토론하는 과정을 논의하였으며, 부서 간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며 소속감과 애사심을 높이는 효과를 제시하였다. 그 한계로 독서를 업무의 연장선으로 간주함을 비롯하여 여러 측면을 밝혔다.

김은엽(2013)은 도서관에 소속하고 있는 중학생 고전문학 읽기 북클럽 운영의 의의와 과제를 청소년 북클럽 사례를 중심으로 탐색하였다. 또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독서모임을 기획한 취지부터 모집, 토론 작품, 실제 진행 방식을 활동의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모임의 특성을 정리하였다.

김윤자·김현애(2017)는 독서모임 과정에서 중년 여성의 생애 경험에 대한 인식 변화를 탐구하였다. 독서모임에서 독서 자료와 독서모임 집단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애 경험 중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생애 경험을 재인식하고 통찰함으로써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을 밝혔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들을 수 없다는 점이 아쉬웠다.

박정아(2018)는 자발적 독서모임인 <책마루> 구성원들의 학습 경험에 주목하여 독서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자는 <책마루>의 구성원이자 연구자로서 참여하여 <책마루> 구성원들의 학습경험을 내부적 관점에서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책마루>의 정식 명칭인 “책마루독서교육 연구회”를 보면 이 독서모임은 자발적인 독서모임보다 공식적인 학술적 특징을 보였다. 이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여가를 보내기 위해 모이는 활동과 다르다. 또한 이 독서모임에 참여하려면 먼저 이 독서모임이 제공하는 독서교육지도사과정을 먼저 수강하여야 한다는 점이 자발성이라는 말과 충돌될 여지가 있어 보였다. 그리고 모임 시간을 금요일 오전으로 정하는 것도 참여자들의 시간 편리성을 많이 고려하는 일반 독서모임과 달랐다.

권현지(2019)는 부산에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동네책방을 중심으로 성인 북클럽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 달에 한 권의 책을 중심으로 느리고 깊게 읽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더 효과적인 독서모임의 모델을 추구하기 위해 토론과 작문, 자기-질문과 대답과 같은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며 적용하였다. 이 연구는 독서모임 연구에 참고가치가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설문지나 면담 기록이 의하면 참여자들이 앞서 제시한 독서모임의 모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한국인들이 상대방의 기분을 많이 배려해서 이야기한다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이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2) 국외 독서모임 관련 연구

중국은 역사상 한국과 같이 독서를 아주 중요시하는 나라였다. 오늘의 금전을 중요시하는 경제중심주의와 달리 고대 중국에서는 지위가 제일 높은 사람이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심지어 사농공상(士農工商)이라는 신분제도의 서열도 생기고 그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지칭하는 말도 있다. 그것이 바로 “독서(讀書)”와 사람을 뜻하는 “인(人)”을 합쳐서 만드는 낱말이 “독서인(讀書人)”[12]이다. 고대중국의 문화작품에서 “독서모임”활동의 기록도 종종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은 서예가인 왕희지(王羲之)가 “독서모임”을 하고 나서 창작하는 <난정서>라는 글이다.[13] 이 글을 통해서 우리는 고대 독서모임의 형식이 어떤지 엿볼

12) 고대에서 ‘독서인’들은 지식을 품고 있는 사람의 뜻뿐만 아니라 도덕, 품격 방면에서도 풍향계가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지식이 풍부하지만 인품이 좋지 않으면 독서인의 체면을 깎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독서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3) 왕희지(307～368년)는 동진시대의 서예가이고 <난정서>는 난정에서 지은 시첩의 서

수 있다.[14] 이후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청년들이 나라의 미래를 우려하면서 독서회를 많이 조직하였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된 후에 독서회의 내용이 다소 달라졌지만 대학생 집단에 인기가 많았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가면서 독서회가 점점 감소하였다.

2006년에 중국 정부가 국민들의 현저한 독서율을 개선하기 위해 “전민독서(全民讀書)”라는 정책을 내 놓았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성인 독서율이 52.3%에서 58.0%로 5.7포인트 높아졌다. 성인 디지털 독서율은 32.8%에서 58.1%로 25.3포인트 높아졌다. 성인 1인당 종이책 읽기는 4.25권에서 4.56권으로 0.31권 늘었다. 국외문헌은 CNKI-CAJ online(중국학술지), CNKI-CDMD(중국 석·박사학위논문) 자료 중심으로 수집한 결과를 보면 그 중에 적지 않은 연구들이 전민독서 정책을 중심으로 독서를 다루고 있었다. 한국과 비슷한 부분은 도서관, 학교, 주민 센터 등 기관을 배경으로 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것이다. 반면 일반 사람들의 흥미를 중심으로 이루는 독서모임에 대한 연구는 한국에 비해 현저히 드물었다. 다만 2018년 이후에 독서모임에 대한 연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독서모임도 인터넷을 기반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증이산(曾莉嬋, 2013)은 면담, 설문조사, 문헌연구 등을 통해 지역사회 노인독서회 관련 상황을 비교적 포괄적으로 정리하고, 지역사회노년독서회의 발전모델, 기능적 역할, 발전 동력 등을 연구하였다. 이런 연구들은 중국 대륙 지역의 노인독서회 연구 의 폭을 어느 정도 풍부하게 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각 지역의 상황이 다르며, 이 연구는 소수의 지역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오혜루(吳惠茹, 2014)는 조사연구의 소득 자료와 데이터를 결합하여 독서회가 고교의 실천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독서회의 구성 방식에 따라 전형사례를 선별하여 상세히 분석하여 유형별 독서회를 구현하였

문이다.

14) 그들은 늦은 봄에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산에서 모이고 놀이를 한다. 놀이에서 지는 사람은 시를 짜야 하고 정하는 시간 안으로 시를 짜지 못하면 술을 마셔야 한다. 산에서 돌아와서 그 작품들을 모으고 시집을 만든다. <난정서>라는 글이 바로 왕희지(王羲之)가 그 시집을 위해서 쓰는 서문이다.

다. 이 연구 역시 공공기관 위주로 독서 보급 시각 아래의 고등학교 도서관 독서회에 대한 연구이다.

원건영(阮健英, 2017)은 심층 조사와 실증 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국 대륙 지역의 유형별 독서회의 발전 현황을 제시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여 발전 대책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중국 대륙 지역의 독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일정한 참고의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이순영(2011)에 따르면 미국의 독서연구는 1900년대 초반에 시작되고 1976년 일리노이대학에 읽기 연구소(Center for the Study of Reading)가 설립되면서 크게 활성화되었다고 하였다. 일리노이대학 읽기 연구소의 영향을 받아서 "글 깨치기와 초기 독서, 유창성, 읽기 기능과 과정, 스키마와 독해가 독서연구의 핵심 분야가 되었다."(p.128) 이 논문들은 대부분 인지심리학에 기반을 둔 경험연구였다. 이러한 연구들이 2000년대 초반까지 읽기 연구의 핵심 분야였다.

한국의 독서연구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친 나라는 미국이다. 김혜정(2016)은 "한국과 미국은 한국전쟁을 함께 겪은 우방으로 정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나아가 학문적으로도 가까워졌기 때문"(p.41)이라고 하였다. 독서연구의 동향과 향후 과제에 대한 연구들도 미국을 참고한 논문이 많았다(이순영, 2011; 김혜정, 2016; 김종윤, 2017). 특히 독서연구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단체인 한국독서학회는 국제독서학회(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15]의 연구 주제, 연구 동향 방면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일본의 경우, 민간의 독서클럽이 대단히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로 약 만개가 넘는 자생적 클럽이 존재한다. 또한 각 지역별 운영되는 클럽의 소개와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는 웹사이트도 운영되고 있다. 일본 독서동아리의 독서 스펙트럼은 비즈니스 도서, 만화, 시집, 잡지, 자기계발서, 문학서적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15) 국제독서학회(IRA)는 1956년 비영리 국제 학술 단체로 창립되었다. 2015년 1월부터 국제문식성학회(International Literacy Association)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다.

Ⅲ. 독서모임 프리책

프리책은 운영 문제로 인해 <논과 노>[16]라는 독서모임에서 독립해 나온 모임이다. 초창멤버들이 <논과 노> 구성원이었고 독서모임 이름, 장소, 시간, 진행 방식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들을 함께 정하였다. 프리책은 2017년 8월 11일 금요일에 첫 모임을 진행하였으며 2021년 11월인 지금까지 4년 넘게 지속되어 오고 있다. 프리책 성립된 지 4년여 동안 다양한 탐색과 시도를 한 후 지금과 같은 모습을 형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보내 주었다. 독서모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번 장은 프리책의 기본 상황, 연구참여자들의 독서모임 이야기, 독서토론의 진행과정이라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프리책의 기본 상황

프리책 독서모임은 비영리적인 성격을 지니므로 구성원들의 지지와 참여에 많이 의존한다. 실제로도 프리책 모든 활동의 조직과 운영에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중 운영진이 되는 사람이 있다. 보수는 없지만 그들은 사회, 도서선정, 발제, 모임 후기, 계산 등의 일을 적극적으로 맡았다. 구성원들은 “소모임”앱과 카톡[17]으로 소통을 한다. 만약 사람들이 프리책의 독서모임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면 먼저 “소모임”앱에서 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 프리책 활동의 모든 정보는 “소모임”앱으로 알려지며, 카톡은 “자유롭게 수다 떨 수 있는 공간”으로 소모임의 소통을 돕는 장치를 한다. 이러한 구성원들의 지지, 장소 선정, 플랫폼은 최종적으로 독서토론을 위한 것이고 독서모임의 핵심은 독

16) <논과 노>의 “논”은 <논어>의 “논”이고, “노”는 노자의 “노”이다.
17) 카톡은 메신저 응용 프로그램 카카오톡의 줄임말이다.

서토론에 있다. 토론이 끝난 후에는 보통 뒷풀이를 진행한다. 다음에는 독서모임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성원, 운영진, 소모임 앱, 독서토론, 뒷풀이, 규칙의 여섯 요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1) 구성원

프리책과 비슷한 시기에 성립된 큰 규모의 독서모임들 중에는 회비를 내야 하는 상업적인 모임들이 적지 않다. 높은 참가비는 참여의 문턱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상업 활동이 여전히 투자자들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독서모임이 한국에서 시장성과 수요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물론 프리책 독서모임도 비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비용은 독서모임 관계자에게 내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제공하는 카페에 내기 위한 것이다. 즉, 장소 사용료와 개인이 시키는 음료수 비용만 내는 것이다. 프리책 주요 활동지인 브라더카페로 예를 든다면 3시간 장소 사용료는 6,000원이고 음료수는 반값이다. 보통 한 번에 참여하는 비용은 10,000원을 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프리책의 비영리성은 프리책의 모든 활동은 구성원들의 지지와 협조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프리책의 구성원 수는 수시로 바뀐다. 성립된 지 2주도 안 되는 2017년 8월에 프리책 구성원은 40명을 돌파했고 2018년 3월에는 200명에 육박했으며 2019년 연말에는 300명을 육박하였다. 이후 2019년 연말에 코로나가 발발해서 2021년 11월초까지는 192명으로 하락하였다. 이처럼 총 구성원 수는 200명 정도이지만 상당수는 가입 신청만 했을 뿐 실제 정모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프리책 정모 활동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익숙한 얼굴들이다. 정원이 12명의 모임에서 비율로 따지면 보통 3~5명은 장기적, 고빈도로 참여하고 3~4명은 단기적 고빈도적으로 참여한 후 나오지 않는다. 나머지 1~3명은 완전히 처음으로 프리책에 참여하며 1~2명은 당일에 급하게 취소하는 경우가 많다.

프리책 구성원들 중에는 직장인들이 많다. 그 중에서도 비교적 안정적

인 직업을 가진 교사나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여성 구성원의 비율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많다. 연구참여자인 유경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임이 세 군데인데 모두 직장인들 중심이구요. 구성원의 90프로가 다 여자예요. 프리책이 남자가 많은 편이에요.”라고 하였다. 나이대는 20대에서 50대까지 다 있는데 자주 독서모임에 나오는 참여자는 30대와 40대가 많다.

구성원들의 관계에 대해 햄은 “서로 침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들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고요. 서로간의 그런 것들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느 정도는 친밀함과 멀어지는 관계, 난로처럼.” 이라고 밝혔다. 프리책에 3년 동안 참여하면서 나는 햄의 말에 공감한다. 구성원들끼리 서로 진지하게 대하면서 언제든지 탈퇴해도 부담 없는 관계를 유지하는 분위기가 있다.

2) 운영진

소모임[18] 앱에서 구성원은 모임장, 운영진, 일반 구성원으로 나눌 수 있다. 프리책의 활동은 구성원의 지지와 도움에 의존하고 있다고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이 중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사람은 운영진들이다. 모임장 햄에 의하면 운영진을 선정하는 데에 특별한 기준과 의미가 없으며 운영진이 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햄은 게시판에 “프리책에서 사실 운영진이 가지는 권한이나 의무는 크지 않습니다. 단지 프리책이 보증하는 좋은 사람이라는 정도의 타이틀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젠가는 모든 분들이 운영진으로 구성된 모임으로 만드는 게 목표구요.”라고 밝힌 바 있다.

내가 3년 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운영진들로 선정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주도적인 자세를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 예컨대 토론 과정을 이끌어가는 것, 장소를 물색하는 것, 차별화된 견해를 제시하는 것, 모임비를 정산하는 것 등과 같이 시키는 사람이 없는데도 주도적

18) “소모임”은 취향이 맞는 사람들을 서로 연결해 주는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이름이다.

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보통 운영진으로 선정된다. 장소를 물색하는 것, 모임비를 정산하는 것은 사소해 보이는 일들이지만 “튀”는 것을 꺼려하는 문화에 앞나서 뭔가를 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행동인 것이다.

모임장을 포함하면 총 14명의 운영진이 있으며 이들은 프리책의 주요 활동을 맡고 있다. 이 중 햄은 프리책의 총체적인 흐름을 이끌고 비문학 도서의 사회자 역할도 맡고 있다. 토론 현장에서 새로운 구성원에게 말을 걸어서 그들의 긴장감을 풀거나 사람들의 의견을 수집해서 프리책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한 게시판에서 공지나 발제를 올리거나 수필을 통해서 구성원들과 생각을 나눌 때도 많다.

유경은 문학도서의 사회자 역할을 한다. 그 외에 발제, 책 선정 등 작업도 책임을 지고 있다. 순영은 독후감이나 책 내용 정리 등의 작업을 자주 하고 송년회 준비 작업도 맡는다. 지수는 자신의 생각을 보다 조리 있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사람이다. 일을 빨리 처리하며 정산 작업을 주로 담당한다. 그리고 카톡방 만들기, 마스크 착용 공지[19]도 지수가 제기한 것이다. 우진은 말씨가 부드럽고 타인을 많이 배려한다. 우진은 처음에 자유도서 사회자 역할을 많이 하였고 최근에는 일이 바빠서 출석이 뜸한 편이다. 이 외에도 순주, 미정, 현진, 제홍, 니모, 재윤, 민석, 카이, 선우 등의 운영진들이 있다.

3) 소모임

프리책의 규모를 명확히 규정하기는 어렵다. 구성원이 200명 정도 되면 큰 규모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한 번의 모임의 정원이 12명일 때 1~3명만 새로 오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고정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3년 동안 참여해도 40명 정도 밖에 못 만난다. 몇 명이 한 동안

19) 코로나19 때문에 프리책 모임이 2달 중단하다가 2020년 5월에 재개하였다. 5월~7월에 모임 중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은 1~2명밖에 없다. 지수는 다른 운영진들과 상의하고 나서 7월 3일에 “토론 모임 중에 마스크 착용 부탁드립니다”라는 공지사항을 올렸다. 참고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2020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참여하다가 사라지고 새로운 사람이 그 자리를 채우는 과정을 반복한다. 그래서 오히려 소규모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다. 이런 크기를 구분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인터넷 정보 시대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프리책은 소모임 앱을 통해서 구성원을 모집하고 활동 정보를 알리고 소통한다. 소모임 앱이 없으면 프리책 모임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소모임 앱은 프리책 독서모임에서 그 만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나무위키에 따르면 소모임은 “오프라인 동호회 앱서비스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소모임 앱은 핸드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등록 과정은 간편하다.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자신의 취미, 주소 등 사항을 설치하고 나면 사용을 바로 시작할 수 있다. 소모임에서 관심 있는 모임을 검색해 볼 수도 있고 모임을 직접 만들 수도 있다. 다음은 나의 경험을 토대로 프리책에 가입하는 과정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다.

처음에 독서모임에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찾을 수 있는지 몰라서 고민이 많았다. 그래서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하소연하였다. 어느 날 아침에 같이 수업을 듣던 주양이 소모임 앱을 추천해 주었다. 그래서 이 앱을 다운 받아 안내를 따라서 등록하였다. 이후 사용 방법을 모색하고 나서 마음에 드는 독서모임을 찾기 시작하였다. 검색창에 “독서모임”을 입력하니 독서모임들이 많이 나왔다. 종류가 많아서 나에게 맞는 모임을 찾으려면 여러 번 읽고 골라야 한다. 그래서 나는 배제법을 택하기로 하였다.

‘오락성이 강한 것, 연령 제한에 맞지 않은 것,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교통이 불편한 것, 시간에 맞지 않은 것, 소개 글에 공격성이나 배타성이 있는 것, 가입 후에 카톡으로 별도로 활동을 신청해야 되는 것, 자기소개를 하루 안에 작성하지 않으면 강퇴 시키는 것’과 같은 특징을 가진 독서모임은 모두 배제하였다. 이렇게 긴 시간의 선택 과정을 거쳤다. 프리책을 보게 되었는데 먼저 첫 페이지에 실린 철학자의 그림에 끌렸다. 그러고 나서 소개글을 봤더니 “진지함” “재미” “깊이”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띄었다. 이곳은 나이, 직장 제한이 없으며 비용도 장소 사용료 6,000원[20] 밖에 안 되었다. 또한 시간도 맞아서 이곳을 선택하였다.

나에게 맞는 독서모임을 찾을 수 있는 게 기뻤지만 우려도 많이 되었다. 나는 외국 사람인데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독서모임은 처음 참여하는 것인데 내가 토론의 분위기를 방해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우려들은 프리책에 참여하면서 점점 해소되었다. 2018년 3월 16일 금요일에 처음 참여하였다. 당시의 지정도서는 프랑스 작가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이었다.

4) 독서토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구성원들의 지지, 장소 선정, 플랫폼 설계의 모든 것들은 최종적으로 독서토론을 위한 기초 작업이다. 독서모임의 핵심은 독서토론에 있다. 가입 인사에도 “사람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나누고 싶어서” 라는 가입사유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독서토론의 구체적인 진행과정은 3장 3절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여기서는 우선 프리책 독서토론의 틀만 기술하도록 하겠다.

프리책은 2020년 이전에는 지정도서, 자유도서와 주제발표가 있었다. 지정도서는 다시 문학도서와 비문학도서로 나뉜다. 지정도서를 예로 들면 모임이 19:30에 시작하여 22:30에 끝난다. 정원은 10~12명이고 참석자들은 도착 후 각자 원하는 자리에 앉으면 된다. 사회자는 다 왔는지 확인하고 도착하지 않은 사람에게 소모임 채팅방을 통해서 연락한다. 보통 19:40쯤에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한다.

먼저 사회자가 참석자에게 독서토론 프로세스를 소개한다. 이 프로세스는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부분은 각자 앉은 순서대로 자기소개, 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감, 함께 토론하고 싶은 주제를 말한다. 두 번째 부분은 소모임 게시판에 올리는 발제를 중심으로 토론하는데 토론과정에

20) 그때 브라더카페 장소사용료를 내면 음료수를 시키지 않아도 된다. 나중에 장소사용료를 낮추고 음료수는 필수로 바꿨다.

예상치 않는 다양한 토론거리가 나오기도 한다. 마지막 부분은 각자 하고 싶은 말을 할 기회를 갖고 전체 토론에 대한 느낌을 말한다. 혹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거나 인상 깊은 구절을 공유하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프로세스를 완전히 지키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사람이 없는 경우 자기소개를 생략하며, 미리 올라 온 발제라고 해도 반드시 다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

<사진1> 독서토론 장면

<사진2> 독서토론 장면

5) 뒷풀이

22:30쯤에 독서토론이 끝난 후 계속 이야기를 나눌 사람은 뒷풀이에 참여하면 되는데 보통 근처에 있는 식당이나 술집에 가서 모인다. 음식이나 술을 주문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은 음료수로 대체하기도 한다. 독서토론의 분위기보다는 오락성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화제의 범위도 넓다. 뒷풀이 참가 인원은 보통 4~10명 정도다. 22:40쯤에 시작하고 24:00~1:00쯤에 끝난다. 일이 있거나 일찍 가고 싶으면 먼저 떠나기도 한다.

결제는 더치페이로 한다. 결제하는 사람은 정산을 해서 소모임 채팅방이나 게시판에 올린다. 다른 사람은 그 정산을 확인한 다음에 그 사람한테 이체한다. 혹은 결제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정산을 하고 사람들이 바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 먼저 떠나는 사람이 있으면 보통 게시판이나 채팅방으로 알리는 것이 아니라 소모임 앱의 귓속말 기능을 통해서 알려준다.

<사진3> 뒷풀이

2020년부터 프리책 모임시간은 19:30~22:30에서 20분을 미루고 19:50~22:50로 바꾸게 되었다. 모임이 끝나는 시간이 늦어져 뒷풀이도 없어졌다. 다만 계속 모이고 싶은 사람들끼리 따로 모이기도 한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많지 않다.

6) 규칙

햄은 독서모임뿐이 아니라 한국 모임의 특징은 뭔가 규칙을 만들고 자꾸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하였다. 인터뷰에서 햄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뭐 안 된다. 뭐하면 강퇴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이런 식의 제한들이 좀 있거든요. 저도 싫어해요. 그런 규칙, 규정은. 그래서 애초부터 제가 모임장이 되면 이런 걸 다 없애고 싶어 했던 욕심을 갖고 만들었어요.

이처럼 규칙과 제한이 적다는 것은 프리책이 여타 독서모임과의 다른 점이다. 또 친목 활동은 적으며 책에 집중하려고 하는 편이다. 햄은 한국 모임들이 통제하려는 경향성을 거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들을 없앴다. 햄은 그것을 3무 정책이라고 불렀다. 이후 햄은 3무가 있어서 3유도 있어야 할 것 같은 압박이 들어서 3유정책도 만들었다. 이것들을 햄은 프리책이 성립한 이틀 후인 2017년 8월 13일에 게시판에 올렸다.

상대방이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면 구성원들은 보통 직장, 나이, 학교 출신 등 사적 사항들을 서로 물어보지 않는다. 이것은 한국에서 어려운 일이다. 상대방의 나이를 모르면 어떻게 호칭해야 할지 모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반말을 사용할지 존댓말을 사용할지도 문제이다. 하지만 이것은 프리책에서 문제되는 일은 아니다. 프리책에는 상호존대라는 규칙이 있어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다. 나이와 상관없고 모두 “뭐뭐님”이라고 부른다.

<표 5> 프리책 3무·3유 정책

3무 정책	3유 정책
1. 연령, 직업 등 어떠한 형태의 가입제한 조건도 없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경계없는 소통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1. 재미있는 모임을 추구하겠습니다. 역시 인생은 재미죠. 유쾌하고 부담 없는 모임이 되었으면 합니다.
2. 자소서 작성 요구 등, 어떠한 형태의 불필요한 강요도 없습니다. 본인의 자발적 의사를 기반으로 하겠습니다.	2. 깊이 있는 모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초적인 재미보다는 깊이 있는 재미가 진정한 재미겠지요. 격의 없지만 진지한 토론 자세를 보여주세요.
3. 임의적인 강퇴도 없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필요성을 공감하지 않는, 운영진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강퇴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3. 상호 존중하는 마음도 있었으면 합니다. 모임 중엔, 타인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시고 가르치려 하거나 논쟁으로 이끌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우리 모임은 서로의 다름을 확인하는 것에 진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존칭 사용은 기본입니다.

프리책이 운영되면서 실제 상황을 따라서 필요한 다른 규칙을 만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말없이 참석을 취소하거나 완독하지 않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2019년 5월 27일에 햄은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다음 두 가지 규칙을 추가하였다. “1. 불참 시에는 미리 알려 주세요. 2. 기본적으로 완독을 목표로 해주세요.”이다. 아울러 토론 중에 상호 존중해야 한다는 점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2. 연구참여자 이야기

독서모임은 보통 사람들이 모여서 독서토론을 하는 활동을 일컫는다. “사람”과 “독서토론”은 독서모임의 중요한 주체이다. 이번 절에서는 독서모임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프리책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많기 때문에 연구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모임장이 왜 독서모임을 만들었는지, 사람들이 독서모임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지, 독서모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독서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세히 알아보았다.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 고유의 사례성을 담고 있다. 만약에 내가 아닌 다른 연구자가 프리책을 연구하는 것이면 완전히 다른 연구가 될 수 있다.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사이의 이런 상호작용적인 관계를 환원하기 위해서 이 부분의 진술은 연구자 “나”의 시각으로 전개하였다.

1) 햄: “소위 이제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순간이 오는데”

첫 참석의 지정도서는 프랑스 작가 알베르 카뮈의 소설 <이방인>이었고 진행자는 프리책의 모임장인 햄이었다. 한국말도 서투르고 사교성도 없어서 많이 걱정되었을 때 햄은 진행 중간에 “다음에 또 오세요.”라고 했고 끝날 때도 “다음에 또 오세요.”라고 진지하게 말해 주어 불안이 많이 해소되었다. 또한 “다른 사람이나 집단처럼 말의 다과(多寡)로 나를 판단하지 않구나.”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계속 참여하겠다는 용기도 생겼다. 주요 사회자인 햄과 유경은 지금도 신입자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한다. 신입자뿐만 아니라 한 동안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 구성원한테도 “자주 오세요.”라는 말을 많이 한다.

중간 쉬는 시간에 햄은 나한테 나이를 물어 봤다. 굳이 말하고 싶지는 않았지만[21] “90년생, 28살이에요”라고 대답하였다. 나도 햄의 나이가 궁금했지만 결국 물어보지 못했고 추측만 하였다. 그 다음에 나에게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를 물어봤다. 이 질문은 나한테 어려운 질문이다. 학

21) 정확히 말하면 싫은지 좋은지 나 본인도 모른다. 중국 전통문화가 사람에게 나이를 물어보는 것이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나 영어를 배우면서 서양에서 남의 나이를 물어보는 것이 실례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통문화와 서양문화 사이에서 방황한 사람들이 많다. 이런 상황에 중국 도시에 특히 대도시에 젊은 여성에게 나이를 물어보지 않는 문화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 그러나 나는 나이를 알려주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잘 몰라서 나에게 나이를 물어보면 숨기지 않지만 상대방이 개의할까봐 보통 남에게 나이를 물어보지 않는다. 프리책에서 사람들이 보통 사람의 나이, 직업, 학교를 물어보지 않는다. 아마 독서모임에서 외국인을 자주 만날 수 없어서 햄은 나의 나타남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 같다.

교 이름을 말하는 순간 괜히 똑똑해 보여줘야 하는, 학교 명예를 지켜야 하는 의무감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답하지 않는 것은 이상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도 싫었다. 그래서 다소 부자연스럽게 학교 이름을 알려줬다. 하지만 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들이지만 햄에게 친근감이 들기도 하였다. 상대방이 이렇게 하면 나도 상대방의 "공간"에 "침입"할 권리가 생기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햄과 이야기할 때 경계심을 많이 푸는 것 같다.

뒷풀이 자리에서 몇 명이 "채화님은 한국말을 한국 사람처럼 잘하시네요."라고 칭찬해줬을 때 나는 얼굴이 빨개졌고 "아니에요. 아니에요"라고 빨리 부정하였다. 그래도 다들 계속 칭찬해 줬다. 햄은 이때 갑자기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느리게 말하는 한국 사람이 어디 있어요?"라고 말하였다. 공기가 약간 굳어졌다. 내가 "상처받지 않을까"라는 걱정하는 눈길도 있었지만 나는 이 말을 듣고 해방되는 느낌이 들었다. 나한테 실력이 감당할 수 없는 칭찬을 듣는 게 위로가 아니고 형벌이다.

첫 참석을 한 다음 주에 햄과 순영은 결혼식을 치렀다. 둘이 2016년에 독서모임에서 만나게 되었고 연애를 시작하였다. 부부인데 독서모임에서 서로를 "햄님", "순영님"이라고 칭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고 상대방이 프리책을 위해 어떤 일을 하면 당연시하지 않고 감사하거나 칭찬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이것이 독서모임에서 만나기 때문에 독서모임의 관습을 유지해서 그런지 독특하고도 좋아 보였다. 지금까지 프리책에서 생긴 커플은 적어도 세 커플이 있다. 다른 한 커플이 결혼했을 때 햄이 그 결혼식에서 사회자 역할도 하였다.

햄은 리더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같아 보였다. 프리책 사람들이 가끔 주말에 따로 만나서 보드게임을 할 때 "리더"를 해야 하는 역할이 나오면 햄은 손들고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라고 하면서 그 역할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서 다들 난처해할까봐 스스로 그 역할을 자진했을 가능성도 있다. 또 어떤 일이 의견이 많고 설왕설래하면서 결정을 못하면 햄은 나와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햄은 모임장으로서 여러 가지 면에서 프리책의

정체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프리책을 만든 동기에 대해 햄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 30대가 넘어 직장을 갖고 삶이 안정되고 난 이후, 교육과 취업 등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했던 시기에 대한 반작용인지 몰라도 목표를 잃은 느낌.. 허무함과 상실감이 생겨나던 무렵이었다. 여러 고민 끝에 결국 인간의 행복은 사람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람을 만나는 활동을 하고자 동호회를 찾게 되었으나 이내 무의미한 겉치레식의 얕은 친목 도모에 슬슬 회의가 들기 시작하던 무렵 독서토론 동호회를 만나게 되었다. '논과 노'라는 독서모임을 그렇게 알게 되었고, 평소 하기 힘든 깊이 있는 소통이나 지식의 교류가 너무 흥미롭고 재미를 느끼게 되었다. 독서모임이 나에게 주는 만족과 재미를 깨닫게 되었고, 그 이후 내가 정말 좋아하는 활동인 독서토론을 직접 만들어 보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게 되었다. 재미있으면서도 수준 높은 토론을 하고 서로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순간을 저해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최소화할 자신이 있었고 너무 딱딱하지도 않으면서 충분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메일쓰기모임을 만들고 싶어 프리책을 만들게 되었다.

2014년쯤에 햄은 <논과 노> 독서모임에 참여하기 전에 다른 모임을 몇 군데를 다녀본 적이 있지만 길게 하지는 못하였다고 한다. "우리 모임처럼 뭔가 밀도 깊은 토론을 하고 재미있게 진행해 나가는 모임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 그 원인이었다. 이후 프리책은 <논과 노>에서 독립해 나왔지만 햄은 두 모임을 동일시하는 진술을 많이 하였다. "우리 모임"이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되었느냐의 질문에도 <논과 노>의 시간을 합쳐 말하였다.

나한테는 프리책이 "우리 모임"이지만 햄한테는 "우리 모임"의 범위가 따로 있는 것이다. 햄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거의 인원들 구성원들이 같이 하다가 이제 옮겨왔던 것이다. 예전에 했던 모임은 프리책하고 연결된다고 보면 된다."라고 하였다. 이는 프리책의 정체성을 대표할 수 있는 성격, 참여 동기, 토론 방식 등 서로 다른 연구참여자를 랜덤으로 5명

을 골랐는데 5명이 모두 <논과 노>에서 옮겨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프리책이 <논과 노>의 연속선상에 있지만 연구가 산만해질까봐 본 연구는 <논과 노>에 크게 주의하지 않았고 프리책에 집중하였다. 프리책 체제에 대한 설계를 할 때 햄은 이전의 모임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마음에 안 드는 점을 없애 가며 체계화하였다.

햄은 지금 이 시대가 진지함이 다소 배격된 시대라고 말하였다. 이와 비슷한 말을 프리책의 다른 구성원한테서도 들어볼 수 있었다.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직장 동료한테도 못하고 가족한테도 못하고 이야기할 사람을 찾기 힘들다고 하였다. 그러나 프리책에서는 유대인이든, 원소의 기원이든, 석유든 간에 일상생활에서 나누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은 환영받는 일이다. 그래서인지 프리책에서 모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서로를 잘 이해하는 것 같다. 그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보이느냐고 햄한테 물어 보니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약간은 폐쇄성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약간 자기만의 세계가 확실한 사람들이나 사회성이 약간 부족한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관계적인 면에서 약간 닫혀있거나 좀 조심스럽게 접근한 사람들이 좀 많죠. 자아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요. 내적으로 단단해지려고 내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 많다 보니깐 어떻게 보면 정신세계가 좀 아무래도 좀 더 넓은 거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정신적인 생각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독서모임 하다 보면은. 그래서 약간 연약한 사람도 많고 강인해 보이는 연약한 사람. 연약해 보이는데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많죠.

이것이 햄이 독서모임을 오래 이끈 경험으로 내린 판단이었다. 나만 보고 내리는 말도 아니고 긍정적인 평가라고 하기에도 어렵지만 나는 매우 감동받았다. 칭찬과 높은 평가보다는 정확한 평가를 주는 게 나에게 더 소중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내가 상처받을까봐 칭찬만 해 주고 어떤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도 독한 말만 하였다. 햄은 사교적인 사람이고 뒷면의 정서에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아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의외

로 느껴지기도 하였다. 사실 의외라기보다는 내가 햄의 호기로운 면에만 주의를 기울인 탓도 있다. 햄의 섬세한 면을 그 전에도 드러낸 적이 있다.

프리책 모임에는 신청해 놓고 모임 당일에 취소하는 사람이 많았다. 나도 2020년 2월에 중국에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할 때 한 번 취소하였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모임에 늦었을 때 다른 사람이 당연히 내가 또 취소할 거라고 추측하였다. 그런데 햄은 “취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라고 말하였다. 짧은 말이지만 감동을 많이 받았다. 나를 믿어줘서, 좋게 봐줘서가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것 같아 감동받은 것이다. 남의 평가를 통해서 자신을 알아보는 것도 어렵지만 남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것도 힘들다. 같은 모임에서 같은 시간을 같이 지내고 다른 추측을 내리는 것은 수집한 데이터의 질과 양이 달라서 그렇다고 본다. 즉, 다른 사람이 내가 취소한 행동을 보고 결론을 내리는 거라면 햄은 그 행동 이외에 취소한 원인, 이 사람의 성격도 같이 분석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햄이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은 질적 연구와 비슷하다.

햄의 섬세하고 진지한 면은 게시판에 올리는 글에서도 많이 나타난다. 게시판은 토론 현장 시간 이외에 구성원들이 교류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모임장이나 운영진만 글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구성원이 글을 남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글을 남기면 “소모임”앱 시스템에서 등급을 올려준다. 글을 올리게 되면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눌러서 서로 교류한다.

햄이 게시판에 올리는 글은 “공지사항”, “자유 글”, “정모후기”의 세 가지로 나뉜다. 2021년 1월까지 “공지사항”은 총 102편이 있었는데 이에는 운영 방식, 발제, 모임 안내, 모임 일정, 송년 모임 공지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한다. “자유 글”은 24편이 있는데 특별한 주제와 목적 없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나누는 수필 같은 것이다. “정모후기”는 1편만 있다. 그러나 공지사항이든 자유 글이든 정모후기든 모두 햄의 개인 생각이 많이 담겨 있다. 다음은 대표성이 있는 두 단락을 인용해서

보여주도록 하겠다.

> 서은국 교수도 '행복의 기원'에서 이야기했죠. 행복은 '좋은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라구요. 그만큼 행복은 인간관계를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대단히 단순하죠. 그런데 왜 그리 관계 맺는 것은 어려울까요. 아니, 왜 그리 어렵게 되었을까요. 9월 29일 금요일,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함께 하실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진정한 자신이 아님, 상대방이 원하는 자신을 연출하여 최대한 원만한 관계, 사회가 제공하는 특정한 '룸', 본모습을 숨긴 채, 어떤 가장된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바로 '나'의 모습, 인간관계의 헛헛함, '티슈 인맥', 현대인들은 자꾸 인간관계를 가볍고 얕게 가져가려고 하고, 가벼운 관계의 형성, 서은국 교수 행복의 기원 좋은 사람과 음식을 먹는 것, 인간관계를 맺는 것의 어려움, 찌질했던 과거의 관계들이 그리워진다.

> 좋은 기사가 있어서 공유합니다. <총균쇠>를 읽으면서, 또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면서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오게 된 것이 쉽게 말하면 모두 사소한 차이로 빚어진 우연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학의 조류 또한 우주를 관통하는 자연법칙은 없었다.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는 게 맞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양자역학이 대세인 듯 하구요. 어찌됐든 좋습니다. 어차피 저런 거대 담론에 제 의견을 덧붙이기는 생활인으로서는 불가능하니까요. 다만 우리 인간이 다만 무심히 흘러가는 자연과 역사에 사력을 다해서 의미를 덧붙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에 다소 허무하기도 하고 뭔가 깨달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렇네요.

햄이 작성한 127편 글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들이 많았다. 게시판 글을 보기 전에는 햄에게 이런 면이 있는 줄 몰랐다. 햄이 작성하는 글에 프리책 지정도서에서 선정하는 대부분 베스트셀러보다 진심과 진지함을 더 많이 느낀다. 햄 글의 말투는 어떤 대상에게 쓰는 것 같지만 자신의 생각을 해부하면서 혼잣말을 하는 느낌이 더 강하다. 그의 결론에는 납득할 순 없어도 그가 진행했던 치열한 사유 여정에는 많은 공감이 갔다.

베스트셀러의 책들에는 이런 것이 많이 느껴지지 않는다. 부딪히는 흔적이나 생각의 과정이 안 보이고 결론도 다들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다. 책 제목은 멋있지만 뻔한 말, 예쁜 말로 가득하여 읽고 나서 시간만 낭비되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나는 햄한테 베스트셀러 책은 깊이가 없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봤다. 햄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정도는."이라고 말하였다. 그 다음에 나는 "진지한 거 추구하면서도 가벼운 책을 선택하는 것은 좀 충돌하지 않아요?"라는 질문도 물어봤다. 햄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그죠. 한계가 있는 거 같아요. 그니까 <총균쇠> 정도 한다고 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 했고 좀 부담스러워 했거든요. 진지한 모임을 하고 싶으면 진짜 매니아한 모임을 만들어야죠. 책 너무 좋아하고 진짜 이 책 꼭 읽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 한 열 명 스물 명 정도 고정 멤버를 해가지고 들입다 읽고 막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되면 그거도 피곤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캐쥬얼함과 지식 교류를 같이 가져가려다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고전을 매번 다루지 못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고전도 좀 다루고 가벼운 책도 좀 다루고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는 역할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아마. 그렇게 하는 거 같아요.

햄은 모임장으로서 운영상의 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너무 어려우면 다들 부담스러울까봐 못하고 너무 가벼우면 깊이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 프리책이 오래 유지하거나 크게 하려면 도서선정의 딜레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 사실 모임 현장에서 책에 만족하지 않아도 말하기가 어렵다. 진행자가 심혈을 기울이고 고른 책인데 아무 것도 안 하고 책만 읽어 오면 되는 구성원으로서 뭐라 하기가 미안한 것이다. 햄이 호방한 사람이라서 책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죄책감을 느낀다.

햄과 인터뷰를 했을 때 햄은 "저 진~짜 유연해지거든요."라고 말하였다. "저 나무가 푸른색이라고 나는 생각하죠 당연히. 푸른색이니까. 근데

누군가가 와서 자꾸 노란색이래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좀 많은 거야.” 햄을 알게 된 지 5, 6년이 된 유경과 순영도 햄이 많이 변하였다고 말하였다. 나도 그런 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모임에서 햄은 동의하지 않으면서 반박하려는 심정을 억제하는 답답함도 많이 느낄 수 있었다. 어떤 부분에 햄 같으면 반박할 것 같은데 반박 아니고 침묵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유연해지는 동시에 타협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였다.

햄은 호방하면서도 섬세하고 외향적이면서도 내향적인 사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햄을 알면 알수록 오히려 더 모르는 것 같다. 그런데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햄은 프리책의 중심이고 프리책의 정체성에게 영향을 많이 주었다는 사실이다. 햄 덕분에 프리책에서 어색함과 긴장감을 많이 해소한 구성원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유경이 농담으로 “햄님은 지금 우리 모임에서 제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부족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유경이 보는 것처럼 햄은 프리책의 많은 사람한테서 사랑을 받고 있다. 나 역시 그 중의 한 명인데, 그 이유는 햄이 때론 인간관계의 리스크를 무릅쓰고 주동적으로 타인에게 사랑과 이해를 주고자 노력하기 때문이다.

2) 유경: “그냥 무작정 좋아서”

유경은 프리책의 운영진이자 사회자 역할도 맡고 있다. 유경에 대한 첫인상은 엄숙하고 위엄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유경한테 친근감을 느낀 것은 2019년 11월의 모임이 끝나고 같이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갈 때였다. 그때 나는 1년 동안 프리책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였다[22]. 그 날 우리 사이에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도 유경이 거리를 두지 않는다는 걸

22) 한 학기는 휴대폰이 물에 잠겨서 고장이 나고 나는 현대사회에 사람은 휴대폰이 없으면 어떻게 사는지를 실험하려고 한 학기 동안 휴대폰을 쓰지 않았다. 프리책 활동을 휴대폰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다. 한 학기는 허리가 아파서 앉아있는 것이 힘들어서 가지 못하였다.

느꼈다. 대화도 예전처럼 예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었다. 심지어 말을 안 해도 분위기가 어색하지 않았다. 이때부터 나는 유경의 부드러운 면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유경은 프리책에서 처음엔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유지하였다고 하였다. 아래는 유경의 말이다.

> 프리책 분들은 그 부분[23]이 좀 약하기도 했고 왠지 다 전문적인 느낌이 들어서 그런가? 다들 좀 뭐랄까 보통 사람 같지 않고 다들 잘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느낌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를 좀 유지했었어요 저는. 다가가지 않았었고. 그런데 요새 좋아졌어요. 한 작년부터? 작년부터 좀 마음을 열기 시작했던 것 같고 그 전에는 되게 좋지만 모임이 끝나면 그냥 끝. 약간 그 느낌 했었는데 저한테 되게 의미가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리책이 저의 어떤 일상생활에 영향을 되게 많이 주기는 해요. 많이 주고 사람들 그 영향도 좋은데 그게 아마 작년부터였던 것 같고 초반에는 왠지 잘난 사람들 틈에 껴있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저는. 약간. 명확되지 못하는 느낌. 지금은 저한테 되게 의미가 있죠. 그게 작년부터였던 것 같아요.

유경과 나는 여러 면에서 서로 다르다. 나는 시간을 지키려고 길에서 급하게 달리는 경우가 많다. 약속한 시간 이전에 도착하는 경우도 많지만 몇 분정도 늦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런데 유경이 무슨 일을 서두르게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지각하지도 않고 취소한 적도 없다. 옷차림과 머리카락이 늘 깔끔하고 일사불란하다. 기억력이 뛰어나고 한 사람이 책 제목을 기억해 내지 못하면 힌트를 아주 조금 제공해도 바로 그 책의 제목과 저자를 알아맞힐 수 있다. 완독은 물론이고 지정도서를 몇 개월 전부터 책을 많이 읽고 그 중에서 자세히 고른다.

논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유경과 인터뷰를 하였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해야 되었는데 유경은 미리 영상통화가 잘 되는지 친구와 테스트해 보고 나랑 인터뷰를 하였다. 인터뷰를 했을 때 내가 화제를 이탈

23) 유경이 말하는 “그 부분”은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다는 것이다.

하면 유경이 나를 궤도로 잡아당겨 주었다. 준비가 충분해서 그런지 유경이 있으면 돌발 상황은 별로 없고 마음이 든든하였다. 유경은 자기가 독서모임에 사회자로는 뛰어난다고 생각하다고 말하였다. 나는 이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 유경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도 명확하고 대화를 나누면 바로 알 수 있다. 의외인 점은 유경이 게임도 좋아하고 잘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책을 좋아하면서 게임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없지는 않다. 그런데 유경의 설명을 듣고 “참 유경님답다”라고 이해하게 됐다.

> 제가 신콘이에요. 신콘이 뭐냐면 신의 콘트롤(하하하) 가지고, 제가 게임 어떤 게임 있는데, 그 게임이 모든 캐릭터가 다 만렙이에요. 지금은 게임을 접었는데 한창 게임에 빠졌을 때는 저는 책도 그런데 어디에 빠지면 되게 끝까지 가는 편(ㅋㅋㅋㅋㅋㅋ). 전 게임을 할 때 밤에 잠을 안 잤어요. 그리고 그게 좀 약간 싸우는 게임이라 내가 질 수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는 거를 또 힘들어하는 편이라 나랑 나를 나랑 해서 내가 진 사람을 전 찾아다녀요(ㅋㅋㅋ) 그 사람 이겨야 돼. 게임 저는 게임 잘해요. 게임도 잘하고 그런데 게임에 너무 빠져가고 이제 끊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빠지니까 책을 등한시하게 되더라고요.

책 읽기와 게임 외에도 유경은 영화, 산책, 주식 등 여러 가지 취미를 가지고 있다. 나는 영화를 볼 때 휴대폰으로 보고 끝내는데 유경은 극장에 가서 영화를 관람하고 원작까지도 찾아내서 대조하면서 본다. 나는 뭘 얻으려고 좋은 책만 읽고 싶은데 유경은 문학을 이유 없이 마냥 좋아한다. 유경은 이에 대해 “문학을 좋아하고 저는 책에 대한 편식은 없어서 문학을 10권을 읽으면 비문학도 10권 읽어요. 왜냐하면 문학에만 너무 치중하면 너무 그게 한쪽으로만 제가 쏠릴까봐 비문학도 굉장히 열심히 읽는데 문학을 더 좋아하는 것뿐이에요.”라고 하였다.

또 어떻게 해야 이렇게 많은 일들을 여유롭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궁금하다고 했더니 유경은 “저는 시간을 쪼개서 생활해요. 중학교 때부터

4시간 이상 잠을 잔 적이 없어요.”라고 말하였다. 잠을 자면은 그만큼 못하는 게 많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다른 분들은 집에서 쉬잖아요. 저는 집에서 아무거도 안 하고 있는 거 잘 못해요. 그게 남자친구랑도 다른데 남자친구도 멍 때리고 있는 시간이 되게 많대요.” 유경은 멍 때린다는 것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

> 그냥 생각하는 거겠지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생각도 안 하고 아무거도 안 하고 저 명상도 하거든요. 그럼 명상하는 거야 내가 그랬거든요. 명상이 아니고 그냥 아무거도 안 하고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좀. 제가 시간을 쪼개서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멍 때리는 시간은 그냥 버리는 거 아니야. 그거는 또 아니라고. 멍 때리는 시간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집에서 멍 때린대 저는 딱 집에 가면은 강아지랑 뭐 해줘야 되고 산책 가야 되고 가다오면 씻겨야 되고 그 다음에 나 씻고 방 좀 정리하면 바로 책 읽고 자기 전에 내가 좋아하는 뭐 음악을 듣는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뭐 하고 그리고 다시 산책을 갔다 와서(ㅋㅋ) 그러고 나서 그리고 저는 뭐지 한 두시 전에는 안 자요. 그 자는 시간이 모르겠어요, 많이 자면은 저는 좀 죄책감 같은 게 조금 있어요. 그래가고 잘 안 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자꾸 남자친구랑 뭐 했어 그럼 멍 때렸대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누나는 멍 때릴 필요가 있어.”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책은 그냥 늘 읽는 것 같아요. 늘.

유경과 달리 나는 멍 때리는 것을 자주 한다. 해야 할 일이 많아도 일단 멍 때리고 나서 한다. 유경이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은 일을 빨리 처리하거나 잠을 잘 시간을 줄이는 거라면 내가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은 일을 줄이는 것이다. 물질적인 요구가 굶어 죽지 않으면 된다는 선에 맞추고 집-연구실/도서관-식당 네 군데만 돌아다닌다. 그래서 멍 때려도 책 읽을 시간과 생각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사실 멍 때리는 것이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멍 때릴 때 평소에 상관없는 것처럼 보

이는 책들의 내용이 갑자기 떠오르는 경험도 가끔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그것이다[24]. 내가 <국부론>을 읽게 된 이유는 프리책과 관련이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진행자 햄과 유경이랑 상관이 있다.

2018년 4월의 <대한민국 치킨전> 지정도서 모임에서 유경은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되냐고 나한테 물어봤다. 나는 경제와 정치에 대해 잘 모르지만 계획경제 때문에 중국의 발전이 뒤처진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래서 "정부가 나와서 경제 행위를 간섭하는 것이 필요없다."고 말하였다. 유경이 반박하지는 않았지만 "뭐야" 하는 듯한 표정을 스쳐갔고 다음 사람으로 넘어갔다. 이후 2018년 6월에 햄이 진행하는 <기본 소득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지정도서 모임이 있었다.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햄은 나의 관점이 어떠한지 기대하는 것 같았다. 나는 여전히 입소문으로 들은 시장자유경제에 근거해서 정부가 돈을 나눠주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렇게 주장은 했지만 왜 필요 없고 소용없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었다.

이후 한동안 많이 부끄러워서 답을 찾기 위해 <국부론>과 <자본론>을 읽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독서모임의 영향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과 시간에서만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모임이 끝나도 그 영향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하고 있다. 유경한테서도 그런 영향을 발견할 수 있다.

> 저는 이제 버릇이 모임이 끝나면 프리책에서도 얘길 되게 많이 했지만 모임이 끝나면 집에 가는 시간이 전 길잖아요. 1시간 반이니까 복기를 하는 버릇이 있어요. 다시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누구누구가 왔었지 모임에? 누구누구가 어떤 이야기를

24) 유발 하라리가 책에서 역사연구 영역에 성행하는 역사필연론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특히 "보이지 않은 손"이론이 사실 역사필연론의 경향이었다. 더 나아가면은 우리 현대사회에 신봉하는 <국부론>에서 발전해온 시장자유경제도 역사필연론을 기초로 제기하는 것이다. 시장자유경제가 자유 경쟁의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인간의 능동성을 부정하는 역설이 나타난다. 특히 중요한 역사 사건에 관해서. 그러나 자유경제이론의 결점을 말하는 것이 계획경제가 좋다는 뜻은 아니다.

> 했지? 그리고 나랑 의견이 달랐던 사람은 왜 그 이야기를 했지?" 라는 생각을 저는 1시간 반 정도 하고 그래도 그게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으면 제가 산책을 자주하는 편이라 산책을 하면서도 생각을 해요. 그니까 저는 그 프리책이 이제 11시 끝나잖아요. 11시 끝나면 잠든 때까지 저희 토론에 있었던 일들을 좀 생각하고 자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아쉬움이 많아요. 내가 사회자로서 좀 못할 때가 많아서 그래서 예를 들면 "채화님 이런 얘길 했는데 왜 이 이야기를 더 하게 못했지? 왜 중간에 이야기를 제가 끊었지?"라는 생각 같은 거들 그리고 어떤 분이 이야기한 건 "왜 그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생각들 그리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이야기들도 사실 있어요. 그러면 왜 그게 기분 나쁜지도 생각해요.

모임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것은 독서모임의 매력이지만 참석자들이 힘들어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의견이 서로 다르면 새로운 시각을 접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생각이 풍부해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독서모임의 이상적인 모습이다. 실제로도 이런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래서인지 생각이 서로 달라서 답답하고 상처를 받거나 화가 난 상황을 간과하기가 쉽다. 나도 어떤 생각이 새롭거나 멋지다고 느낄 때가 있고 어떤 생각이 답답하거나 지루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었다. 답답함은 멋진 생각에 얻은 즐거움보다 마음속에서 더 오래 머무른다. 유경도 모임에서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다. 유경이 "대부분 생각하면 문제는 나인 것 같아요."라고 하였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근데 대부분 생각하면은 문제는 나인 것 같아요. 의견이 달라서 기분이 나빴던 게 아니고 그 의견하고 상관없이 그 사람의 태도나 그 사람의 말투가 기분 나빴던 거 같아요. 그 의견이 아니고 근데 그거를 제가 겉으로 티내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못 참는 거죠. 그거 성숙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프리책이 끝나고 나면은 복기하면서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반성을 하는데 안 돼요. 똑같아지긴 해요. 그래서 겉으로는 싸움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치

> 열하게 토론을 해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끊도록 노력을 했는데 속으로는 그게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분야도 있어요. 특정 분야가. 다른 거는 다 수긍이 되는데 어떤 게 수긍이 안 되냐면 저는 남녀문제, 페미니즘문제가 좀 수긍이 많이 안 됐었어요.

유경은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것을 좋아하였는데 그 때 읽을 것은 <잠자는 숲속의 공주> <신데렐라> <백설공주> <콩쥐팥쥐> 등 전래동화가 많았다. 어렸을 때였는데도 왜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도와주는 것도 왕자고, 백설공주를 도와주는 것도 왕자고, 신데렐라를 도와주는 것도 왕자고, 콩쥐 팥쥐도 원님이 도와주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한다. "'왜 다 공주들은 왕자님이 도와줄 때 동안 기다리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도 그러면서 처음에는 되게 재미있게 읽다가 어느 순간에 공주들은 되게 능력이 없나? 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경과 언니는 집에서 남동생과 다른 대우를 받아본 적도 있다고 하였다.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책 제목을 보면 "참 자극적이네"라는 감탄을 하기도 한다.[25] 유경의 말대로 "양쪽에서 다 욕을 먹고 있거든요. 페미니즘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나한테 너무 강하다고 하고 페미니스트들은 나한테 너무 약하다고 하고..." 이런 이야기들에서 유경이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일시에 흥이 나는 것이 아니라고 느낄 수 있다.

> 예를 들면 페미니즘 관련 책을 했을 때 그거를 단순히 여자들이 그냥 불평 불만하는 걸로 치고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화가 났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이거를 내가 화가 난다, 그래서 계속 그 페미니즘 이야기만 하면 듣는 분들도 불편하실 거고, 이게 싸움이 될 수 있으니까 중간에 적당히 끊어야 되는데 사실은 막 얘길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82년 김지영> 때도 되게 치열했는데 어떤 분이 여자들은 뭐 자꾸 말썽 부리고 일을 못해서 자기네 회사는 여자 안 뽑는다는 자기 밑의 직원으로 여자 안 뽑는다는 거

25) 유경이 책 제목이 자극적이지만 내용은 좋다고 생각한다. 이 책을 통해서 "아프리카든 한국이든 유럽이든 중국이든 여성의 삶이라는 거는 정도의 차이일뿐이고 다르지 않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였다.

예요.

<82년 김지영>을 지정도서로 모임을 했을 때 나는 아직 프리책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유경이 그런 기분이 든 것은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상대방의 설명을 듣는다면 그 사람도 어느 정도 이해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페미니즘에 대해 아는 지식이 적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26]. 성격, 습관, 독서취향, 관심거리 등 여러 면에서 우리가 다르지만 나는 유경의 사회문제와 독서에 대한 열정과 진지함을 느낄 수 있었다.

3) 순영: "햄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이라는 것 때문에"

순영과 햄은 프리책 모임에 항상 같이 나타난다. 두 사람은 2016년 6월에 <논과 노>에서 만났고 2018년 3월에 결혼하였다. 2017년 여름에 프리책 창립 준비 단계에서도 순영도 같이 참여하였다. 당시 <논과 노>의 운영진이었던 햄과 싱싱[27]이 조금 더 주체적인 모임을 만들고자 순영과 카이를 포함한 네 명이 모임 이름부터, 장소, 운영 방식 등을 같이 정하였다. 그러나 순영은 자기가 독서와 토론을 좋아하지 않고 햄 때문에 독서모임에 계속 나오는 부분이 더 많다고 말한다.

> 사실 전 독서를 좋아하지도, 토론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특히 조리 있게 말을 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잘하기 때문에 토론이란 모임이 어울리지는 않기도 하고, 책은 읽는 것보다 사 놓고 전시해놓는 것을 더욱 좋아하지요. 독서모임이란 것에 참여하자

---

26) 이런 태도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내가 여성인권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보기에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섣불리 판단하고 편을 드는 게 책임이 없는 행위이다. 진심이 없고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명의로 여성을 정치 싸움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그것이다. 여론을 통해서 여성의 처지를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미국에서 흑인에 대한 차별 발언을 꺼리는 분위기이지만 흑인이 평등을 얻었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남녀 쌍방이 감정으로 서로 지적하는 것보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27) 싱싱은 햄과 함께 모임장 역할을 하였지만 현재는 탈퇴회원이다.

> 마자 햄님과의 연애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햄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이라는 것 때문에 모임을 나갔던 것이 컸고, 모임을 하다 보니 토론을 통해 얻는 다양한 시선으로 세상을 조금 더 넓게 바라보면서 삶 자체가 확대되는 듯 여겨집니다.

순영은 책 읽기보다는 책을 쌓아두고 보는 것을 더 좋아하지만 모임이 자기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게 됐다고 하였다. 순영과 햄은 은퇴 후 북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꿈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 같이 카페를 구경하는 것이 두 사람의 중요한 취미 활동이다. 순영은 블로그를 통해서 삶의 순간들을 기록해 둔다. 여기에는 프리책 발제문, 책 소개, 요리 만듦, 서재 사진, 가족, 카페 기행문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포함한다. 순영의 글과 사진에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글들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서 “우리 신랑”라는 낱말이 있다. 하지만 순영은 햄에 대한 첫 인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웃으면서 말하였다.

> 처음 만났을 때는 솔직히 싫어했어요 제가. 딱 봤을 때 막 화려하고 옷차림도 그렇고 처음 만났을 때 햄님이 여자 친구가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막 깨진 상황이라고 들었고 되게 껄렁껄렁하다는 느낌. 그냥 막 아무 여자나 막 질러 보는 듯한 사실 그런 면이 좀 있었어요. 그니까 약간 여자들한테 인기를 얻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그냥 모든 여자들한테 인기 있는 남자. 그런 걸 솔직히 추구하고 살았어요. 햄님이.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보여서 딱 싫어했어요. 그리고 첫 날 막 왔는데 저보다 어떤 연예인 닮았다고 그러면서 말을 걸고 하는데 그게 별로 진실 되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별로 그냥 가까이 하면은 별로 안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두 번째 갔을 때는 책 읽고 대화를 하는데 뭔가 이야기를 해보니깐 그런 껄렁껄렁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만났을 때가...(생략)

<논과 노>에는 독서모임뿐만 아니라 보드게임, 역사모임, 영화토론모

임 등 다양한 주제가 있었다. 순영은 주말에 진행하는 이벤트성의 모임에서 햄을 처음으로 만났는데 이 사람은 “껄렁껄렁하다”는 첫 인상을 받았다. 햄을 두 번째로 만난 것은 금요일에 진행하는 독서모임에서였다. 독서모임에서 햄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후 햄에 대한 인상이 바뀌었다. 세 번째 모임에서 음식을 준비할 때 햄은 순영한테 같이 하자고 하였고 모임에 가기 전에 밥을 같이 먹고 가자고도 제의하였다. 세 번째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둘은 연애를 시작하였다.

순영은 20년 가까이 교사 생활을 했지만 학생 외의 다른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편이었지만 햄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었다. 순영은 겉으로는 예민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호탕한 면도 있다. 반면 햄은 겉으로는 껄렁껄렁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심한 면도 있다. 순영은 비문학 읽기를 힘들어하는 편이고 햄은 비문학을 통해서 세계가 만들어지는 법칙에 관심이 많다. 이처럼 독서모임이 아니면 두 사람의 인생이 겹칠 일은 없었을 것이다. 독서도 토론도 좋아하지 않은 순영이 독서모임에 가입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다양한 스트레스로 매너리즘에 빠져 우울했을 때 주변인 중 한 명이 지금까지 자신과 관련된 상황에 새로운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 보라고 하였습니다. 교사가 된 후 만나는 사람도 활동도 학교와 관련된 경우가 많았는데, 학교 밖 다른 사회로 나가기 위한 첫 걸음을 위해 새로운 모임과 활동을 찾아보았습니다. 정 반대의 성향 속에서 취미 활동을 찾으려고 처음 택한 것은 스윙댄스 모임이었는데 가입비만 내고 자신이 없어서 불참하고 그 다음으로 선택한 모임이 독서모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그 동안 책을 너무 멀리하고 살아서 책을 읽어봐야겠다는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순영은 <논과 노>에 가입하기 전에 조용한 카페에 모여 함께 책 읽는 묵독 모임과 야구장 번개 모임에만 참여해 본 적이 있고 실제로 토론 모임에 참여해 본 적이 없다. 순영은 몇 년을 독서모임을 하다 보니 나름

의 인생책이라 하는 것들이 많이 생겼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없다고 하였다. 최근에는 <피프티 피플> 계기로 정세랑 작가를 좋아하게 됐다. 순영은 감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글보다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는 책을 좋아하는데 이 책을 통해 상황에 몰입하게 되었다. 또 최근 삶에 큰 영향을 준 책은 <사피엔스>와 <호모데우스>이라고 하였다.

> 인간 문명의 역사와 인간의 미래를 쓴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나 <호모데우스>를 읽고 인간의 쓸모와 인류의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때는 신선한 충격이라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그 느낌만 기억이 나지 지금 내용들이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네요. 다시 한 번 읽어 봐야겠습니다. 내용도 충격적이고 진지하게 인간이란 개념을 바라보게도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비문학이 참 좋다, 많이 읽어야겠다고 생각하게 한 책이기도 합니다.

앞서 순영은 독서와 토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독서모임에서 순영이 하는 말이 많지는 않아도 내 공감을 많이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순영은 항상 자기가 말재주도 없고 배경 지식도 많지 않다고 한다. 순영은 “처음에는 읽은 느낌까지 미리 작성해가서 외우듯이 반복해 읽고 막상 토론에 가서는 작성한 내용을 제대로 전달도 못하고 두서없이 이 말 저 말 하고 오다 민망함이 몰려오고 했던 것 같아요.”라고 하였다. 내가 보기에 그 “민망함”은 진짜 못해서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높은 요구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 처음 모임에 참여할 때는 회원으로서도 정독해야 한다는 부담, 질문하면 답을 해야 한다는 부담, 자유도서의 경우 간략하게 줄여서 재미있게 핵심만 전달해야 한다는 부담 등 모든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모임에 가입하고 일 년 정도는 책 내용을 계속 메모해 가며 아주 천천히 읽다보니 완독을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메모까지 해 가면서 책을 읽었는데 모임에 참석하면 용어나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아 속상하고,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오면 스트레스이고 했던 것 같아요.

유교 문화권에서는 겸손하고 반성을 자주 하는 사람이 서양보다 비교적으로 많다. 프리책 독서모임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카이가 보기에 순영과 지수는 도가 지나칠 정도로 반성을 많이 하는 편이다. 사실 나도 순영과 지수와 비슷하다. 겸손하기 때문에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계속 배우면서 더 나은 자신을 만들 수 있다. 반성을 통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당사자에게는 부작용도 있다. 일을 못해도 미안해하고, 잘하면서도 미안해해서 상대방을 답답하게 만들 수 있다. 나는 심지어 반성을 하면서도 반성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반성을 할 때가 있다. 순영이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도 이러한 복잡한 심정을 엿볼 수 있다.[28)]

> 드뎌 송년회 시작, 부정과 걱정마음도 시작, 음식이 실패한 것 같아 계속 속상, 아무도 신경 안 쓸 텐데 영상 음악이 뚝 끊겨 민망ㅋ 동시참여 퀴즈로 만든 카훗 게임이 어설퍼 속상ㅜㅜ 퀴즈 반응이 어떤가 사람들 관찰, 너무 긴가 문제가 별루인가ㅋ 책갈피 만들기 꼿이쁘다 칭찬에 기분 좋았다가 만드느라 고생하시는 모습에 죄송ㅜㅜ 코팅지 모자라 속상ㅜㅜ 책 나눔의 썰렁한 분위기 어쩔ㅜㅜ 수업처럼 되어버린 타임캡슐에 초조ㅋㅋ 가장 재미있었던 건 혀누님의 보드게임ㅋ 테러범 카이씨가 첨부터 오픈해줘서 득템ㅋ 옆에서 경쟁하면서 게임한 한석님 덕분에 스트림스도 더 재미있었어요.

남이 하는 일은 멋있고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실패”, “속상”, “죄송”과 “민망”을 더 많이 느낀다. 당사자로서 고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안다. 순영, 지수, 나 우리 세 사람은 같은 지역에서 자란 사람도 아니고 가정환경도 다른데 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 교육 때문인가? 유교문화 때문인가? 원인은

28) ㅜㅜ, ㅋㅋ같은 부호는 원래 게시글에 있는 부호이다. 순영의 성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삭제하지 않았다.

모르지만 결과는 분명하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친해지기가 어렵다. 다가가는 것이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까봐 선을 스스로 잘 지킨다. 어떻게 보면 프리책의 분위기도 이와 비슷하다. 모두 선량한 사람이지만 그 선량한 마음은 보이지 않은 선이 되고 사람들 사이에 가로놓여 있다.

4) 지수: “아는 것도 많은데 말도 잘하고 책도 엄청 많이 봤어요”

지수는 프리책의 독서토론, 이벤트성 모임, 게시판, 카톡방 등 모든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구성원이다. 지수는 독서모임을 좋게 평가하며 프리책에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지수가 처음부터 독서모임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정확히 말하면 이성(異性)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이런저런 모임들을 많이 찾아 봤다. 소개팅도 많이 하고 미팅도 해 보았지만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면서 사람을 자연스럽게 만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취미 활동을 알아보았고 독서가 아주 멋진 활동이라고 생각돼서 그런 멋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남녀 상관없이 좀 더 많이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 모임앱도 많이 찾아보고 네이버카페, 다음카페도 뒤져보고 그런 식으로 찾았다. 지수는 다른 독서모임에도 몇 번 가봤는데 맞지 않아서 결국 <논과 노> 쪽으로 선택하였다. 2016년에 <논과 노>에 처음 갔을 때 거기 사람들은 말도 너무 잘하고 똑똑해서 조금 놀랬다고 하였다.

> 햄님만 지금 있는데 햄님이랑 그 또래나 햄님처럼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저보다 다 언니 오빠 벌인데 아는 거도 너무 많은데 말도 너무 잘하고 뭐 책도 엄청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솔직히 그때 되게 압도될 정도로 놀랬었어요. 사실은 제일 처음부터 꾸준히 간 게 아니라 처음에 가보고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말을 다 잘하고 내가 여기 좀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좀 몇 달은 별로 안 가다가 나중에 또 생각나서 가고 그러다가 가게 됐어요. 되

게 지금 봐도 정말 이야기도 잘하시고 뭔가 잘하시는 분들 정말 많았어요. <논과 노> 그 전 모임.

처음에 지수에 대한 인상은 햄과 유경만큼 깊지 않았다. 성격이 밝고 씩씩하고 열성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다였다. 말할 때 속도가 빠르고 잘 웃어서 이런 인상을 받았던 것 같다. 처음 자유도서 모임에 같이 참여했을 때 지수는 와인이나 미술사에 관한 책을 가져왔다. 나에게는 낯선 분야였지만 지수가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줬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내가 지정도서에 많이 참여하게 됐을 때 지수와 접촉할 기회가 많아졌다. 여기에 말하는 접촉은 개인과 개인의 접촉이 아니라 독서모임 토론 현장에서 여러 명이 같이 모였을 때의 접촉을 말한다. 프리책에서는 단체 활동 이외에 구성원들이 따로 연락해서 모이는 경우는 많지 않다. 지정도서에 참여하면서 지수가 하는 견해를 들었을 때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조리 있게 표현할 수 없을까”라고 하면서 부러워할 때가 많았다. 혹은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라고 공감하기도 하였다.

2018년 여름에 구성원 현진이 음악회 티켓을 후원해 줘서 프리책 구성원 몇 명이 같이 잠실에 모인 적이 있었다. 그때 지수가 사람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어서 카톡방에 올렸다. 한강공원에 같이 갔을 때도, 송년모임을 했을 때도. 그리고 카톡방은 각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그때그때 특별히 만든 채팅방이지만 지수가 사진을 올리기 전에 카톡방에 올려도 되는지를 먼저 물어보고 확인한다. 같이 식사했을 때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지수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수저를 나누어 주고, 누가 물이 떨어지면 채워주고, 가끔 농담도 하는 등 분위기를 즐겁게 만들어 주었다.

가끔 “지수가 진행자 역할을 되게 잘할 수 있을 텐데. 왜 진행자를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였다. 2019년 송년모임에서 보드게임을 했을 때 A팀 B팀을 나눠서 각 팀에 한 명의 리더를 뽑아야 할 경우에는 A팀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지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나 지수

는 당황스러운 얼굴로 손을 저으면서 “아니요. 아니요. 저 못해요”라며 거절하였다. 처음에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부끄러워서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이 거듭 요청했는데 지수가 거절하는 태도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다. 예의상의 사양이 아니고 진짜 리더 역할을 하고 싶지 않구나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나중에 지수와 인터뷰를 했을 때 진행자 역할을 되게 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하지 않았냐고 물어보았다. 지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뭔가 부담감이 많이 돼서. 뭔가 이 모임이 각각 온 참여자가 안 좋을까봐 너무 예민해져 있으니까 마음이 계속 불편했어요. 저는 아직 사회가 익숙하지 않아서, 좀 힘들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제가 요령이 아직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뭐 이쯤에서 휴식해야 된다. 아니면 이쯤에서 이 사람의 말이 너무 많아지니까 적당히 조정을 해주고 다른 분들이 이야기를 하게 해야 된다. 아니면 이 사람의 말에 더 해서 더 질문을 해서 이야기를 이끌어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진행자가 할 만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잘 못하겠더라고요. 아직은.

지수는 좋은 책이나 예쁜 장소를 발견하면 게시판을 통해서 프리책 구성원에게 공유한다. 또 햄이 없으면 뒷풀이의 비용을 정산하는 일을 지수가 맡게 되는 경우가 많고 빠르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칭찬을 보내는 사람이 많다. 유경도 프리책 구성원 중에서 지수가 제일 부럽고 제일 되고 싶은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지수는 칭찬을 들을 때 당황해 하며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기에 대한 칭찬들을 부인하지만 프리책이나 다른 구성원의 장점을 많이 발견해 내고 칭찬하는 데에는 인색하지 않다.

지수가 자기는 보기보다 낯을 많이 가린다고 하였다. “친해지는 데 오래 걸리는 편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안 본 것 같아요. 제가 어색하니까 말을 더 많이 하니까 사람들한테 티가 잘 안 날 수도 있어요.”라고 설명하였다. 지수는 직접 진행자 역할을 하는 거보다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더 선호한다. “예를 들면 햄님이 진행하고 있을 때 옆에 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하겠는데 아예 ‘아 여러분 뭘 합시다’ 이렇게 진행을 제가 하기에는 아직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지수는 자기는 눈치를 많이 보고 스스로를 계속 공격하는 성격이라고 평하였다. 지수는 대학교 때부터 조금씩 심리학 관련된 책이나 자존감에 관련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책은 <행복한 이기주의자>와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였다.

> 제가 원래 되게 지금도 좀 그런데 눈치를 되게 많이 보는 성격이거든요. 남을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래서 되게 약간 착한 사람 콤플렉스, 이런 걸 알고 있어요? 에.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좀 힘들었었는데 대학교 때 <행복한 이기주의자>라는 책을 처음 읽었었어요. 근데 그 책 자체가 지금 봤을 때 좋을 건지를 잘 좋을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저한테는 뭔가 내 의지대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계기가 됐던 책이어서 좋아하고 그리고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에리히 프롬. <사랑의 기술>. 그 책도 그 책은 뭔가 심리학과 같은 거에 좀 더 관심이 가지게 해준 계기 그래서 그 책도 되게 인상 깊은데 지금 봐서 그만큼 그렇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되게 좋은 전환점이 됐던 책이에요.

지수는 그 전에는 책을 많이 읽지 않았지만 프리책을 시작하면서 문학과 비문학, 국내 작가와 해외 작가 등 다채롭게 많이 읽게 되었다. 프리책에서 읽었던 책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책이 어떤 책이냐고 물어봤을 때 지수가 <쇼코의 미소>, <호모데우스>, <숨>의 세 작품을 꼽았다. <쇼코의 미소>를 좋아하는 원인에 대해 지수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저는 사실 책을 다양하게 안 읽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 책을 읽고 ‘이래서 한국소설을 읽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한국소설의 좋은 점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그 이후에 한국 소설을 점점 이제 가깝게 느꼈던 것 같아요.”

또한 지수는 독서모임은 완독이라는 강요성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혼

자서는 안 읽게 되는 <호모데우스>와 같은 책을 같이 읽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였다. 책이 두껍지만 재미도 있고 미래에 대해 큰 밑그림을 준 점이 구체적인 도움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머리에 남아있으니까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비슷한 맥락으로 <총균쇠>도 했었는데 저는 사실 완독을 못했지만 여기 모임을 하니까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었어요. 평소에는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이처럼 지수는 강제성 때문에 평소에 읽지 못하는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지만 햄은 <총균쇠> 이후에는 어려운 책이나 두꺼운 책을 안 하려는 경향이 보였다. 또한 지수는 테드 창의 <숨>이 인상적인 이유가 책 자체도 좋고 대화하기에도 재미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프리책에는 자유도서와 지정도서가 있는데 2020년 1월 17일 지정도서 <선량한 차별주의자>를 한 이후 계속 지정도서만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들 중에서 카이만 자유도서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은 모두 지정도서를 선호한다. 지정도서를 좋아하는 이유는 지수가 밝힌 것과 거의 비슷하다. “자유도서는 잘 못하면 책 소개처럼 끝나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엔 내가 읽지 않았던 책에 대해서 그냥 듣게 돼요. 그런데 책을 소개 받으려면 사실 다른 걸로도 가능하거든요. 반면에 지정도서는 한 가지 책을 다 같이 읽고 되게 다양한 시각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훨씬 책 토론으로의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수는 세 군데의 독서모임에 참여해 본 적이 있지만 깊이 있다는 느낌은 다른 데서 못 받았다고 한다. 지수는 그 원인이 지정도서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한다.

> 그 깊이가 뭐냐고 물어보면 참 응... 말하기 어려운데 다른 모임에서는 제가 자유도서만 많이 가가지고 그럴 수도 있긴 하는데 대화가 오고가면서 점점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은 거 같아요, 프리책이. 예를 들면 다른 모임에서 한 이야기를 했을 때 누가 “이랬어요”라고 하고 끝나면 그냥 감상이 되고 끝나는데 거기에 누가 더 붙이고 혹은 의견을 내고 이런 식으로 이게 좀 하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들었을 때 깊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런 경우가 더 훨씬 많은 거 같고. 그리고 그 개개인이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

> 를 잘하시는 건지 아니면 모르겠어요. 그 한 사람 이야기가 되게 좋았던 경우가 많았던 거 같아요. 더 그리고 사실 그거는 프리책보다 <논과 노>에서 그때는 제가 처음 제대로 해서 더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저런 생각도 하시는구나”라고 감탄하는 경우가 그때 좀 더 많았던 거 같아요.

지정도서 모임에서는 하나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들을 수 있으니 깊이가 생기는 반면 서로 의견이 달라서 답답할 때도 많다. 이때 연구참여자들은 응대하는 방식에 차이를 보인다. 지수의 경우는 반박이나 설득보다 방임하는 편이다. 지수의 말대로는 “내버려두는 것. 엄청 열정적으로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노력하지는 않고 이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 이런 케이스도 있잖아요’라는 식으로 몇 번은 이야기는 하긴 하지만 강하게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저 사람은 저렇구나. 내버려 두는 편인 것 같아요.”

이것은 타협[29]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래서인지 나는 독서모임의 토론에서 지수로부터 답답한 정서를 덜 느꼈다. 그리고 지수가 자신에 대한 자아 인식이 깊다는 느낌도 들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 잠깐 흔들리거나 자아회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자신만의 입장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이다. 지수는 우진과 <논과 노> 독서모임에서 만났고 2019년 11월에 결혼하였다. 지수는 우진이 이야기하는 내용이나 태도나 조금씩 보이는 취미 같은 것들이 마음에 들어서 따로 밥을 먹다가 사귀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였다고 한다. 내가 잘못 이해한 것일 수도 있어서 확인하려고 “지수님이 우진 씨한테 밥을 사 준 거예요?”라고 물었다. 지수는 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예예예. 제가. 왜냐하면 우진 씨 막 이렇게 이 사람 엄청 좋다 이런 기분이 아니지만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우진 씨는 전혀 그럴 기미가 안 보이더

29) “타협”은 동의를 못하지만 자기를 동의하게 강제로 요구하는 거라면 “유연함”은 동의를 안 하지만 그 의견과 공존하는 것이다.

라고요. (생략) 왜냐하면 여자들은 보통 남자가 먼저 대시한다 그러죠. “뭐 같이 할래?” 이런 식으로 권하기 전에 뭔가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답답했거든요. 왜 여자가 먼저 어떻게 하자고 마음에 드니까 뭘 하자고 이런 식으로 먼저 하고 싶은 거를 좀 무섭지만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에 한두 번 이렇게 좀 하고 내가 먼저 이야기하는 거 해 보고 이제 우진 씨한테도 그래서 그냥 제가 먼저 한 거죠. 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래서(하하하)

지수에게 프리책이 다른 독서모임과의 차이점은 또 하나가 있다고 하였다. 그것을 바로 프리책 사람들이 생각보다 사적으로 친하지 않다는 점이다. 막상 보면 반갑고 좋은데 일상이나 평소 생각이나 어떻게 사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것이다. 지수는 이것을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쉬울 때도 있다고 한다. 나는 시간이 좀 지나면 친해지지 않겠냐고 물어봤는데 지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친해지긴 하는데 다른 모임보다 좀 느린 편인 거 같아요. 제가 갔던 다른 강남 모임이나 아그레아블 같은 경우는 친목하려는 의도가 더 많이 밖으로 보였거든요. 장난도 치고 약간 반말도 섞어하고, 친구처럼 그런 모습들을 제가 안 친해졌지만 보이는데. 그거를 경계하는 건지 그런 식으로 안 흘러가는 거 같아요 잘. 저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생략) 그런데 아쉬울 때도 있긴 있는 거 같긴 해, 모르겠는데, 이거는 좀 더 친해져서 좋을 거 같긴 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는 일에 부담감을 많이 느낀다. 상대방을 싫어하거나 연락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까봐, 상대방이 나한테 연락받는 것을 싫어할까봐 연락을 못하는 것이다. 또는 상대방이 싫어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이 사람이 운전하고 있을까봐, 수업을 하고 있을까봐, 도서관에 있을까봐, 샤워를 하고 있을까봐 연락을 못한다.[30] 문자를 보내는 일도 주말에는 쉬는 시간이라서 쉬는 것

30)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서 설명을 덧붙이겠다. 운전하고 있을 때 전

에 방해될까봐 연락을 못하고 평일에는 근무하는 시간이라서 신경을 쓰게 만들까봐 연락을 못한다. 그래서 아주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아예 연락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이런 마음을 지수에게 말하였다. 그러면서 “우리 모임이 왜 이런 분위기가 됐을까요? 나처럼 ‘예의’ 때문에 방해할까봐 서로 연락하지 않은 것일까요?”라고 물어봤을 때 지수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설을 말해 주었다.

> 저도 그런데 좀 그런 성격이 있기도 하고 저는 사실 근데 제가 연락 막 하는 편이 아니고 원래 잘 안 하는 편이기도 해서. 글쎄. 전 그냥 친구들한테도 연락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왜 모임 전체가 그런 분위기가 되냐 라고 하면은 저도 이게 잘 모르겠는데 그냥 몇 개 가설을 세우면 그런 애들끼리 여기 모였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만 여기 모여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예의? 그니까... 해가 될까봐 안 하다기보다 그냥 여기의 문화가 그러니까 그렇게 적응하셔서 다 그런 걸 수도 있을 같고. 아니면 이 정기적으로 있잖아요. 사실은. 오면은 사실 거의 매주 올 수도 있었잖아요. 코로나처럼 특수한 경우 빼고는. 그러니까 사실 굳이 따로 더 한 번 연락해서 할 필요성 못 느꼈었을 수도 있을 거 같고.

나는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한국 친구를 많이 사귀었어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처음에는 공부가 바쁘고 사람을 만나지 못해 친구가 별로 없다고 말하였다. 나중에 프리책에 오래 참여하게 되고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나는 친구가 별로 없다고 하면서 그런데 독서모임에서 만난 선량한 사람들이 있다고 덧붙이게 되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친구로 불러도 허락되는 것인지에 자신이 없다. 상대방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상대방의 선을 무심코 밟게 될까봐 다가가기 조심스럽기 때문이다. 나는 프리책의 사람들을 아주 좋아하지만 논문이 아니면 따로 연락할 용기가

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는 것이 위험하고, 수업하거나 도서관에 있을 때는 핸드폰 소리를 안 끄는 경우가 있어서 불행히 그때 전화를 하면 그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 수 있다. 샤워를 하고 있을 때 전화를 걸면 그 사람이 전화를 안 받아도 안심하게 샤워를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연락받는 것이 방해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감지덕지하는 것이다.

없을 것이다. 지수가 서로 조심하고 배려해 주니까 이 모임이 길게 유지되는 것도 있다고 한 것처럼 이러한 현상은 장단점이 있는 것 같다.

5) 카이: “걔네들은 도대체 책을 왜 읽는 거야”

마지막 연구참여자로 누구를 요청할지 고민했을 때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프리책 구성원을 찾고 싶다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카이를 많이 추천해 주었다. 독서모임에서 카이를 서너 번만 만나본 적이 있지만 카이는 인터뷰 할 때 자신의 생각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해 주었다. 카이는 <논과 노>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프리책 외 참여해 본 독서모임이 없었다. 카이의 어떤 표현을 다른 구성원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서 글을 작성할 때 카이가 한 말이라고 티가 안 나게 해줄까라는 제안을 했지만 카이가 괜찮다며 거절하였다. “남의 눈치를 더 안 보는 거예요 이제. 니가 뭔 이야기를 하든 나도 신경 안 쓸 테니까 니 눈치 보느라 내 이야기를 못하지 않을 거야. 난 이렇게 생각해. 끝. 이거인 거죠.” 순영, 지수, 나와 달리 카이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카이는 운동을 좋아해서 가만히 앉아서 책을 읽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런데 대학교를 다니면서 지하철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책 읽기를 시작하였다. 책에 대한 취향은 가수 신해철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철학과 인문학에 관련된 책을 제일 좋아한다. 카이는 대학교를 다닐 때 책읽기를 좋아하는 친한 친구가 한 명이 있어서 좋았다. 두 사람은 책을 읽고 나면 논쟁을 많이 해서 남들은 둘이 싸우는 줄 알았다. 이에 대해 카이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니네 맨날 싸우면서 왜 붙어다녀”라고 하는데 우리는 싸운다는 생각을 안 해 봤어요. 니 의견 내 의견 뭐가 맞고 틀리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학교 도서관 중앙도서관이 꽤 크잖아요. 더 이상 읽을 책이 없을 정도로 둘이 읽었고. 이 책을 읽고 작가의 말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야 너 이거 읽고 와.” 그리고 싸워요. “야

이 작가 말이 맞아?" 하면서.

이런 친구의 존재는 카이더러 부단히 사고하게끔 만들었다. 그런데 프리책에서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결국 감정적인 싸움이 되고 말았다. 카이는 직장 근처에 괜찮은 취미모임을 찾다가 프리책에 가입하게 되었다. 다른 연구참여자들과 달리 독서모임은 카이에게 특별한 의미가 없으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길에 들르는 모임" 정도에 불과하다. 카이의 말대로 "운영진이지만 모임에 가장 열성적이지 않은 운영진"이다. 나는 열성적이지 않은데 왜 초창멤버가 될 수 있는지 물어봤다. 그는 "순영님이 저를 되게 좋게 봤대요."라고 말하였다. "다들 뻔한 이야기하는데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이런 게 되게 좋아서 제 이야기를 듣는 게 되게 재미있었대요."라고 하였다. 그는 프리책에는 "뻔한 이야기"와 "정체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였다.

카이는 독서모임에서 지식이든, 감정이든, 경험의 공유든 뭔가를 배우려는 욕구가 강했지만 프리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이 만족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카이는 프리책이 그에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인 이야기"보다 "늘 아름다운 이야기", "교양 있는 이야기"만 하니까 프리책 모임의 콘텐츠에 기대하는 것이 많지 않다고 하였다. 카이는 이러한 상황을 답답해 했고 이는 프리책에 자주 나오지 않는 원인이 되었다.

> 제가 이 모임이 쓸데없다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니까 저 사람들이 어떤 지적인 측면으로 되게 뛰어난 사람들도 아니고 사실 그럴 필요도 없는 거지만 저 사람 뛰어나다면 내가 뭔가를 배우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은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백그라운드에 따라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내가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겠지라는 저의 기대치가 있었는데 둘 다 아니라는 거죠 이제. 똑똑한 사람들도 아니고 솔직한 사람들도 아니고 매날 뻔한 이야기만 나오는. 그러면 내가 왜 여기 나오지? 난 여기 안 나와도 책을 충분히 읽고 여기가 아니어도 다른 취미모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내가 여기에 나와서 얻을 게 없다는 생각

이 드는 거죠, 점점. 그래서 모임을 안 나오고 있어요.

카이는 처음부터 프리책의 토론이 솔직하지 않다고 느낀 것은 아니고 점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솔직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를 때 카이는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했었는데 점점 “대화의 결이 안 맞는구나.”라는 것이 느껴졌다고 하였다. “제가 가끔 일부러 강하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요. 프리책 사람들은 어떤 책이 좋았다거나, 누군가의 의견에 동의할 경우에는 자유롭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책이 별로라거나 누군가의 의견에 반박해야 할 때는, 책을 추천한 사람이 기분 나쁠까봐, 괜히 저 사람의 감정을 다치게 할까봐 말을 아껴요.” 카이는 프리책에서 이질감을 많이 느끼고 자신의 주장을 이제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게 되었다. 카이는 사람들이 “이미지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유행에 휩쓸고 있거나 바보거나. 저는 바보는 아니라고 봐요. 자기 이미지 관리를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왜? 독서모임이니까. 이게 경제모임이었으면 돈 이야기에 대해서 재테크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했을 건데. 왜냐하면 이들은 아름다운 독서모임이니까. (중략) 왜냐하면은 제 느낌인데 지금 운영진이나 이 모임에 주축이 되는 사람들은 약간 회사생활 외에 자기의 사회생활에 중심이 지금 프리책이에요. 사생활에 거의 모든 거 여기에 쏟아 붓고 있다 말이에요, 지금. 운영진들을 보면은 주말에 서로 만나고 뭐하고 뭐하고 인간관계의 중심이 여기에요, 이 사람들이. 되게 조심스럽죠. 내가 되게 소속감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모임이니까. 그렇잖아. 여기서 괜히 나쁜 이미지를 가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모임에 이렇게 대단한 집착이 없기 때문에 욕하려면 욕해라. 난 안 나오면 끝인데라는 생각을 하니까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제 느낌에 약간 직장생활을 하듯 하고 싶은 이야기 줄이고 뭐하고, 괜히 얼굴 붉히지 말고 우리끼리 그냥 좋게 좋게 가자는 분위긴 건데. 어떻게 보면 저는 정

말 철저하게 이걸 사회생활 정치생활로 안 보고 독서모임으로만 보는 거죠.

카이가 보기에 프리책의 주축이 되는 구성원들은 이곳이 인간관계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자유롭게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 또한 이 모임에 참여할수록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 하나로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본다. 앞서 말하는 것처럼 순영, 지수, 나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상대방의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다. 진실한 생각을 말할 때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솔직하게 표현을 안 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기가 싫어서 침묵이나 화법으로 대처하기도 한다.

나의 경우는 어떤 도서가 마음에 안 들 때 상대방이 칭찬을 기대하고 있으면 나는 이 책에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아주 구체적인 어느 하나의 작은 구석에 집중해서 좋다고 평가를 한다. 좋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좋다”라는 말을 내뱉을 수 없어서 “인상적이다”라는 말로 대체한다. 이는 거짓말도 아니지만 진실도 아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칭찬보다 내 진실한 생각을 듣고 싶다는 것이 느껴지게 되면 그 책에 대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마음이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솔직하지 못한 두 번째 원인은 나는 대화에서 상대방이 좋은 평가를 기대하고 있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본다.

잘해서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위로를 하기 위한 칭찬은 나에게 어떤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볼 기회를 빼앗는 것과 같다. 가식적인 칭찬이 많아질수록 누가 진짜 칭찬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칭찬의 가치와 의미가 떨어지고 칭찬을 하는 사람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카이는 눈치를 많이 안 보는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책을 칭찬해야 한다는 분위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느낌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프리책에 나가면 책에 대한 칭찬만 해야 되는 분위기가. 어떤 책을 욕한다는 걸 되게 죄악시하는 분위기.”

카이는 프리책의 토론 분위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만 프리책 구성원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인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프리책 초창기에 카이가 진행자 역할을 맡아본 적도 있지만 이제는 아주 가끔 나온다. 그는 다른 연구참여자와 달리 지정도서보다 자유도서를 더 선호한다. 자유도서를 선호하는 원인에 대해 카이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여기 입김이 센 사람들, 자기주장이 강한 사람들 대부분이 문학을 선호한다 말이에요. 문학이 쉬우니까. 저는 문학 책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정도서 모임에 안 나가는 거고 자유도서는 그냥 내가 평소에 읽던 책을 가져가서 소개만 해 주면 되니까 자유도서 위주로 모임을 나가요.

카이는 지정도서 모임은 마음에 드는 책이 많이 없어서 별로 나가지 않는다. 하지만 지정도서 모임에서 좋은 책이 있거나 시간이 맞으면 지정도서에 참여하기도 한다. 프리책에서 읽었던 책 중에 제일 좋아하는 책이 무슨 책이냐고 물어봤을 때 카이는 <사피엔스>라고 말하였다.

> 모임을 떠나서 그 책이 너무 좋았고 그 책을 읽기 전과 읽기 후로 제 생각이 많이 바뀐 거 같아요. 정말 인간의 본성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프리책의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기도 하더라고요. 나는 되게 교양 있는 사람인데 그 책은 정말 인간의 본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하거든요. 그다지 아름답지 못한, 약간은 이기적이고 본능적이며 때로는 추악한 이야기를 하니까 프리책 사람들이 불편하겠죠.

프리책 모임에서 제일 좋아하는 책이 무슨 책이냐는 질문에 다섯 명의 연구참여자 중에서 햄, 순영, 지수, 카이 네 사람 모두 <사피엔스>나 <호모데우스>를 꼽았다. 불편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누구인지를 모르지만 좋은 책이 있으면 기쁘고 그 책을 진심으로 칭찬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카이는 프리책의 지정도서에 대해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 놓았다.

> 이거 좀 큰 이야긴데 한국의 문화 한국의 출판계의 수준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게 하나 있구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책을 예전에 읽었던 좋았던 책을 또 읽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 나오는 책들은 그렇게 좋은 책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책에선 계속 새로운 책만 보면서 그 책에 대한 칭찬을 해야 한다는 거. 칭찬이 아니라 비판을 하면 내가 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제대로 이해를 못 해서 그래,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 그렇게 결론이 나더라고요.

도서선정에 대해 모임장 햄은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프리책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진행자가 도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가 중간에 잠깐 투표를 한 적도 있었다. 그 다음에 다시 진행자가 도서를 선정하는 것으로 돌아왔다. 투표가 사라진 원인에 대해 햄은 읽기 너무 힘든 책이나 너무 두꺼운 책도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문학 고전을 다루면 “너무 트렌디 하지 않다”, “학원 같다”, “문학시간에 문학을 배우러 온 것 같다”라고 느낄까봐 문학 고전은 되도록 하지 않는다. 또한 비문학 고전은 “너무 어렵다”, “또 구하기 힘들다”라는 원인 때문에 안 하는 것이다.

깊이를 추구하는 동시에 재미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나온 책을 비교적 많이 하는 편이다. 그러나 카이는 “새로 나온 책들 중에 그렇게 좋은 책들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한다. 카이 같은 사람에게는 “깊이”가 있어야 “재미”가 생기는 것이라서 프리책에 지정된 대부분 새로운 베스트셀러 책들이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카이는 요새 작가들이 있어 보이게 글을 쓰는 경향이 있고 내용 자체가 가볍다는 우려를 많이 하였다.

> 이거도 저의 서툰 기대일지도 몰라도 적어도 문학이나 이렇게 책을 다루는 사람들이라면 뭔가 좀 냉정하게 혹은 다양한 시각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책조차도 유행이 있는 것 같다는 거죠. 물

론 당연히 그들도 돈을 벌어야 하고 마케팅을 해야 하니까 대중의 관심이 있는 책이 당연히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하지만, 왜 노래도 그렇잖아요. 유행가가 있지만 여전히 자기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기에 관계없이. 책도 당연히 유행하는 페미니즘이나 뭐 자아개발 같은 책도 있지만 그와는 조금 다른, 마케팅적으로 불리하더라도 그런 인문학적이나 철학 같은 책들이 있어야 되는데 인문학조차도 너무 가벼운 것 같아요, 요새는. 그러니까 작가 자체가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그냥 이런 게 있단다.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로서는 읽을 게 없다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카이가 요즘 작가보다 오히려 유튜브나 웹툰 작가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것 같다고 말하였다. 그는 <미생>이라는 만화의 내용이 아주 충실하다고 하며 신나게 소개해 주었다. “그 만화를 보면서도 지금 국제사회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공부가 돼요. 그래서 제가 <미생>을 휴대폰으로 보면서 캡처한 것도 되게 많아요. 나중에 공부하려고. 좋은 말이어서 캡처한 것도 있고 제가 무역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정보를 공부해야지 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모임 토론이나 책에서 배울 것이 없다고 말할 때 힘이 빠져 보인 모습과 달리 <미생>을 말할 때 카이의 눈에는 빛이 났다.

3. 프리책의 진행 과정

독서모임은 보통 사람들이 모여서 독서토론을 하는 활동을 일컫는다. “사람”과 “독서토론”은 독서모임의 중요한 주체이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앞 절에서 세상하게 기술하였다. 프리책 독서토론의 기본 틀은 1절에서 진술한 바가 있다. 독서토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하였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번 절에서는 한 차례의 독서토론 현장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프리책의 진행자는 햄과 유경이며, 매주 진행해 오던 프리책 모임은 2020년 6월부터 코로나로 인해 격주로 운영하되 첫째 주는 유경이 문학도서를 맡고 셋째 주는 햄이 비문학도서를 맡기로 하였다. 여기서 기록하는 토론 현장은 2020년 11월 6일 금요일에 유경이 맡고 있는 문학도서 진행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선정 도서는 유경이 추천한 김금희 작가의 <복자에게>라는 책이다. 정원은 10명이고 신청 버튼을 생성한지 하루도 안 되는 시간에 바로 정원이 모두 찼다.

나는 며칠 동안 계속 대기 자리에 있었는데 우진이 자신의 자리를 나에게 내 주었다. 당일 취소자가 한 명이 있어서 총 참석자는 9명이었다. 참여자는 민석, 햄, 순영, 지수, 재윤, 니모, 미선, 유경, 채화였다. 모임은 원래 강남역 근처에 있는 브라더카페에서 했는데 이곳은 코로나로 영업 종료가 되었다. 그래서 예전에 모임을 몇 번 진행했던 강남역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로 급하게 바뀌었다. 모임은 20:00쯤에 시작해서 23:00쯤에 끝났다. 이번 모임은 새로운 토론 방식을 도입했지만 예전의 모임과 크게 차이가 없다. 프리책은 항상 더 나음을 추구하기에 새로운 토론방식의 도입은 프리책의 특수성이라기보다 일반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온당하다.

1) 도입 단계

독서모임에 일찍 도착한 사람도 있고 늦게 도착한 사람도 있었다. 일찍 도착한 사람들이 서로 인사말을 주고받았다. 보통 각자의 근황이나 요즘 시국에 맞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집콕” 등에 대한 것들이었다. 프리책 모임에 처음 참여하는 미선이 어색해 할까봐 햄과 유경이 적극적으로 미선에게 말을 걸었다. 모든 사람이 도착하자 진행자인 유경이 “이제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독서토론을 시작하였다. 유경이 먼저 작가와 작품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하였다. 그 와중에 지수가 작은 농담을 해서 다들 크게 웃었다. 약간 엄숙한 분위기에서 즐거운 분위기로 변하였다. 햄과 순영도 지수의 농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

였다.

유경: 김금희 작가 책은 좀 호불호가 갈려요. 그래서 싫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어떤 서사의 굵직굵직한 서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김금희 작가의 소설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게 아니고 중간 중간 되게 깨작깨작 거린다는 느낌 때문에 싫어하시고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난 등장인물이 또 뜬금없이 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도 김금희 작가 소설을 안 좋아하시고요. 김금희 작가 소설 좋아하신 분들은 그런 거 때문에 좋아하세요. “인물이 꼭 중심 어떤 인물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느냐”라고 반론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그 서사가 굵직굵직해야 되고 끝까지 끌어가야 된다는 건 “너무 올드하지 않으냐”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 연령을 이렇게 조사를 해 보면 20대 30대까지는 좋아하시고 40대 이상부터는 불편해 하시는 그런 성향을 좀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연령하고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읽으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수: 여기서 젊어 보이려는 좋았다고 해야 되나.

(여러 명: 하하하하하)

햄: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있는데요(하하)

지수: 2, 30대. 2, 30대예요.

순영: 생각을 바꿔야겠네요(하하)

진행자인 유경은 웃다가 순영의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토론 방식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유경은 “문학하고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기존 토론 방식이 좋지만 이제 몇 년째 좀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이야기를 너무 다 알아 가지고 더 이상 개인적인 할 말이 떨어지고 있다”는 제한점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토론 방식을 한 번 시험해 보고 싶다고 하였

다. 이때 햄이 조심스럽게 새로운 방식이 “적극성이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하자 유경은 웃으면서 “다 같이 해. 늘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이라며 빠르고 간결하게 응대하였다.

유경: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토론 방식을 조금 바꿀 거예요. 저희가 원래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어떻게 읽었는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발제로 넘어 갔었어요. 사실 저는 문학을 읽으면서 문학하고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 문학의 어떤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몇 년째 좀 하다보니까 개인적인 이야기를 너무 다 알아가지고 더 이상 개인적으로 할 말도 좀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책에 더 집중하고 싶다 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짧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젠 발제하거나 토론할 거리가 나오면 그걸 끄집어내서 토론을 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 번 시험을 해보고 싶어요.

햄: 그 역할을 많이들 해 주시지 않으면 또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유경: 다 같이 해. 다 같이. 뭐 역할을 해. 다 같이 해요. (여러 명: ㅎㅎㅎ)

햄: 알겠습니다.(여러 명: ㅎㅎㅎㅎ) 부담 없이 툭툭 끼어들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유경: 네네. 그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이야기하다가 뭐 순영님이 이야기하다가 순영님 이야기 중에 내가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으면 아무나 질문하셔도 되고 또 그거를 끄집어내서 토론을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햄: 적극성이 좀 필요한 시스템이네

유경: 해도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늘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햄: 아 (하하하)

유경과 햄은 <논과 노> 독서모임에 처음 만났는데 안 지 벌써 5~6년

이 되었다. 서로 잘 아는 사이라서 대화하는 방식이 좀 직설적이었다. 내용만 보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황이나 말투와 분위기를 함께 고려하면 친한 사이에만 할 수 있는 농담으로 보는 게 더 맞다. 유경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유경은 순영과 지수하고도 서로 알게 된지 오래 되었지만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상대방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대한다. 햄은 유경의 빠르고 간결하고 직설적인 대답에 한순간 대응할 말을 찾지 못하고 웃음으로 넘겼다. 새로운 토론 방식에 대해 더 이상 이의나 우려의 목소리 없이 순조롭게 시작하였다.

2) 토론 단계

도입 단계가 끝나고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갔다. 첫 발언을 하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어서 보통 사회자가 지정한다. 이번 독서모임에 유경은 지수를 첫 발언자로 시키고 싶어 했는데 지수가 곤란한 표정이 보이자 햄으로 바꾸었다. 햄도 “나 맨날 했잖아. 맨날 했어 제일 처음에.”라고 하면서 거절하려고 하였다. 결국 햄 옆에 앉은 민석이 첫 발언자 역할을 하게 되었다. 민석이 작가의 다른 책과 비교하면서 책에 대한 자기의 생각들을 이야기하였다. 이때 지수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내비쳤다. 이렇게 토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31]

이후 햄이 책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감성적인 정서들을 많이 표현하였다. 유경은 햄의 이런 변화에 감탄하였다. 햄이 책 자체에 대해 할 이야기가 없다고 하자 유경이 “관계”와 “인물”에 대한 발제를 제기하였다. 유경이 인상적이었던 인물이 누구인지 햄한테 질문을 하였다. 햄은 “고모”가 너무 멋있어서 제일 인상이 깊고 가장 어른스럽게 느껴진다고 하였다. 지수가 어느 부분이 어른스럽다고 느꼈는지 묻자 토론 화제가 “어른

31) 이번 독서모임에서 거론되는 화제는 “책 평가”, “어른스러움”, “판사가 사과를 깎는 것”, “동성애”, “에고”, “가족” “이해” 등과 같은 화제들이 있다. 이러한 화제를 다 다루면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이 중 “어른스러움”이라는 화제에 집중하여 프리책의 토론 과정을 살펴보았다.

스러움"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햄은 어른스러움이란 참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지수와 유경이 여기에 동의를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궁금해 하였다. 새로 온 참석자 미선이 발언을 한 번도 하지 않아서 사회자 유경이 미선에게 햄의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미선이 햄의 관점에 동의한다고 한다.

햄: 관계건 뭐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풀어놓는 게 아니고 풀어 놓야 할 때와 풀어놓지 않아야 될 때를 구별할 줄 아는, 분별로 절제가 있는 사람이었지 않았아 라는 생각이 많이 했어요. 그래야 이제 정서도 되게 좀 폭발적으로 쏟을 수 있잖아요. 누구에게. 그런데 저는 그런 게 많이 없었지 않아요. 그래서 나한테 없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동경도 있었던 거 같고 그냥 어른스러움이라는 거 참는 거 잖아요. 참는 거잖아. 어른스러움이라는 거는, 사실.

유경: 잘 모르겠어요.

지수: 저도. 좋은 화두인 거 같긴 하는데 그런가 싶은 생각이..

유경: 동의는 안 돼요.

햄: 아 그래? 왜?

지수: 어른스러움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도 잘...

햄: 참는 거. 나는.

유경: 다른 분들은 어때요? 어른스러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새로 오신 분도 이야기 좀 해볼까요?

민석: 되게 무섭게 (여러 명: 하하하)

유경: 나 무서워? 나 무서우면 다른 분이 하셔도 되는데

미선: 참을 수도 있어야겠죠. 어릴 때는 좀 인내력이 부족하지만 크면서 어른이 되면서 아무래도 나도 생각하지만 남도 생각하게 되고 또 내가 예전 같으면 화를 내거나 뭐 이렇게 폭발에서 상황을 또 좀 참기도 하고 그런 거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도 동의를 해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서 햄은 “참는 것”에 대해 다시 설명하였다. 그는 참는 것이란 “인내의 개념”이 아니라 모호함을 참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후 유경은 좀 이해가 된다고 했고, 순영은 참는 태도만 가진다고 해서 어른이라고 할 수 없다고 웃으면서 햄의 말을 반박하였다. 햄이 계속 설명하자 유경은 그의 관점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햄: 좀 약간 바운드를 넓혀서 참는 게 인내의 개념이 아니고 제가 카톡의 인사말 프사에도 나와 있는 건데 모호함을 참을 수 있어야 어른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유경: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햄: 내가 세상에 옛날에는 모든 게 명쾌하고 내가 이해해야 하는 게 있어야만 그게 직성에 풀렸는데 나이가 들면서는 내가 이해 못 할 거, 이해 범주 밖에 있는 거 진짜 많고 그게 이해가 안 되도 인정하게 되고. 그 모호한 거도 참을 수 있다는 거도 어떻게 보면 참을성의 어떤 바운드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내 태도로 보면 “쟤는 아 그 뭐야 이상해” “이해가 안 돼” “아 쟤는 왜 저래” 막 이런 거 하였다면 나이가 들면서는 좀 더 내가 원하는 어른이고 참을성 있는 사람이라면 도와줄 수 있는 거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요즘 태도만이라도 그냥 “어 그렇구나.”라고 해줄 수 있는.

순영: 태도만이요? 그거 어른이 아닌 거 같은데(하하하)

햄: 당연히 마음도 따라가면 좋지 근데 마음이 따라가지 못하면 최소한 태도만이라도 나를 단도리할 수 있는 게 어른인거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는 게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표출하지 못한 사람이었어. 근데 내가 어른이 되면서 표출하는 거를 배워서 하는 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가 참는 거거든요. 나는 내비치지를 못해. 이야기를 못하고 항상 안으로 담아둘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 불편함을 참고 외부로 표출시킨다는 거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성향을 필요에 의해서 무언

가를 참으면서 실행에 나가는 거. 그거들이 이제 어른의 자질이라서 동의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꾹꾹꾹꾹 내 안에서 참과 인내로 인해서 밖으로 들어내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동의 못할 수 있겠지만.

유경: 응응.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정적 자질들을 참아내면서 나를 다듬어나가는 과정들을 참을성이라고 한다면 어른이 되는 과정은 참을성과 인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나 싶은데...

햄의 말에 이어서 니모는 어른스러움이 관계 속에서의 배려심과 이해심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햄은 니모의 관점에 대해 “좋은 말”이라고 칭찬을 보냈다. 순영은 니모의 말에 동의를 하면서 거기에 더 보충하였다. 순영은 어른스러움이 “나를 내려놓는 것”이라고 하였다. 사회자 유경이 “왜요?”라고 물어보면서 순영이 자신의 생각을 상세하게 말할 기회를 가기게 되었다. 순영의 말이 끝나자 사회자가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물었다. 재윤과 민석과 지수가 자신의 관점을 제기하였고 어른스러움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입장들을 나누었다.

니모: 저는 어른스러움이 그런 사실 그런 참을성 인내 그렇게 참아 나의 그런 부족한 면들 이렇게 해내는 거 사실 자기 자신에 집중한 거잖아요. 근데 어른스러움이라는 거 어른이 있고 어린이 있고 이게 상황 존재한다는 게 관계 속에서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저는 관계 속에서 배려심 저는 그게 어른스러움이

햄: 배려?

니모: 배려와 이해심으로(햄: 좋은 말이네) 상대를 대하는 게 저는 어른스러움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혼자 자기만

순영: 응. 맞아

햄: 아직은 투스텝으로 못 가서 그래 수신이 안 돼서 그래요.

니모: 자기에만 집중하기보다 그냥 사회 안에서 사람들 관계 속에

서의 모습이(햄: 맞아요) 조금 더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순영: 저도. 어른이 되는 건 나를 내려놓는 거

유경: 어~ 왜요?

순영: 그게 제일 어른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어떤 해석이든지 자기가 가입해서 자기 기준으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조금 배려나 이런 거하고도 약간 통할 거 같은데 그냥 조금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나의 기준이나 이런 걸 조금 밖으로 빼놓고 말한 사람 자체가 거기에 개입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거. 가능할 거도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든 거 같아요. 나를 뺀다고 하는 거. “어디서든 나를 뺀다고 하는 게 살면서 죽을 때까지 제일 못하는 숙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걸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부분에서든 나를 놓지 않을 테니까 무조건 희생적이고 이러라는 게 아니고 그냥 나란 사람이 걷어진 채로 다른 거를 바라보고 그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게 그게 제일 어른스러움인 것 같아요.

유경: 다른 분들은요...?

다음으로 재윤이 자기는 나이 먹었지만 성숙해지지 않은 것 같다는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어른스러움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관점을 제기하였다. 이에 민석이 “나이가 들면서 성숙해지고 좋은 모습으로 발전하는 것이 환상이라고 생각한다. 민석이 자신의 경험과 책 속 주인공인 영초롱과 고모의 이야기를 토대로 자신의 관점을 전개하였다. 지수도 어른스럽다는 단어가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

재윤: 제가 봤을 때는 어른은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어가지고 일단 자기만 이제 기준을 가지고 가는 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기준을 가지고 감에 있어서 내가 좀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다른 사람 이야기 하는 걸 좀 경청해서 그 장점을 좀 받아들일 수도 있는 유연함을 가질 수 있는 거도 중요한 거 같고 그리고 상대편을 내 기준이 아니라 그 사

람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좀 밀려가는 게 조금 한 단계 좀 된 어른스러움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자주 해요.

순영: 여유가 있어야 나를 내려놓을 수 있을 거 같아요.

민석: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긴 하는데 (유경: 괜찮아요) 나이가 들면서 뭔가 성장하고 뭐 성숙해지고 좋은 모습으로 발전하고 이런 거는 요즘에 환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경: 아. 맞아) 왜냐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게 제가 20살 때 굉장히 형 누나들이 27살 정도 되는 (유경: 진짜 좋아하셨나봐) 에에 이야기 몇 번 했던 거 같아요. 근데 그 생각을 왜냐하면 내가 27살 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 그렇게(햄: 맞아요) 그런 사람이 안 된 거 같아요. 그 생각을 27살부터 했는데 지금 제 나이가 37이거든요. (여러 명: 하하하)

민석: 아직도 저는 그 20살 때 봤던 27살 형 누나들의 그런 멋있음을 닮지 못한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 아까 햄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주인공이 그 어린일 때 어른인 고모를 어른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면 주인공 영초롱이도 그 시절의 고모보다 나이가 많은 시점에서 판사가 되고 아마 비슷한 시절이나 나이가 많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 시점에 그 영초롱이가 그러면 나는 그 당시에 고모만큼 성장하고 멋있어졌을까 느꼈을까 라면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햄: 그죠) 여전히 자기는 부족하고 더 성장해야 되고 그렇게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대적인 부분에서 어린이란 것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내가 나이가 먹고 내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항상 성숙해지고 성장이 되고 그런 거는 아니라고 저는 아직도 20살 때랑 20살 때처럼 그러니까 어리다, 젊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20살 때처럼 부족하고 못나고 그런 감정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해소되는 거처럼 느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성장을 해야 된다는 환상 때문에 스스로를 얽맬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수: 그 저기 민석님 이야기 속에서 고모는 과연 그 나이 때 자기가 어른스럽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그랬을 거 같아요. (햄: 그거는 그렇죠) 그리고 저도 약간 저는 어른스럽다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느껴지는 느낌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사실 어렸을 때 보는 어른들의 모습은 약간 오히려 배려보다 아집이 있거나 내 자신 이렇게 사실은 나이가 더 많아질수록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내 주관에 갇혀 있는 경우나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서 추적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시선이 이렇게 좁아지는 거나 이런 거들도 많아서 어른스럽다는 단어가 늘 좋게 다가오지 않는 거 같아요.

햄: 응 워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도 다양해지는 거 같기는 해.

순영: 이상적인 어른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어른스럽다는 단어에 대한 생각보다는.

여기까지는 다들 어른스러움에 대해 더 이상 보충할 말이 없는 것 같아 보여서 유경이 다시 화제를 “인물” “관계”로 이끌었다. 화제는 책속에 인물인 엘리사벳 때문에 누가 사과를 깎아야 되는지로 옮겨갔다. 햄이 관심 있어 하는 포인트는 “판사” “위계문제”에 있었다. 유경과 지수는 “여자 판사” “성차별”에 두었다. 민석이 쌍방 토론의 포인트를 다르다는 것이 느껴지면서 중립하는 입장에서 양쪽의 주장을 다시 설명하였다.

이후 쌍방은 “판사”냐 “여자판사”냐의 문제에 대해 계속 논쟁하였다. 논쟁 끝에 햄이 상대방의 관점을 인정한다고 하였지만 서로가 동의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느껴졌다. 햄은 “내가 깎을게요.”라고 농담을 하면서 이 화제를 접었다. 다들 웃었고 유경이 “순영님으로 넘어갈게요.”라고 하면서 순영으로 넘어갔다. 순영이 “관계”, “법복”, “이해”에 대해 자기의 생각을 나눴다. 유경이 순영의 화제에 이어서 “고모”와 “이규정”의 관계는 동성애인지 아닌지에 대해 사람들한테 물었다. 동성애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이 많은 관점을 제기하였다.

3) 마무리 단계

10~20분이 남았을 때는 마무리 발언 단계로 들어가야 될 시점이다. 사회자 유경은 “마무리 발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좀 짧게. 민석님부터 들어갈게요.”라고 하였다. 참석자들이 민석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마무리 발언을 진행하였다. 마무리 발언은 보통 토론이나 책에 대한 평가가 많다. 책 속에서 인상적인 글귀를 나누는 경우도 있다.

민석: 사실 저는 한국 문학이 그렇게 익숙한 사람이 아닌데 요즘 한국 문학을 좀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괜찮게 읽었던 거 같고. 다양한 거들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 같아요. (유경: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햄: 우리 몸은 우리 거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책을 읽어도 정보는 정보고. 우리의 정서는 정서인데 한국 문학만큼의 그런 정서적 교감을 이룰 수 있는 게 없고. 옛날에 교감이 안 돼 가지고 힘들었다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순영: 상황이나 뭐나 다 다른데 결국은 그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건 결국은 이 두 사람간의 관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있냐 없냐? 가족도 마찬가지고. 변하던 안 변하던 정답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경: 오늘 어땠어요?) 좋았습니다. (유경: 하하하 나 인정받고 싶어서)(여러 명: 하하하)

재윤: 아 네. 오랜만에 참석해가지고 책 보는 거자체가 좀 좋았구요. 그리고 유경님이 추천해주는 거라 제가 참석을 해가지고 확실히 좀 이게 전문가의 소견이랄까 책을 이게. (유경: 나 칭찬~?)(여러 명: 하하하)

니모: 저는 되게 오랜만에 소설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전에도 아 소설을 읽으면서 되게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이 다르구나를 분명 알고 있었는데 진짜 세상 다시 느끼고 아 여기 앞으로도 당분간 살아가면서 되게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유경: 두 분 자주 좀 오세요~)

미선: 너무 좋았구요. 아까 정말 제가 보지 못하는 거들 다들 알려 주셔 가지고 특히 그 규정과의 관계 다시 보니까 진짜 이게 160쪽에 그 규정이라는 친구랑 사랑하는 모양이라고 나와 있는 거요. 그래서 이걸 내가 왜 못 봤지 하면서 정말 다들 너무 예리하시다. 많이 배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역시 책모임을 해야지 좀 많이 다양하게 접할 수 있고. 다양한 분들의 생각을 들으면서 다채롭게 읽을 수 있는 거 같아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유경: 미선님도 오셨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 되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목소리도 그렇지만 느껴지는 그게 있어요. 책을 좀 많이 읽으신 분이다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좀 자주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미선: 네네. 자주 봬요) 네. 다음에도 1단계 유지돼서 얼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명: (박수 치면서) 네. 감사합니다~

이처럼 이런 비영리 독서모임에서는 모든 활동의 진행이 구성원들의 지지와 기여가 있어야 이룰 수 있다. 물론 다른 참석자들도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도서선정, 발제, 토론 이끌기 등 사회자가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마무리 발언에서 참석자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책이나 사회자에 대해 칭찬을 많이 내보냈다. 사회자도 참석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고 구성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청한다.

Ⅳ. 참여 양상의 분석

독서모임의 유형은 다양하다. 진행 방식으로 나누면 온라인 모임과 오프라인 모임이 있고, 활동 내용으로 나누면 독서를 중심으로 하는 모임과 친목을 중심으로 하는 모임도 있다. 이 중 독서를 중심으로 하는 독서모임은 다시 '같이 앉아서 책 읽기', '같이 토론하기', '수업하듯이 책 다루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러 독서모임 중 프리책은 "진지함", "깊이", "재미"라는 정체성을 갖고 시작하였다. 앞서 Ⅲ장에서는 프리책의 기본 상황, 프리책 구성원들의 이야기, 모임 진행 과정을 자세하게 알아봤다. Ⅳ장에서는 교육의 눈으로 연구참여자들의 독서모임 참여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참여자들의 참여 양상을 "참여의 유형", "참여의 특성"과 "참여 부진의 원인"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면서 프리책이 가진 특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

1. 참여의 유형

프리책에서 연구참여자들은 각자의 관심과 상황에 따라서 "더 나은 인간"과 "더 나은 사회"를 지향하며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한다. 다섯 명의 연구참여자들의 특징은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햄은 현자가 되고자 하고, 순영과 지수는 삶을 더 행복하게 살고 싶어 성찰을 많이 한다. 유경은 세월호, 광주민주화운동, 페미니스트, 인권, 동물권 등과 같은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다. 카이는 특별히 관심 있는 분야는 없지만 지식이든, 정보든 감정의 교류든 "뭔가를 얻어가야" 된다는 욕구가 강하였다. 여기서는 이 네 가지 참여의 유형이 프리책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현자지향형

햄은 호방하면서도 섬세하고 외향적이면서도 내향적인 사람을 잘 이해하는 다양한 면들을 가지고 있다. 순영도 햄을 처음 봤을 때는 “화려하고”, “인기를 얻고 싶은 마음이 강하고”, “껄렁껄렁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지만 “책 읽고 대화를 하는데 뭔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런 껄렁껄렁한 사람이 아니구나”라며 바뀌었다고 하였다. 햄에게 보이는 이런 모순적인 특징들은 조화롭게 융합되어 있다. 그 중심에 현자가 되려는 햄의 지향이 있다. 현자라는 인생지향에 대해 햄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거창하게 군자나 현자라고 했지만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싶다는 말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삶이 어느 순간 목적이 없어졌다는 공허나 상실감이 들었을 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자기완성을 목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현명한 판단을 하는 사람, 좀 더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햄에게서 직절적인 느낌을 받으면서 동시에 “좋은 사람이다”, “친절하다”, “유머가 풍부하다”라는 친근감도 느껴졌다. 그러다가 2018년 여름, 프리책 구성원 십여 명과 함께 갔던 피크닉에서 햄이 현자가 되고 싶은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이야기하였는데 그때부터 햄의 모순된 특징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자기완성의 목적”을 항상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하여도 듣는 자는 그 안에 “악의”가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햄은 “인간의 행복은 사람에게서 온다.”라고 생각해서 “만나는 활동을 하고자 동호회를 찾게” 되었다. 그러나 그런 “얕은 친목 도모”의 모임은 햄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 햄이 “무의미한 겉치레식의 얕은 친목 도모에 슬슬 회의가 들기 시작하던 무렵 독서토론 동호회를 만나게 되었다.” 독서모임에 참여하면서 “평소에 하기 힘든 깊이 있는 소통이나 지식의 교류가 너무 흥미롭고 재미를 느끼게 되었다.” 그 이후에 햄은 “정말 좋아하는 활동인 독서토론을 직접 모임으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욕심이 생겼

다.” 어떻게 보면 프리책은 햄이 “현자”가 되고 싶은 산물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햄은 프리책에서의 참여를 통해 “현자”가 되려는 인생 지향을 실천하고자 노력하였다.

> 그래서 독서모임에서 책을 읽으면서 작가의 앞선 생각을 받아들이고 다른 회원들과의 교류나 토론을 통해서 갇히지 않은 생각을 하고 싶었어요. 덕분에 나름 확장된 사고를 하게 되어서 한 걸음쯤은 더 나은 사람에 다가갈 수 있지 않았나 싶구요.

프리책 독서모임 현장에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교육에 관련된 “가르치다” “배우다” “학습”과 같은 말을 들은 경우가 많지 않다. 그 대신 “받아들이다”, “교류”, “토론”, “갇히지 않게”, “사고의 확장” 등의 표현들이 더 자주 사용된다. 나는 햄한테 “우리 모임이 교육이랑 관련이 있나요?”라고 물어봤다. 그는 프리책의 교육적인 성질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교육이라는 것은 본래 평생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교교육만을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입시나 취업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서 그렇지만. 책을 읽고 나누는 일은 당연히 무언가를 배우기 위함이고, 우리 모임도 교육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 성찰지향형

순영과 지수는 반성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두 사람이 반성하는 방향이나 내용, 그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순영은 쑥스러움을 많이 타고 토론을 좋아하지 않으며 말도 많지 않다. 그러나 나는 독서모임에서 순영이 하는 이야기에 많이 공감하였다. 순영은 발언할 때 어떤 거창한 내용보다 책을 어떻게 봤는지, 읽었을 때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어떤 기분에서 어떤 기분으로 전환되었는지, 그래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지 등 사소한 감정들을 자세하게 말하였다. 책을 혼자 읽으면 알 수 없는 다른 사람의 마음이라서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순영은 자기가 말

재주도 없고 배경 지식도 많지 않다고 스스로 반성을 많이 한다. 순영이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서 순영이 어떻게 성찰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 전 <피프티 피플>을 만나고 한 동안 (항상 그러면 좋겠지만)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 관심이 갔고, 더 귀 기울여 이야기를 들으려 노력했습니다. 이야기를 더 들었고, 생각을 더 이해해 보려 했고 그들의 반복적 습관이나 행동 등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착각일지는 모르겠지만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기분도 들었고, 시선을 더욱 따스하게 데울 수 있었습니다. '역시 세상은 이렇게 따스한 온기로 채워가야 해'라는 마음도 들었고, '삶은 서로가 서로에게 바톤을 터치하며 살아가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세상도 코로나로 인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더욱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더 살펴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도 점검해 보는 듯합니다.

순영은 <피프티 피플>을 읽으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였다. "더 관심이 갔고", "더 귀 기울여 이야기를 들었고" "더 이해해 보려 했고"와 같은 행동들로 실천하기도 하였다. 순영의 삶도 이에 따라 더 따뜻해졌다. 순영은 프리책에 참여하면서 책이나 다른 구성원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성찰하고 주변 사람과 함께 더 행복해지려고 한다. "더 나은 인간"의 모습은 순영의 그런 노력을 통해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순영의 성찰이 감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면 지수의 성찰은 이성적인 부분이 더 많다. 순영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성찰하려 한다면 지수는 자기부터 성찰하고 관계를 개선하려고 한다. 순영이 결과를 더 기대한다면 지수는 원인을 찾는 데에 관심이 더 많다. 다음은 지수의 진술이다.

> 가끔 "햄님이 되게 왜 저렇게까지 파고들어서 생각하실까"라고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도 그랬던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면

서. 햄님이랑 다른 결이긴 하지만. 저는 뭔가 문제 상황이 저한테 있다고 가정하고 계속 그 원인을 찾으려고 계속 생각했던 것 같거든요.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서 지금은 좀 덜 해도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 그래도 여전히 전 생각할 수 있는 바운드가 좁은 편인데 우진 씨나 유경님 보면 되게 사회문제 같은 거나 경제나 좀 더 이렇게 넓은 범위의 집단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저는 그거는 아직 어렵거든요, 정치랑 사회 경제 이런 쪽은. 그래서 아직은 제 개인이 있으면 요만큼 정도 나오고 이 넓은 영역까지 아직 관심을 못 쏟는 것 같아요.

현자가 되려고 하든, 자아성찰을 하든, 사회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든, 공부에 욕심이 강하든 간에 우열은 없다고 본다. 자신의 환경과 맥락을 따라서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를 다듬어가는 것은 각자 나름의 의미가 있다. 지수의 표현 속에는 “더 넓은 영역까지”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은 것은 아쉽다는 자기부정의 말투가 있지만, 관심이 저절로 생길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속마음도 담겨 있었다.

프리책에서는 구성원들이 “시숙(時熟)”[32](조용환, 2012b: 31)하는 과정을 존중하였다. 순영과 지수는 “남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자기를 과도하게 많이 부정하는 성향이 있지만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지를 다른 사람보다 확실히 잘 알았다. 나는 이것을 성찰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성찰을 통해서 더 나은 자신을 찾아내는 교육의 과정 속에 있다.

3) 사회책임형

유경은 책 읽기를 이유 없이 좋아하고 특히 문학을 “마냥 무작정” 아주 좋아한다. “문학은 뭘 얻으려고 읽지 않아요. 그냥 좋아서 읽어요.”

32) “시숙”에 대해 구체적인 해석이 다음과 같다. “모든 일에는 숙성(incubation)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이데거는 시간 자체가 싹트고 자라고 영글어 감을 ‘시숙’이라고 표현하였다.”(조용환, 2012b: 31)

옛날에는 고전을 더 많이 읽었지만 지금은 “가리지 않고” 읽고 있다. 유경은 책 읽는 것 자체를 즐기는 것이다. 또한 유경은 어떤 독서모임에 가입하면 그 모임이 없어질 때까지 참여하는 끈기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특성은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아래는 유경의 말이다.

> 그니까 지금 현재 해결되지 않았거나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세월호도 그렇고. 나한테는 언젠가는 내가 사실은 난 죽기 전에 이런 거들이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성 인권이 나의 후대에라도 나아졌으면 좋겠던 거죠. 그런데 최소한 이런 것들이 밝혀졌을 때 세상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조금은 더 밝아지지 않을까 하는 거.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거는 관심인데. 그 관심인 거예요.

프리책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다. 그 가운데서 유경은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고 행동으로도 많이 실행하고 있다. 2018년 5월, 유경은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지정도서로 추천했고 이를 함께 다뤘다. 외국인으로서 자세한 역사적 내막은 잘 모르지만 책을 읽으면서 함께 그 역사를 회상하고 반성하며 기념하는 일이 내게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역사를 함께 다루면서 한국의 정치적인 이미지가 희미해지는 한편, 한국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한 걸음이 내게 더 다가오는 것 같았다.

유경이 독서모임에서 참석자들에게 노란리본 팔찌와 브로치를 나눠준 적이 있었다. 나는 처음에 그 노란리본의 의미를 알지 못하였다. 유경 덕분에 거리에서 사람들의 가방에 매달려 있는 노란리본이 내 눈에 들어왔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었다. 프리책에서의 만남 덕분에 유경의 관심이 내 관심으로 이어졌다. 유경의 사회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은 “더 나은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다.

> 그런데 아주 가끔 페미니즘에도 관심 가져야 되고, 세월호에도 관

> 심 가져야 되고, 광주민주화운동에도 관심 가져야 되고,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거에도 관심 가져야 되고, 정치적인 거에도 관심 가져야 되고, 동물권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너무 관심 가져야 할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눈을 똑바로 뜨고 보는 사람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니까 학생운동 같은 거를 했을 때에도 이야기했지만 전 맨 앞줄에 섰어요. 전경과 눈을 마주치고 싶었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눈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세상을 좀 똑바로 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술도 안 마시는 거거든요. 취한 눈으로 세상을 보고 싶지 않아서요.

조용환(2001)에 따르면, “교육은 우리가 적응하고 생존하는 방식 자체를 비판적으로 반성하며, 시대와 사회를 통틀어 인류가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그에 입각하여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는 삶의 형식이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큰 사업이다.”(p19) 교육의 사명은 거창하다. 하지만 유경과 같은 사람의 관심과 실천이 있어서 지금 우리 시회의 심각한 문제도 훗날 해결될 거라는 희망이 있다.

> 그래서 술도 안 마시고 늘 눈을 똑바로 뜨고 보고 있는데 누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너 너무 힘들지 않느냐고. 이 이야기를 누군가 나한테 해 줬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아주 가끔은 눈을 감고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닉네임을 ‘눈을감은’으로 정했어요. 세상이 모든 부조리함을 내가 다 감시하고 내가 볼 수 없어. 내가 너무 지칠 때는 “아주 가끔은 눈을 감아도 돼”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내 스스로 해 주고 싶었어요.

유경의 닉네임은 “눈을감은”이다. 유경은 무슨 일을 하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다. 프리책에서 진행자 역할을 하는 것도 책 선정부터 진행 방식까지 요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잘 하려고 스스로 책임을 떠맡는다.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그래서 누군가가 “너 너무 힘들지 않니”라고

하면서 유경을 걱정하기도 하였다. 그때 이후에야 유경이 “아주 가끔은 눈을 감고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닉네임을 “눈을감은”이라고 붙였다. “눈을감은”이라는 닉네임은 “아주 가끔은 눈을 감아도 돼”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그 속에서는 끝까지 견지하겠다는 유경의 결심도 보인다. 유경과 같이 “더 나은 사회”의 꿈을 품고 독서모임에서 함께 대화를 하는 것이 다른 구성원에게 교육적인 의미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유경 자신도 그 과정에서 많이 배우게 될 것이다.

4) 공부욕구형

카이는 공부에 열정적인 사람이지만 정해진 틀에 갇혀서 공부하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 시험을 볼 때도 교과서에 제공해 주는 정답을 쓰는 것 대신 자기의 관점을 논술하는 답안을 작성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래서 대학교 학점이 좋지 않았다. 또한 책을 읽고 친한 친구랑 논쟁하거나 책 내용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을 많이 시도하였다. 카이는 책이나 독서모임을 통해 공부하거나 발전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그런 욕구가 있어 카이는 스스로 독서모임에 찾아왔다.

> 응... 그러니까 지식뿐만이 아니라 책을 통해서 내가 발전이 되어야겠죠. 물론 재미있는 책이 있어서 웃고 넘기는 책들도 있겠지만 내가 거기서 어떤 지식을 얻을 수도 있고,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간접 경험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내가 못 느끼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함으로써 그들의 감정도 제가 배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 앞에 세 가지는 저 혼자 책을 보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느낌이나 감정은 다른 사람을 만나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카이는 책을 통해서 지식이나 정보, 혹은 간접 경험을 얻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느낌이나 감정은 다른 사람을 만나봐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카이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소통을 통해서

알아보게 되는 것을 “배운다”라고 표현하였다. 카이는 지식이나 정보뿐만 아니라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알게 된 것이라면 모두 “공부한다”는 범주에 포섭하였다. 어떻게 보면 프리책에서 카이가 다른 구성원보다 “공부”, “배우다”라는 말을 더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원인은 아마 카이가 전통 학교교육에 반항하면서 공부해 왔기 때문이다. 다른 구성원에게 “공부”를 이야기하면 “수업”이나 “학교”를 떠올리는 것과 달리 카이에게 “공부”는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는 의미로 이해되었다. 카이는 다른 구성원처럼 모임이나 독서를 엄청 좋아해서 독서모임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카이의 공부 욕구는 프리책에서 만족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인터뷰 도중 카이는 나에게 불만을 많이 털어놓았다.

> 제 생각에는 저는 독서모임을 한다는 거는 책을 읽음으로써 어떤 지식을 얻을 수 있겠죠, 책을 통해서. 그게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어떤 감정의 교류라거나 의견의 교류가 있거나 그니까 제가 뭔가를 얻어가야 돼. 이게 지식으로건 공감을 한 번 해 보건 내지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건. 그게 아니라 그냥 뻔한 이야기하고 끝나고 술 먹고 뭐 이런 모임이 되고, 커플들 생기고 이런 걸 보면서 그냥 다른 모임은 주제가 술 먹는 거라면 여기는 주제가 책읽기일 뿐인거지. 술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중요한 거지. 그죠? 술모임이나 뭐나 이런 걸 보면 골프모임이나 주제는 술과 골프와 책이지만 결국 친목모임인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단인거죠, 책은 지금. 책에 대한 깊이를 추구하지 않는 거 같아요.

“뻔한 이야기 하고” “커플들이 생기고” “책에 대한 깊이를 추구하지 않은 거 같아요”라는 카이의 말은 그의 진실한 소감이라고 본다. 이것은 카이가 관찰한 결과이고 그 속에 카이 자신의 기준을 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카이의 말은 우리가 프리책을 평가하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카이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프리책을 평가할 때 한 사람의 말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연구참여자들의

의견도 함께 고려해야 프리책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다. 그 중에서 모순이나 불일치가 있을 수 있으나 사람마다 배경, 성격, 경험은 다 달라서 프리책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다. 혹은 같은 사람이어서도 시간, 상대방, 기분,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다. 예컨대 카이는 프리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졌지만 다른 모임보다 “공부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골프모임이나 술 먹는 모임이나 그 중에서도 네트워킹을 한다는 거 똑같은데 그 중에 독서모임 그래도 조금 공부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게 아닐까. 저 같은 경우 이제 외국어 모임이랑 독서모임을 좋아하는 거죠. 그냥 놀고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라도 하나 하는 게 낫겠지.

카이는 공부 욕구가 강하고 계속 더 나은 자신으로 발전하고 싶어 하였다. “우리는 교수나 학습이 있다 없다는 구분을 ‘의도’와 ‘과정’으로 판단해야지 ‘결과’로 판단해서는 곤란하다. (중략) 어떤 활동이 교육인지 아닌지 여부를 결과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조용환, 1997: 36) 이를 카이를 중심으로 분석하면 그는 프리책에서 얻을 것은 없지만, 그는 공부하려 시도하는 과정에 있다. 즉, 프리책은 카이에게 필요한 공부를 제공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공부를 제공하려는 의도는 갖고 있는 것이다.

카이의 사례로 프리책의 교육적인 의미를 부정하는 것에 집중한다면 이것은 “창조를 위한 부정”(조용환, 2012a: 13)이 아닌 “파괴를 위한 부정”(조용환, 2012a: 13)이다. 내가 이해한 바로는 “파괴를 위한 부정”은 부정을 위한 부정만 하는 것이고 “창조를 위한 부정”은 부정뿐만 아니라 카이가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자세이다.

지금까지 연구참여자들이 참여 과정에서 드러낸 특징을 바탕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분석하였다. 이렇게 유형화하는 작업을 통해 우리는 연구참여자들을 보다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지만 사람 자체의 복잡성을 간과하게 만들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덧붙여 언급하고 싶은 것은 연

구참여자들은 우리가 분류하는 것처럼 지어진 선 안에서 딱딱하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울리면서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햄은 현자가 되려는 특징이 제일 뚜렷하지만 지식에 대한 욕구도 적지 않다. 순영과 지수는 자아성찰을 많이 하지만 다른 사람이 사회문제를 거론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유경은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지만 자아성찰도 많이 한다. 카이는 공부욕구형으로 분류되었지만 사실 모든 분야에 관심이 많다.

연구참여자들 이외에 프리책의 다른 구성원들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여기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힐링” “교양” 등을 추구하는 유형도 있다. 그리고 사교나 친목이나 연애 목적으로 프리책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목적을 주요 목표로 삼는 사람은 프리책 활동에 오래 참여하지 못한다. 프리책은 독서 위주의 모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리책에 사교, 친목, 연애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것은 구성원들이 독서나 교류나 소통을 하면서 어울리다보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파생물이다.

2. 참여의 특성

앞서 다섯 명의 연구참여자들이 무엇에 관심이 많은지, 독서모임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고자 하는지 살펴보았다. 배경, 성격, 습관 등 서로 다른 사람들이 “더 나은 인간” 또는 “더 나은 사회”를 지향하며 프리책에서 만났다. 조용환(2001)에 따르면 교육은 “‘만남(communication)’을 통해 최선의 공존 방식을 더불어 모색하는 ’공동체 형성(communization)’의 과정이다. 교육이 지향하는 인간은 부단한 반성을 통해 능력과 품성의 향상을 추구하는 인간이며, 다른 사람들과 단순히 ‘함께 있는 (being together)’ 존재가 아닌 어울려 나아가는(becoming together)’ 존재이다.”(p.2) 만남이 공동체 형성의 시작이라면 더불어 모색하는 것은 공동체 형성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단순히 ‘함께 있는 (being together)’ 존재가 아닌 어울려 나아가는(becoming together)’ 존재이다.” 이 절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참여 양상을 바탕으로 프리책 구성원들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분석하도록 하겠다.

1) 자발성 vs 강요성[33)]

(1) 자발성

“프리책”이라는 명칭에 대해 햄은 “Friday Reading Books를 줄여 금요일에 진행하는 책 읽는 모임이라는 의미와, 책을 매개로 프리하게 토론하는, 경계와 제한이 없는 모임임을 강조하는 중의적 의미로 지었다.” 라고 하였다. 햄은 모임장으로서 프리책의 “자유로운 소통”이라는 방향성을 정하였다. 가입, 참석, 탈퇴 모두 완전 자발적인 것이다. 모임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3무 정책”을 만들기도 하였다.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었다. “자소서 작성 요구 등, 어떠한 형태의 불필요한 강요도 없습니다. 본인의 자발적 의사를 기반으로 하겠습니다.” 이처럼 자발성이 프리책의 기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자발성”이란 “남의 교시(敎示)나 영향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기 내부의 원인과 힘에 의하여 사고나 행위가 이루어지는 특성”이다. 이에 유경은 지금 세 개의 독서모임에 참여하고 있는데 프리책이 다른 모임에 비해서 더 자발적이라고 평가하였다.

---

33) 처음에 프리책이 왜 이런 대립된 모습을 보이는지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원론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프리책 현장으로 집중하면 자발성과 강요성이 서로 대립의 독립적인 관계보다는 서로 어울리면서 전체를 형성하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태극의 음양과 유사하다. 보통 우리가 음과 양이 서로 대립된 원소로 보고 있지만 음과 양이 함께 태극의 전체를 구성하는 면을 간과하기가 쉽다. 그리고 음과 양의 구분이 명확하지만 사실 음과 양 사이에 명명하기가 어려운 모호한 지역도 존재한다. 프리책의 참여 특성 사이에도 그렇다. 그러나 시간과 자료의 한계로 그 점을 깊게 다루지 못하였다.

되게 사람들이 대부분 다른 모임들이 그냥 책 이야기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인데 프리책은 뭐를 하려고 해요. 그니까 지수님 같은 경우도 우리 단톡방을 만들면 어떨까요라는 식으로 어떤 의견을 막 내주시고. (중략) 사람들이 적극적인 거 같기는 해요, 사람들이. 그런 거를 누가 이야기했을 때 "아, 난 싫어" 막 그냥 그렇지 않고 "그러면 한번 해보자" 이런 거 있는 거 같아요.

재미있는 것은 자발성이 사람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드러난다는 점이다. 햄의 경우 프리책 독서모임을 자발적으로 만들고 적극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다면 유경의 경우는 책을 선정할 때 신경을 많이 쓴다는 점에서 자발성이 나타난다. 유경은 "예전에는 제가 6개월치 책을 미리 선정해 놓고 하나하나 다 파악을 했었거든요. 어느 순간에는 그게 무의미하다는 걸 깨달아서 요새는 두 달 전에 선정을 해요. 한번 읽고 '아, 이 책 되게 좋다'고 선정하는 거 아니고 다섯 권 정도는 읽고 그 중에 1권을 선정하는 편이에요."라고 하였다.

<자료 1> 순영이 그린 <피프티 피플>인물관계도

순영은 쑥스러움을 많이 타서 나서서 사람과 마주치는 일은 못한다. 그러나 모임후기, 활동기획, 장소 안내, 지정도서 목록 정리, 책 내용 정리 등 적성에 맞는 일들을 누군가의 요구 없이도 적극적으로 한다. 지정

도서 <피프티 피플>을 읽을 때도 등장인물이 많아서 인물관계가 복잡하니까 사람들이 더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손으로 인물관계도를 그려 나눠주기도 하였다. 또 손 글씨를 알아볼 수 없을까봐 다시 컴퓨터로도 작성하였다. 시간을 많이 걸리고 쉽지 않은 작업이다. 지수의 경우는 좋은 책을 발견하면 프리책 구성원들과 나누고, 모임활동 사진을 찍는다. 또한 토론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프리책에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의한다.

위와 같은 연구참여자들의 행동들은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 자발적으로 하는 일은 적극성을 항상 수반한다. 프리책은 위의 연구참여자들만 자발적인 것은 아니다. 다른 구성원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프리책 공동체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송년회 모임에서 햄과 순영이 음식을 사오기로 했지만 누군가는 케이크를 사 오고 또 다른 누군가가 손수 만든 에그타르트를 가져왔다.

독서토론을 할 때에도 한 사람이 공책을 안 가져와 냅킨에 필기할 때 평소에 조용해 보이던 사람이 덤덤히 자기의 공책에서 한 장을 뜯어내 그에게 건네주었다. 또한 내가 숫자를 잘 알아듣지 못해 페이지를 찾지 못할 때 옆에 앉은 사람은 내게 가르쳐 주었다. 이처럼 프리책에는 외향적이고 친절한 사람도 많지만 내향적이고 마음이 따뜻한 구성원들도 자주 만날 수 있다. 각자 다른 방식으로 프리책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사실 프리책 구성원들이 “공동체 형성”이라는 학술적 용어를 염두에 두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다들 편하게 참여할 수 있으면 하는, 프리책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2) 강요성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자발성은 좋은 것이고 강요성은 나쁜 것으로 여긴다. 정적(靜的)으로 보면 대부분 상황이 그러하다. 그러나 공동체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므로 서로 어울리는 과정에서 무수한 변수가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송년회 모임을 할 때 스무 명 중 서너 명이 자발적으로 물품을 챙겨오면 다른 참여자에게 부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열 명이 넘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확실히 “나도 챙겨 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서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 그 부담감을 느끼기 싫어서 아예 안 나타나거나 혹은 다음에 물품을 챙겨오는 행동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겉으로 보면은 자발적이지만 실제로는 강요가 잠재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의식한 것 같던 햄과 순영은 프리책에 대해 애착이 많지만, 독서토론 할 때 물품을 챙겨온 적이 없었다. 그들은 책이나 토론에 관련된 내용만 열심히 마련해 주는 것이다. 자발성이 강요성으로 전환될 수 있는 현상은 도서선정에도 보인다. 유경은 책을 선정할 때 누구보다도 고심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유경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책 선정할 때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이게 제일 스트레스 받아, 책 선정할 때. 왜냐하면 책을 선정했는데 누군가 나한테 물론 책이 좋아요 모든 사람이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 책이 싫을 수도 있는데 모두 다 이 책을 싫다 그랬을 때 그게 있어요. 그니까 굉장히 고심해서 책을 선정했는데 ‘어, 이 책 별로’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때 좀 상처가 되긴 하는데 그 모든 분들의 입맛을 맞출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나쁘지는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고심해서 선정한 책에 대해 누가 “이 책 별로”라고 할 때 유경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 처음에는 민석을 포함한 몇 명 남성 구성원들이 책에 대해 느끼는 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점점 그런 소리가 없어지고 있다.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도 프리책에서 사라지고 있다. 민석은 모임에 아주 가끔 나오고 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할 때 소심하게 돌려서 말한다. 원래는 민석의 표현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은 민석이 하는 말에 담긴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다. 카이의 참여 부진 원인도 책을 칭찬해야 된다는 분위기와 관련이 있다. 독서토론의 기반이 책인데 책에 대해 솔직하게 말할 수 없으면 모임

전체 분위기가 자유로워지기가 어렵다.

햄은 한국 모임의 특징이 뭔가 규칙을 만들고 자꾸 사람을 통제하려는 경향성이 있다고 하였다. 그런 통제하려는 경향이 싫어서 제한들을 없애려고 프리책이 “상호존중”만 강조하였다. 그러나 모임을 진행하면서 책을 읽지 않거나 조금만 읽고 나오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런 경우에 토론이 제대로 이루지기가 어렵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완독을 목표로 해주세요.”라는 규칙을 추가 하게 되었다. 완독이라는 강요성이 있어서 평소에 혼자 읽지 않거나 완독하기 어려운 책들을 읽을 수 있게 됐다. 마지막 하나는 “불참 시에는 미리 알려 주세요”라는 점이다. 햄은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린 적이 있다.

> 먹고사는 최일선에 서 있는 직장인이기에, 평일 저녁의 돌발적 사정으로 불참하시는 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신청과 취소를 하실 때, 조금만 신중해 주시고 취소 시에는 간략한 사정을 알려 주시는 성의만 보여주시면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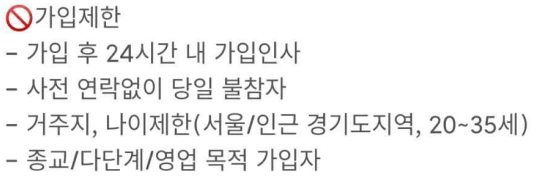
토론의 효과를 고려해서 프리책 독서토론에서 규정한 정원이 있는데 참석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서 정모 생성 몇 시간 만에 만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신청해 놓고 갑자기 당일에 취소하거나 말없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다른 사람의 참석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일에 취소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독서토론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규정은 강요성이 있지만 모임 진행에 좋은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2) 개방성 vs 폐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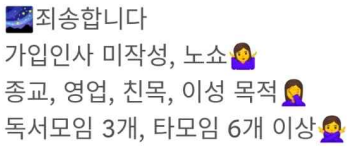
(1) 개방성

프리책의 개방성은 연구자인 내가 프리책에 들어가게 된 중요한 특징이다. 그러나 프리책의 개방성을 분석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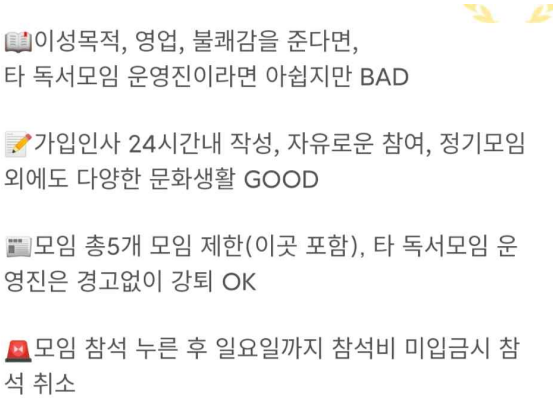
발성은 구성원들의 동기와 행동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고 강요성은 몇 가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방성의 근거는 나의 주관적인 느낌과 햄의 짧은 게시글 밖에 없다. 그 글은 “연령, 직업 등 어떠한 형태의 가입 제한 조건도 없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경계 없는 소통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무(無)’를 논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프리책의 ‘개방성’은 다른 모임의 ‘유(有)’와 비교하면서 분석하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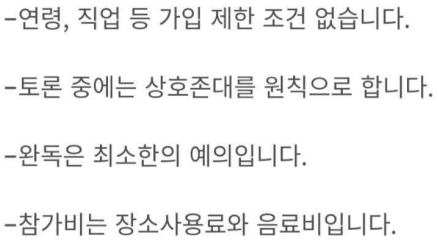
<자료 2> A독서모임 가입제한



<자료 3> B독서모임 가입제한



<자료 4> C독서모임 가입제한



<자료 5> 프리책 가입 주의사항

앞서 이야기한 바 있지만 소모임앱 검색창에 “독서모임”을 입력하면 독서모임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나는 배제법으로 독서모임을 선택하였다. 하나는 독서모임에서 제시한 가입 조건에 내가 맞지 않는 경우 배제하고, 하나는 내 조건에 맞지 않는 모임을 배제하는 식이다. 전자가 후자보다 많았다. 특히 조건에 맞지 않아서 가입하기가 어려운 모임들이 많았다. 나이, 취미, 성격이나 수입, 심지어 외모까지 각종 제한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배제법으로 범위를 많이 줄일 수 있었고 그 중에 프리책이 눈에 띄었다.

<표 6> 독서모임 가입 주의사항

	다른 독서모임(강퇴)	프리책(권유)
가입 주의사항	· 타 (독서)모임 운영진 · 여러 (독서)모임 구성원 · 다른 목적 · 가입인사 작성 · 거주지 · 나이 등등	· 완독 · 상호존대

가입하고 나서 하루 안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다른 독서모임에서 강퇴당할 수 있다. 자기소개서 작성 시 보통 사진을 올려 달라고 한다. 왜 사진을 올려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지만 그렇게 요구하는 모임들이 적지 않다. 가입제한들은 독서모임 운영에 도움이 되는 규정들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가입인사 미작성, 노쇼”와 같은 말투는 차갑게 느껴진다.

그리고 독서모임인데 독서에 관한 이야기가 없고 독서에 무관한 일련의 규정을 설치하는 것이 이 독서모임이 진짜 독서에 집중하는 모임인가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였다. 프리책은 가입 제한이 없고 단지 완독과 상호존대만 강조하였다.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완독과 상호존대는 기본이므로 가입에 아무 문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2) 폐쇄성

프리책은 앞에서 말한 개방성이라는 특성도 있지만 카이의 서술에 따르면 폐쇄적인 면도 있다. “모임 자체가 프리책이 좀 폐쇄적이잖아요. 물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지만 들어와서 남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보면, 그죠? 모이는 사람만 모이잖아요, 지금.” 모임을 할 때마다 한두 명의 새로운 회원이 있었지만 그들 중 남아서 계속 참여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 한 번에 한두 명 정도 오지만 그 사람들이 계속 오느냐라고 봤을 때 안 온다란 이야기죠. 그니까 이들의 대화가 외부인들이 봤을 때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란 이야기예요. 그죠? 느끼기에도 그죠? 새로운 멤버가 없잖아요 여기가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 외부 사람 안 받습니다'라는 폐쇄가 아니라 모임 분위기가 새로운 회원이 오기 되게 어려운 분위기예요.

카이는 "폐쇄적"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프리책의 가입 조건인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라는 개방성도 의식하였다. 그래서 카이는 프리책이 "폐쇄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스스로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라는 개방성을 인터뷰에서 거듭 강조하였다. 카이가 여기서 말하는 "개방성"과 "폐쇄성"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는 "폐쇄"에 대해 "새로운 회원이 오기 되게 어려운 분위기"라고 다시 정의를 하였다. 카이가 보기에 이런 "분위기"의 형성은 "공무원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 가끔씩 회사원분들이 오시면 저는 그 분들이랑 이야기가 되게 잘 통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도 몇 번 나왔다가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모이는 분들 보면 모임 위주가 되는 분들은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교사, 선생님이나 공무원의 모임이 되죠, 거의. 그래서 저는 약간 "대화의 다양성, 의견의 다양성 많이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이는 "다른 장소에서는 다들 저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보지만 프리책에서는 이질감을 많이 느꼈다."라고 하였다. 그는 프리책에 참여하는 "회사원"들과 대화할 때 "잘 통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몇 번 나왔다가" 안 나오게 되는 것이 너무 아쉽다고 한다. 그가 보기에 회사원들이 떠나며 "공무원 위주로" 돌아가고 있어서 "대화의 다양성"이 떨어진다고 하였다. 이런 대화의 단일화 추세는 상이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흥미를 저하시켰고, 이는 결국 탈퇴로 이어졌으며, 그들의

탈퇴는 대화의 다양성을 더욱 떨어지게 만들었다. 프리책은 이렇게 악순환에 빠진다. 카이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공무원과 교사만 남는 다는 게” 아쉽다고 하였다.

> 저는 그래도 중간 중간에 활동을 열심히 하던 다양한 백그라운드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물론 저도 그 중의 하나지만 점점 그 사람들이 없어지고 공무원과 교사만 남는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저희 정말 전업주부 가정주부도 있었고 영화 쪽에 일하시던 분도 있었고 그 분도 되게 재미있고 다양한 이야기를 해 주시던 분이고. 또 세무사, 회계사, 의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은 되게 조금 pratical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나쁜 놈들이 되어 가는 거예요.

“대화의 다양성”이 부족한 현상을 더 깊게 따지면 회사원들의 “현실적인 이야기”와 공무원들의 “아름다운 이야기”의 갈등이 나타난다.[34] 카이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프리책에서 “나쁜 놈들이 되어 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카이는 자기도 그 사람들 중의 하나라고 하였다. 그가 아쉽고 “무시하고 나와 버리”는 방법을 선택했지만 그래도 프리책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 서너 번 나오다 안 나오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요, 여기서. 아니면 저처럼 무시하고 나와 버리면 되는 건데, 저는 지금 같은 마음자세를 갖기 전부터 이렇게 좀 친목관계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쓴 소리도 하고 막말도 하고 하는데 그분들은 내가 뭐 이 모임에 처음 나왔는데 그런 이야기할 필요 없죠. 그냥 안 나와 버린 거지.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아쉬워요. 그분들이 계속 나왔더라면 이 모임이 좀 더 다양화됐을 텐데 결국은 공무원과 교사들의 모임이 되 버렸잖아요 정말 지금.

34) 여기서 말하는 “회사원”과 “공무원”은 카이의 낱말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다. 카이가 말하는 “회사원”은 회사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나 교사 같은 안정적인 직업 이외에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을 통칭하고 있다.

사실 연구참여자들을 포함한 대부분 구성원들은 프리책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과 기대가 있다. 완독과 적극적인 토론이 기본이고 스스로 성찰과 모색도 많이 한다. 지수는 프리책에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순영은 토론에 다양한 입장이나 시각이 부족할까봐 카이와 같은 사람을 껴서 프리책을 함께 만들라고 건의하였다. 유경의 경우는 책 선정에 신경을 많이 쓰며 진행 방식도 자주 성찰하고 보완한다. 햄은 모임이 오래되면서 매너리즘에 빠질까봐 성찰과 새로운 시도도 많이 한다. 또한 카이는 프리책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했지만 그는 프리책이 없어지길 바라는 게 아니라 프리책이 문제점을 해결해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크다.

조용환(2012)에 따르면, “교육은 ‘함께 더 나아짐(becoming better together)’을 모색하는 일이다. 혼자 하는 공부는 위험하다. 다양한 입장, 다양한 시각, 다양한 지혜를 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의 나음과 모자람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야만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듯이 모든 교육은 반드시 상호이해, 상호존중, 상호협력의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습공동체, 교육공동체가 살아 있는 교육이 교육의 본질에 부합하는 교육이다.”(p.26) 프리책은 이런 학습공동체를 지향하는 독서모임이다. 지금 이 상태의 프리책은 어떤 구성원에게는 충분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더 개선될 필요가 있다.

3. 참여 부진의 원인

1절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독서모임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나가고 싶은지를 살펴보았고, 2절에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프리책 구성원들이 어떤 모색을 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특성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연구참여자들의 “더 나은 자신”과 “더 나은 사회”를 지향하는 진지함을 부정할 수 없지만 소통에 폐쇄적인 분위기가 있다는 것도 확인하

였다.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들도 분명히 있다. “더 나음”의 독서모임을 찾기 위해서 참여 부진의 원인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 절에서 연구참여자 카이가 서술한 내용을 근거해서 그가 왜 이 모임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35]

1) 솔직한 이야기의 문제

프리책의 초창 멤버는 4명이고 카이도 그 중의 한 명이다. 카이는 처음부터 운영진으로 참여했지만 카이의 말대로 “운영진이지만 가장 열성적이지 않은 운영진”이었다. 이는 카이가 독서나 독서모임에 “목을 매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도 있지만 모임에 가는 것이 “시간 낭비”가 된다고 느끼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시간 낭비”라고 느끼는 첫 번째 원인은 프리책 독서모임의 솔직한 이야기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해 카이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저는 사업가이므로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는 공무원으로서, 그들이 느끼는 바를 좀 솔직하게 해 준다면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식이 될 수도 있고 감정이나 의견의 공유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들이 자기 의견을 솔직히 이야기하는 거보다는 그냥 약간 독서라는 취미가 남들이 봤을 때 좀 교양이 있어 보이

35) 다섯 명 연구참여자들 중에 카이 말고 다른 네 명이 다 거의 매번 참여하는 적극적인 구성원이다. 햄은 모임장이고 모임에 쉽게 안 빠진다. 순영은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라서 햄이 나오면 순영도 보통 참석한다. 유경은 책 읽기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독서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지수가 대기업에 다녀서 여가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고 독서모임은 다른 활동보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들이 참여 부진을 하지 않아서 그들에게 참여 부진의 원인을 물어보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가명이나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어도 구성원들이 서로 잘 알아서 어떤 말을 누가 하는 것인지 쉽게 알아맞출 수 있다. 구성원들의 친목한 관계에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아서 그들이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지 않는 이상 연구자가 억지로 캐묻지 않았다. 이것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만 연구자가 참여했던 다른 독서모임에서는 카이와 비슷한 관점을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다. 나 자신도 카이의 말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 더 많은 진술과 사례가 후속 연구에서 보완하도록 하겠다.

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의식하는 게 아닌가? 과연 저 사람의 의견이 진짜 솔직한 의견인가라는 거에 대한 의심이 갖게 시작했고, 그게 좀 반년쯤 계속 되면서 약간 확신이 든 거죠. 그니까 오늘 이런 책을 읽으면서 누구 어떤 이야기를 할지가 너무 뻔히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공감하겠지. 오늘도 다양성을 좀 존중하겠지. 그런데 문제는 저들의 삶을 보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 그니까 이 테이블에서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게 보이는 거죠.

카이는 사람들이 책을 읽고 느끼는 것을 솔직하게 나누면 그것이 공부가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보기에 사람들이 현실적인 이야기보다 “뻔한 이야기”와 “아름다운 이야기”를 더 많이 하였다. 처음에는 카이는 그 이야기들을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설득시키려고 해 보았지만 나중에 “알면서도 딴 소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내가 알려줄 필요가 있나 저 사람도 알 텐데”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대화의 결이 안 맞는 게” 느껴져서 일부러 강하게 생각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하였다. 카이의 결론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는” 모르지만 “어떤 말을 할지는 뻔히” 안다고 하였다. “1, 2년 동안 계속 일치하다 보니까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된 카이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책을 읽으면서 지식을 얻으니까 그러면 저 혼자 읽어도 되는 거잖아요, 책을. 그럼 이제 똑같은 책을 읽고도 내 환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느낌은 다를 수도 있고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도 있는데 우리 독서모임에 그게 되게 똑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똑같은 다른 사람인데도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게 내가 책을 읽으면서 우리 독서모임 사람들이 이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겠구나라는 게 뻔히 그려지고 그게 한 1, 2년 동안 계속 일치하다 보니까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지 뻔히 아는데 뭐. 그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죠. 근데 어떤 말을 할지 알아.

독서모임의 구성원으로서 솔직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도 카이의 괴로움이었다. 그는 프리책에서 이질감을 많이 느꼈다고 하였다. “제가 약간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 속된 사람처럼 재물만 바치는 사람처럼 속물인 거처럼, 감정 교류가 안 되는 사람인 거처럼 이야기를 해요.” 카이가 보기에 직업이 다양한 다른 사람들이 몇 번 나오다가 안 나오는 이유도 그와 비슷하다. “처음에 영화 제작사, 세무사, 회계사, 의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은 되게 조금 pratical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들은 나쁜 놈들이 되는 거예요.”

카이가 프리책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면 “나쁜 놈 취급”을 당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결혼”과 “동남아 노동자”에 대한 화제를 예시로 나에게 토론의 전개 상황을 알려주었다. 카이가 결혼에 “경제력”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다른 구성원들은 돈보다 “사랑”과 “신뢰”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카이가 현실적으로 결혼에서 “경제력”과 “집안”을 고려해야 된다고 주장했을 때 자기가 “나쁜 놈”이 됐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한다. 다음에 인용된 두 단락은 각각 “결혼”과 “동남아 노동자”에 대한 카이의 진술이다.

> 저는 지금 프리책이라는 모임의 콘텐츠에는 솔직히 그렇게 기대하는 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늘 아름다운 이야기만 하잖아요, 교양 있는 이야기만. 어떤 현실적인 이야기보다. 그런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조금 토론도 하고 싶었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면 “결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 그죠? 서로의 집안도 좀 알아야 되고 그니까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은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게 나쁜 놈 취급을 당하고. 사랑이 중요하죠. 신뢰가 중요하죠. 이런 이야기만 나오니까 이게 뭔 소리야 싶은 거죠, 저는.

그니까 대표적인 거지만 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마다 늘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뭐 동남아 노동자에 대한 문제, 난민에 대한 문제. 솔직히 불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불편하다고 나쁜 거도 아니고 그 사람들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은 늘 아름답게 "난민을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상황에 내가 "난민 불편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 제가 인종차별주의자가 되고 나만 나쁜 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 불편한 사람이 더 많아. 그런데 프리책에는 대부분이 받아들여야 된대. 왜? 그게 아름다우니까.

카이가 통계적으로 보면 "동남아 노동자"에 대해 불편해 하는 사람이 많은데 모임에서 "'난민 불편하지 않아요?'라고 하면 인종차별주의자가 되고 나만 나쁜 놈이 되는 것 같아요."라고 말한다. 처음에 많이 싸웠지만 "나쁜 놈"이 되기 싫어서 카이도 나중에 "좋게 좋게 넘어가"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안 돼."라는 규정은 없지만 참석자는 보이지 않는 압력을 느끼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다 결국은 동화(同化)나 순응을 선택하거나 탈퇴를 택해야 한다. 사실 순응을 선택해도 불만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하려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독서모임의 문화가 왜 형성되는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2) 도서선정의 문제

카이는 요즘 작가들이 너무 가볍다고 여러 차례 말했고 과거의 작가와 비교하기도 하였다. "예전 작가 분들 같은 경우는 책을 한 권 쓰려면 정말 5년 10년 공부를 해서 정말 이 사람은 정말 그쪽 분야 전문가인 것처럼 책을 썼는데 요새 작가들을 보면 그냥 인터넷에서 본 거 자기 골방에 갇혀 가지고 자기 상상 속의 이야기로 소설을 쓰고 마는 거 같아요." 카이가 프리책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두 번째 원인은 도서와 관련이 있

다.

그가 보기에 현재 “한국 출판계의 수준 자체가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다.” “새로 나온 책들은 그렇게 좋은 책들이 잘 없지만” 프리책은 계속 새로운 책만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모임에 가면 책에 대해 칭찬을 해야 한다는 것이 카이에게 부담이 된다고 하였다. “내가 느낌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프리책에 나가면 책에 대한 칭찬만 해야 되는 분위기가. 어떤 책을 욕한다는 걸 되게 죄악시되는 분위기.” 카이가 보기에는 프리책의 분위기뿐만 아니라 출판계의 분위기도 “사고가 한쪽으로 매몰됐다”고 하였다.

> 다들 너무 좋았다. 너무 역시 상을 받은 건 다르다 이러는 거예요, 분위기가, 프리책의 분위기가. 제가 이 책을 딱 보자마자 소설판 쇼미더머니(Show Me The Money)인 거 같다고 rap하는 애들이 나와서 배틀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최고 유행하는 거죠. 깊이는 하나도 없이. 그냥 직관적으로 내뱉는 말들. 그리고 가사 내용이 “내가 예전에는 왕따였고 되게 허약한 아이었는데 사실은 내가 겁나 세고 이제부터 복수할 거야. 니네 다 죽었어” 약간 이런 내용이잖아. rap들이. 다 똑같잖아. 젊은 작가상 수상집이 다 똑같아요. 다 페미니즘 이야기, 성폭행에 대한 과거에 대한 입 바른 소리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소설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쓸 수는 있어요. 그게 트렌드고 사회적 관심이니까 그런데 수상집에 그런 책들이 있다는 거는 작가들뿐만 아니라 심사의원들조차도 사고가 한쪽으로 매몰됐다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3) 얻을 것의 문제

카이는 프리책이 “책 자체에 대한 깊이는 가장 높은 모임 중의 하나”라고 하였다. “다른 데처럼 독서모임 하려고 억지로 한 권 읽고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평소에 계속 책을 읽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책에 대해서 풍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아쉬운 부분은” 그 이야기들이 “책에 한정”돼 있어서 얻을 것이 많지 않다는 것

이다. 얻을 것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 카이가 참여 부진의 세 번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 제가 아쉬운 부분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 이야기들이 너무 이야기를 위한 이야기라는 거. 책에 한정된 이야기라는 거. 그니까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다고 하면은 내가 이걸 실생활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그게 아니래도 나라면 이 상황이 어땠을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 각자의 배경에 따라서. 그런 게 없다는 거잖아. 그냥 철저하게 이 책 이야기만 하고 끝나버리는. 그니까 책 자체에 대한 깊이는 가장 있는 모임 중의 하나인데 제가 그거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제. 책을 읽었으면 저는 뭐라도 내가 하나 얻어가야 되는 것 같애.

> 그러니까 어떤 지식적인 층면에서 내가 배울 게 많지가 않고 감성적인 감정적인 이런 정서적인 교류에 대해서 약간 가식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되게 기대할 수가 없고. 지식도 감성도 충족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죠 지금. 처음에는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성향 파악이 안 되니까 나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신기하고 재미있고 그랬죠. 그게 매번 다른데 매번 똑같이 달라.

카이는 프리책 구성원들이 좋은 사람들이지만 그와 맞지 않다고 하였다. “착한 사람들이고 좋은 사람들인데 나에게 어떤 지적 호기심을 주지도 않고, 되게 재밌게 해 주지도 않고, 어떤 감성적인 부분들이 공감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저는 솔직히 약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나의 인맥?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와 같은 약간 “노골적”인 표현은 다른 연구참여자들이 절대 하지 않은 표현들이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인맥”으로 여겨지는 순간만 있어도 자신을 반성할 만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야말로 카이와 다른 연구참여자들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 학습 공동체의 의미가 “다양한 입장, 다양한 시각”을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라면 그들의 차이는 높은 가치가 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 카이가 “나쁜 놈”이 되고 다른 연구참여자들이 “가식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서로에게 배우려는 마음을 품고 프리책에 참여했는데 왜 소모적인 대화가 됐을까? 과연 그들 사이에 의미 있는 교류를 이루낼 수 없을까?

Ⅴ. 해석 및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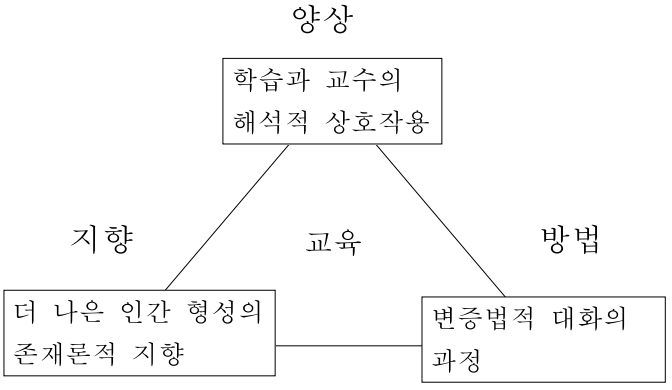
프리책의 교육적인 면이 “더 나은 자신”과 “더 나은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라면, 솔직하게 표현할 수 없는 문화는 프리책의 교육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문화와 교육의 상호작용 역시 갈등으로 인한 악순환(惡循環) 고리를 형성하지만,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는 양자가 상생하고 보완하는 호순환(好循環) 고리를 형성하기도 한다.”(조용환, 2001: 22) 바꾸어 말하면 프리책 내부에 문화와 교육의 상호작용이 악순환 고리에 어느 정도 빠져있다고 볼 수 있는 것다.

Ⅲ장에서 우리는 프리책 독서모임의 기본 상황을 살펴보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양상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Ⅳ장을 통해서 알아보았다. 그러나 Ⅳ장에서 남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프리책 독서모임에서 소통의 한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Ⅴ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자 하는데 그 전에 교육인류학의 눈으로 독서모임의 교육적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조용환(2001)에 따르면 교육인류학은 갈등-상생하는 문화와 교육이라는 삶의 두 형식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기에서는 문화와 교육의 강등-상생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겠다.

1. 집단독서의 교육학적 의미

이번 절에서는 프리책을 중심으로 집단독서 속에 담겨진 교육학적인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교육에 대한 정의는 많지만 여기서는 조용환(2021)이 제기한 “더 나은 인간의 형성”, “변증법적 대화의 과정”, “학습과 교수의 상호작용”이라는 교육의 세 가지 본질을 빌려서 집단독서의 교육적인 의미를 탐색하겠다. 여기에서의 세 가지 본질은 각각 “지향”, “방법”, “양상”과 대조를 이루다. 조용환(2021)은 이 관계를 다음과 같이

그렸다.



<그림 1> 교육의 본질(조용환, 2021: 82)

1) “더 나은 인간 형성의 존재론적 지향”

우선 “더 나은 인간 형성의 존재론적 지향”부터 살펴보겠다. Ⅳ장에서는 프리책 독서모임 구성원들을 “현자지향형”, “성찰지향형”, “사회책임형”, “공부욕구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네 가지 유형은 다시 “더 나은 자신”과 “더 나은 사회”로 분류할 수 있다. 주의할 만한 점은 그들이 독서모임에 참여하기 전에 이미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독서모임이 아니어도 그들이 삶에서 “더 나은 인간 형성의 존재론적 지향”으로 살아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햄이 언급한 것처럼 “너무 일상적인 소통만을 하다 보면 가끔씩 비일상적인 순간을 갖고 싶고,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순간이 오는데 요즘 사람들이 특히 진지한 이야기하면 진지충이네, 이러면서.” 진지한 이야기를 하면 비웃음을 당하거나 소외될 수 있다. 그는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마음 놓고 삶이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없고 이 시대가 “진지함이 약간 배격되는 시대”라고 하였다. 독서모임에서는 일상생활과 달리 책을 사랑하고 좋은 품성을 지향하며 진지하

고도 깊이 있는 교류를 지탱하는 문화가 있다.

문화는 항상 사회 전체의 개념을 다루고 있지만 사실 한 사회 속에도 무수한 작은 문화들이 있다. 친구 간의 문화, 동료 간의 문화, 가족 간의 문화가 똑같지 않다. 다 학교라고 부를 수 있어도 초등학교의 문화와 대학교의 문화는 사뭇 다르다. 독서모임은 완전히 솔직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약자, 빈부, 꿈, 사회, 인류 등 화제처럼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기 좋은 공간이다.

선행연구(최지원·서문기, 2018)에서도 이를 반영하듯 친구, 동료, 가족들과 말할 수 없는 이야기는 독서모임에서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나는 현자가 되고 싶다.”라는 말을 친구에게 말하면 선의의 야유나 무심의 비웃음을 받을 수 있지만 독서모임에서 이해와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이처럼 독서모임의 문화와 친구 간의 문화에는 차이가 있다. 독서모임에서 마음 놓고 삶이나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다. 독서모임이라는 공간에서는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더 나은 자신”과 “더 나은 사회” 지향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독서모임이 가진 교육적인 의미라고 본다.

2) “변증법적 대화의 과정”

다음으로 교육의 “방법”인 “변증법적 대화의 과정”을 살펴보겠다. 조용환(2012a)은 교육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설명이 아닌 이해, 설득이 아닌 대화, 부분이 아닌 전체, 말초가 아닌 근본을 지향하는 방식의 커뮤니케이션”(p.13)이라고 하며 “변증법적 대화의 과정”을 해석하였다. 집단독서의 대화에는 사람과 책의 대화, 사람과 사람의 대화가 있다. 일반적으로 대화란 한 곳에서 대면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말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대화를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책을, 특히 좋은 책을 읽을 때 저자와 대화하는 느낌을 종종 경험할 수 있다. 내가 궁금한 것을 저자가 알려주고 내가 의혹이

생길 때 저자가 간파하듯 설명해 주기도 한다. 책을 읽을 때 고개를 끄덕이면서 저자에게 동의하거나 “아니,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중얼거리는 경우를 경험한 사람도 있다. 이런 대화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 언제든지 소통 가능하다.

그 외에도 책을 통해서 대화하는 과정에서는 신분과 정신의 절대적인 평등도 누릴 수 있다. 듀이는 어르신이고 유명한 교육학자이지만 독자들은 그와 평등한 위치에서 대화할 수 있다. 노벨상을 받은 카뮈 같은 대문호도 현실 세계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책을 통해서 그의 느낌과 관점에 공감하거나 반대할 수 있다. 이처럼 책을 통한 훌륭한 저자와의 대화는 독자의 성장에 교육적인 영향을 미친다.

책과의 대화 외 집단독서는 사람과 사람의 대화에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Ⅲ장 3절에 기술한 것처럼 한 사람이 질문을 제기하면 다른 사람이 이 질문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밝히고 대화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햄은 책 속에 고모라는 인물이 어른스러워서 부럽다고 했을 때 지수는 어느 부분이 어른스럽다고 느꼈는지 물었고 다음으로 “어른스러움”에 대한 화제로 넘어갔다.

햄이 어른스러움은 “참는 거”라고 했을 때 지수는 의아한 말투로 “그래?”라고 살짝 반대 의사를 표하기도 하였다. 사회자 유경은 새로 온 사람에게도 관련 생각을 물어보고 그녀는 햄의 말에 동의하면서 원인을 설명하였다. 햄은 이어서 자신의 설명을 한 걸음 더 보완하고 유경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라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였다. 이후 햄의 발언이 끝나자 니모도 어른스러움이 “관계 속에서의 배려”라며 자신의 관점을 밝혔다. 그리고 순영이 니모의 관점에 “저도. 어른이 되는 건 나를 내려놓는 거”라고 덧붙였다. 재윤이 어른스러움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제기했고 민석이 “나이가 들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좋은 모습으로 발전하는 것이” 환상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대화를 통해 어른스러움에 대한 해석이 더욱 풍부하게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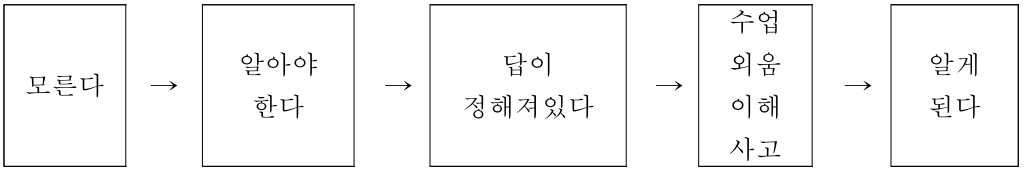
독서모임에는 위와 비슷한 다양한 주제의 토론들이 많이 이루어진다. 대화에서 질문을 제기하고, 설명을 보완하고, 동의와 이의를 밝히고, 차

이를 교섭하는 과정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다양한 시각을 얻을 수 있다. 나아가 독서모임의 대화는 이론 측면에만 머물지 않는다. 학교에서 실제 삶과 거리가 있는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는 것과 달리 독서모임에서는 실제 삶에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담들이 많다. 구성원들이 대화 속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수정 보완한다. 이와 같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학습과 교수의 상호작용”이 드러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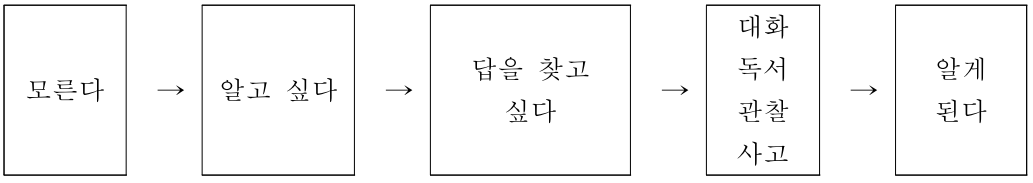
3) “학습과 교수의 해석적 상호작용”

마지막으로 독서모임의 대화에서 드러난 “학습과 교수의 해석적 상호작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집단독서에서 책을 통한 저자와의 대화, 모임을 통한 다른 구성원들과의 대화 외에도 자신과의 대화를 할 수 있다. 책과의 대화, 다른 구성원들과의 대화가 지식을 알게 된 방도라면 자신과의 대화가 지식을 체화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독서모임에서 독서토론이 끝나면 모임은 끝나지만 구성원 개개인의 사고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연구참여자 유경은 자기가 “복기”하는 습관이 있다고 하였다.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자기와 의견이 달랐던 사람은 왜 그 이이야기를 했는지 등 계속 생각한다고 하였다.

다른 연구참여자들도 비슷하다. 예를 들어, 독서모임에서 결혼이나 동남아 노동자에 대한 토론은 몇 년 전에 이미 끝났지만 카이는 이 문제에 대해 계속 관찰하고 생각하였다. 햄도 기본소득을 계속 생각하고 있고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독서토론에서 거론하였다. 나 또한 독서모임에서 사람들이 거론된 화제에 대해 인상을 받았고 토론이 끝난 뒤에도 계속 탐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실제로도 답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 책을 찾아서 읽고 관찰과 사고를 많이 하곤 하였다. 이처럼 독서모임의 학습 과정은 학교교육에서의 학습과 다르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학교교육 학습의 과정



<그림 3> 독서모임 학습의 과정

독서모임과 학교교육에서 이루는 학습의 모형이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전형적인 학습 모형만 그려냈다. 두 과정을 비교해 보면, 모르는 상태에서 아는 상태로 변화하는 방향은 같지만 세부적인 흐름은 같지 않다. 학교교육에 비해 독서모임에서의 구성원들은 학습에 더 능동적이다. 공부를 시키는 사람이 없고 학습했는지를 감독하거나 독촉하는 사람도 없으며 답도 스스로 찾아야 한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시각들을 제공하지만 스스로 판단할 능력을 길러야 한다.

독서모임은 독서와 대화를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지만 “교수자”와 “학습자”의 분별이 학교처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또한 독서모임은 교육을 지향하지만 어느 정도는 반(反)학교의 특징을 보인다. 예를 들어 학교에 학생들을 나이로 학급을 나누지만 독서모임에는 나이의 폭이 넓다. 학교에서는 학생에게 점수를 매기지만 독서모임에서는 평가를 경계한다. 또 학교에서는 “학습”, “교수”라는 말을 쓰지만 독서모임에서는

“알아보게 됨”과 “나눔”을 더 자연스럽게 사용한다.

> 학습자와 교수자는 실존적으로 ‘함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상호작용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교사와 학생이 물리적인 공간에 동시에 함께 있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교육 활동이 일어나는 ‘교육적 지평’에 함께 처(處)해야 한다, 거주(居住)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때 교수자는 사람이 아닌 책 또는 영화일 수도 있고, 음악이나 유튜브일 수도 있다. 시간도 그렇다. 교수자와 학습자가 몸으로 꼭 동시에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오래전에 작고한 부친의 옛 가르침을 뒤늦게 곱씹으며 깨닫고 산다. 백 년도 훨씬 더 전에 살았던 니체와도 그의 저술을 통해서 활발한 교육적 관계를 맺고 있다. 이로써 나의 부친과 니체는 나의 교사요 스승이다.(조용환, 2021: 126)

위와 같은 진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알아보게 됨”과 “학습”이 본질상 같은 성질의 일이다. 한 사람이 모르는 것을 알아보게 되고 기술이나 지식이나 교양을 얻는다는 뜻을 의미한다. “나눔”과 “교수”도 그렇다. 아는 것을 남에게 알려주는 것을 가리킨다. 독서모임에서 “학습”이나 “교수”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학교교육의 형식을 성찰하면서 교육의 다양한 형식을 탐색하는 시도다.

서덕희(2008)가 학교를 탈퇴하고 홈스쿨링을 한 청소년들이 독서모임에 많이 참여하는 현상을 기록하는 것이 이것을 방증(傍證)하고 있다. 우리는 학교와 교육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다(배은주, 2004). 그래서 하위에 속한 학교교육에 적용되는 어휘들로 더 큰 범위의 교육을 규정하는 국면에 봉착할 때가 있다. 기존의 학교교육의 언어체계로 독서모임을 설명하는지, 아니면 독서모임의 어휘들을 교육 언어체계에 받아들이는지를 논의하는 것은 교육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2. 집단독서의 한계

카이는 프리책 구성원들이 솔직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이미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여기에 부분적으로 동의를 한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나쁜 이미지보다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프리책 구성원들도 예외로 보기가 어렵다. 그들도 다른 사람 앞에서 추하거나 나약하거나 이기적인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는 행동과 발언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니모가 자기는 앞 사람이 발언할 때 머릿속으로 자기의 발언을 준비하느라 귀 기울여 듣지 못하였다고 고백했을 때 나는 그 말에 공감하면서도 니모가 매우 용감하다고 생각하였다.

카이가 난민이 불편하다고 한 발언은 옳음과 틀림을 떠나서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왜 난민을 불편해하는지의 문제점을 먼저 알아봐야 그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논리를 알면서도 실제로는 “나쁜 이미지”를 남길까봐 자신의 솔직한 생각들을 모임에서 대놓고 표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독서모임에서도 우리 사회에서도 “왜”를 따지기보다 도덕윤리로 그 화자를 “나쁜 놈”으로 낙인찍는 습관이 있다.

사실 프리책에서 그런 상황에 누가 나서서 “네가 나쁜 놈이다.”라고 그 화자를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 사람을 낙인찍고 만다. 이러한 분위기는 구체적인 어느 구성원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문화가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 나도 니모처럼 다른 사람이 발언할 때 머릿속에서 자신의 발언을 준비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서 듣지 않았던 경험이 있지만 대놓고 말할 용기가 없었다. 이런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이기적인 이미지로 낙인찍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카이가 말한 대로 프리책 구성원들이 솔직하지 못한 원인이 “이미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에 동의한다.

하지만 카이의 말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결혼할 때 뭐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나와 다른 연구참여자들 모두가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돈이나 가정 배경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결혼할 수가 없고 반대로 사랑하면 돈이나 가정 배경이 좋지 않아도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난민이나 동남아 노동자에 대해서도 연구참여자들이 가식을 떠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들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현실 속에서 난민이나 동남아 노동자를 만나서 같이 지내게 되면 불편할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토론에서 그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연구참여자들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순영과 지수 같은 매사에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들은 가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심리적인 부담감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순영과 지수가 솔직하지 못한 이유는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솔직하지 못하였다고 본다. 인터뷰를 할 때 카이가 프리책에서 책에 대해 솔직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상황을 알려줬지만 다른 연구참여자들과 인터뷰를 했을 때는 이런 말을 듣지 못하였다. 특히 순영과 지수는 선정된 책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책을 부정하기보다 자신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근무하는 틈에 너무 빠르게 읽었다고 하거나 개인 취향의 문제로 귀결하였다. 혹은 책에 대해 전체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책 속에 칭찬할 만한 작은 부분을 찾아내고 이야기를 하였다. 아니면 대부분 사람이 그 책이 좋지 않다고 말할 때 그들도 따라서 그 책이 별로인 것 같다고 하였다. 그래서 카이는 프리책에서 “어떤 책을 욕한다는 걸 되게 죄악시되는 분위기”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생각하였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름을 알 수 있다. 모임장 햄은 호방하고 진솔한 사람이라서 평소에는 느낀 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다. 어떨 때는 그의 솔직함이 참석자들의 공감을 일으켜서 폭소를 터뜨리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몇 가지 상황에서 그가 솔직하게 생각을 밝히지 않는다는 것도 느낄 수 있다. 예를 들면, 햄은 신세[36]를 많이 진 사람과 의견이 다를 때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는 편이다. 또 여성보다 남성에게 말할 때 더 직설적이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별 요소가 있을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성격 요소와 더 많은 관련이 있다. 햄은 쑥스러움을 잘 타거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과 대화할 때 조심하는 반면 호방하고 자신의 생각을 숨김없이 밝히는 사람과 의견차가 있을 때 끝까지 논쟁한다. 또 하나는 잘 아는 사이와 잘 모르는 사이에서도 햄이 선택하는 표현 방식과 표현 내용이 달랐다.

문학 지정도서 사회자 역할을 맡은 유경도 독서모임에서 솔직하게 표현하는 편이지만 햄처럼 여성보다 남성과 대화할 때 더 직설적인 경향이 있다. 유경은 햄, 카이, 순영, 지수와 비슷한 시기에 만나게 되는 거지만 그들을 대하는 방식은 다르다. 유경은 햄, 카이와 의견차가 있을 때 자신의 관점을 견지하기 위해서 말싸움도 많이 하였다. 그러나 유경이 순영, 지수와 의견차를 보일 때는 거의 없다. 반대로 순영, 지수가 유경의 관점에 대해 반대 의견을 드러낼 때도 많지 않다.

나는 햄과 비슷한 점이 많으며, 그 외에도 말재주가 없고 상대방의 진술을 이상하다고 느껴도 어디가 이상한지 항상 뒤늦게 의식하게 되는 원인도 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항상 뒤늦게 알게 돼서 대화에서 사람과 관점이 다를 때 “내가 좀 다르게 생각한다”는 말 외에 건설적인 원인을 바로 제공하기가 어렵다. 점점 고집이 세고 일부러 말대꾸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좌절감, 민망함, 무력감, 억울함 등 여러 가지 정서들이 섞어온다. 그래서 나도 나중에는 반대 의견을 밝히는 것을 포기할 때가 많다.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한국 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편견으로 그 책을 평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답답하지만 나는 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숨기고 침묵하거나 좋은 평가만 할 때가 많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책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진솔하게 말할 때 그 사람을 우러러보기도 한다. 처음에는 책에 대해 비판을 하는 사람이 몇

36) 예를 들어 독서모임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소 찾기, 카톡방 만들기, 사회자 역할을 하기 등 여러 가지 협조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 사회자 역할을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 햄은 사회자 역할을 맡은 사람과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설명하는 것보다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을 선택하는 편이다.

명 있었지만 일부는 탈퇴했고 일부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또 일부는 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피하거나 돌려서 말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이처럼 프리책은 진짜 좋은 독서모임이지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가끔 답답하게 만든다.

카이처럼 이러한 분위기를 참지 못해서 점점 안 나오는 구성원도 있지만 그런 분위기에 맞춰 가는 구성원도 많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맞출 수 있는 사람들만 남았기 때문에 프리책의 솔직하지 못한 분위기가 더욱 강화되는 것이다. 나도 그런 분위기에 맞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반감을 사거나 책을 선정하는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우려가 많다. 평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그 책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내놓은 것이지만 실제로는 책 선정을 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진실한 생각을 말하면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거짓말을 하면 스스로가 죄책감을 느낀다. 전체 분위기에 맞춰서 진실한 생각을 숨기거나 돌려서 말하거나 남이 제기할 때 따라서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존의 분위기 속에서 프리책 구성원에게 유일한 방법인 것 같다.

그렇다면 도서선정 방식을 바꾸면 어떨까? 프리책은 2019년 2월부터 9월까지 비문학 지정도서에 추천 및 투표로 책을 선정하였다. 하지만 읽기 너무 어려운 책이나 두꺼운 책이 자꾸 나와서 다시 사회자가 정하는 방식으로 돌아왔다. 사실 좋은 책을 선정한다면 토론이 잘 되지 않아도 시간을 낭비한 느낌이 덜 들 것이다. 그러나 카이가 지적한 것처럼 “출판계의 수준 자체가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다.”라는 문제가 있다. 따지고 보면 출판물의 수준이 높지 않은 원인도 저자들이 솔직한 이야기보다 “아름다운 이야기”, “뻔한 이야기”만 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 솔직한 이야기의 문제가 프리책 뿐만 아니라 학술이나 사회 전체 분위기에도 있는 것이다.

인류학자 샹뱌오(項飆, 2018)는 학술에서 제도화되었던 허위가 있다고 한다. 인류학에서 유명한 추문이 두 개 있는데 내가 보기에 이는 공히 ‘솔직한 문제’와 관련이 있다. 역설적이게도 미드가 사모아 사회를 미화

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말리노브스키가 일기장을 너무 솔직하게 써서 지적을 받았다.[37] 학술대회는 학술을 교류하는 자리이다. 이곳에서 권위가 있는 사람은 진솔하게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다른 의견이 있어도 안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깊이 있는 학술 토론을 만들기보다 표면적인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토론을 건성으로 해치운다.

햄은 항상 "가면을 쓰고 살죠."라고 개탄한다. 그는 솔직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하기도 하였다. 그는 와이프가 요리의 맛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답하겠냐는 것을 예로 들었다. 요리가 맛있으면 아무 고민이 없지만 맛없으면 진짜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나도 다른 상황이지만 요리의 맛이 어떠냐는 질문 때문에 곤란한 적이 있었다. 식당이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신메뉴를 내놓았는데 나와 친구가 그것을 시켰다. 가격이 비싸고 맛이 없어서 다시는 시키지 않겠다고 친구와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직원이 우리한테 맛이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침묵했고 친구는 예의 바르게 아주 맛있었고 다음에 또 시키겠다고 답하였다. 그 직원이 다음 사람에게도 물어봤는데 그 사람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후 그 식당은 경영에 개선이 없어 음식비를 인상했고 영업의 결손을 학생에게 전가하였다. 그런데도 수익에 개선이 없어서 식당과 노조가 많이 싸웠다. 만약 설문조사를 받던 사람들이 솔직하게 의견을 냈다면 개선의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의 분위기가 그들을 더 "안전한" 대답을 선택하도록 만들었다. 사회학자 최재석(1965)은 <한국인의

37) 말리노브스키에 대한 의론이 주로 그가 생전에 출판된 작품에서 원주민을 애호하고 긍정적인 형상이지만 사망한 후에 발견된 일기장에서 원주민을 불만하고 성에 대한 상상이 많고 어떤 사람을 바보, 미친 사람이라고 욕하는 부정적인 모습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이나 현장에서 인간관계의 문제가 누구나 있고 그 문제 때문에 원망을 하는 사람도 많다고 본다. 그가 성적 환상의 대상은 대부분 그의 약혼녀이고 다른 사람이 성적 환상 대상으로 나올 때 그가 일기장에서도 자책을 하고 있다. 생활이나 예능 프로그램이나 소설이나 영화나 남성들 간의 대화에서 그런 환상을 하는 것이 공동의 비밀인 것 같다. 지적하는 사람도 하는 것이면 그만 지적하는 것이 위선자와 다름이 없을 것이다. 작품과 일기장속의 이미지가 다른 것을 지적하는 것이면 오히려 학술 작품에서 솔직할 수 없는 학술계의 문화와 분위기를 재조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성격>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공동체의 존중은 “세상 사람 다 그런데 당신 혼자 고집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말 속에도 잘 암시되어 있다. 이 말은 개중에는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집단의 분위기를 추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는 하나 그도 그 주위의 사람(공동체나 집단의 성원)으로부터 결국 집단이나 공동체의 분위기에 동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충고 받을 때에 사용되는 말이다. 정당한 일이라 할지라도 남에게 체면을 잃는 것을 더 불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남의 표정을 살피게 된다. 언제나 남에게 비쳐진 자신이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과 동시에 반대로 또 언제나 남의 행동에 유달리 관심을 쏟아 여기에 필요 이상의 간섭과 압력을 가하게 되는 것이다.(p.178)

이 책은 오래전에 출판되었지만 오늘날 읽어도 공감되는 부분이 많다. 그 사이에 한국이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경제, 교육, 문화, 예술 등 여러 방면에 크나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저자가 지적한 문제들 중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다.[38] 이러한 문제는 프리책에서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에도 기여를 한다. 프리책에서 솔직하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 구성원들이 서로 접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하지만 구성원들의 행위에는 사회의 문화도 작용하고 있다. 프리책의 작은 문화가 사회 전반의 큰 문화와 상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도 줄 수 있음을 예시해준다. 사회 전체 대(大)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이 더 철저한 방법이겠지만 실천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힘이 적어도 조금씩 움직이면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전체 문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프리책에는 “더 나음”을 지향하는 구성원들이 많으므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

38) 저자가 서술한 대부분 사회적인 현상에 동의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이 효(孝)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주의에 귀결하는 것이라는 데에는 나는 아직은 판단할 수 없어서 유보 태도를 지닌다.

Ⅵ. 요약 및 결론

이 장에서는 앞에서 제기한 연구문제에 대한 연구 과정과 연구 발견을 간략히 요약할 것이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연구의 범위와 한계로 인해 자세히 다루지 못한 주제나 연구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를 후속 연구를 위해 제시할 것이다. 더불어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배움과 어려움, 그리고 반성의 경험을 한 연구자의 체험을 통해 “해석학적 순환”을 정리해 볼 것이다. 조용환(2012c)은 “교육은 학습자의 전이해가 더 나은 새로운 이해로 전환되는 일종의 ‘해석학적 순환(hermeneutic circle)’의 과정”(p.29)이라고 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연구의 과정은 나에게 학습의 과정이자 기회라고 할 수 있다.

1. 요약

독서모임에 참여한 햄과의 대화를 통해 “일일부독서(一日不讀書), 구중생형극(口中生荊棘)[39]”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명언을 알게 되었다.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학교와 부모가 독서를 중요시하고 아이들을 독서를 좋아하게 키우고 싶어 한다. 중국에 독서를 숭상하는 문화가 있어서 나도 독서를 좋아하게 되었고 이는 성장에 큰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생들은 학교를 다닐 때 치열한 입시경쟁 때문에 독서할 시간이 부족하고 졸업하고 나서 밥벌이에 지쳐서 책에서 멀어지기 쉽다.

그러나 한국에 왔을 때 주변에서 독서모임에 참여하는 젊은이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2만 개가 넘는 독서모임의 통계치도 한국에서 독서모임이 성행하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지긋지긋’한 학교공부에서 벗

39)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는 뜻이다.

어나 사회로 투입된 그들이 독서로 회귀하게 된 이유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교육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독서모임의 방대한 양과 대조를 이루는 것은 독서모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평소에도 독서모임에 대해 호기심과 동경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독서모임의 구체적인 모습과 양상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본 연구는 연구자가 3년 넘게 참여해 온 프리책이라는 독서모임을 사례로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과정에서 질적 연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세 가지 방법(3Es), 즉 참여관찰, 심층면담 그리고 현지자료조사를 사용하였다. 또한 프리책 독서모임에 오래 참여하였고 성격, 역할, 책에 대한 태도 등 여러 방면에서 특징이 서로 다른 구성원 다섯 명을 선정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다음의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에 대한 연구의 과정과 발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나는 독서모임의 구체적인 모습이 궁금해서 '프리책이 어떤 독서모임인가?'라는 질문을 설정하고 이를 탐색하였다.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나는 연구참여자들의 게시글을 수집해서 프리책의 크고 작은 사건의 타임라인을 정리하였다. 그래도 궁금증이 풀리지 않으면 연구참여자와의 면담을 통해서 직접 알아보았다. 그리고 참여관찰을 통해서 알게 된 정보들과 합쳐서 프리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독서토론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정리하였다. 이 부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모임장 햄은 독서모임이 의미가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세 명의 초창멤버와 같이 프리책을 만들었다. 이후 구성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그는 "소모임"이라는 휴대폰 앱으로 프리책 독서모임을 개설하였다. 비영리의 성격을 띠는 프리책은 보다 순조롭게 독서토론을 진행하기 위해서 장소선정, 장소예약, 도서선정, 발제, 사회 등 여러 측면에서 구성원들의 지지와 도움이 필요하였다. 그중 활발하게 참여하는 구성원을 중심으로 운영진이 형성되었다. 독서토론이 끝나면 구성원들이 뒷풀이를 하기도 한다. 이처럼 프리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구성원",

“운영진”, “소모임”, “독서토론”, “뒷풀이”, “규칙”의 여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특히 독서모임은 결국 사람들이 모여서 독서토론을 하는 활동이므로 “구성원”과 “독서토론” 부분을 더 깊게 들여다보았다.

우선 구성원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연구참여자들은 프리책 활동에 오래 참여했고 프리책 정체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 중 햄은 겉치레식의 얕은 친목 위주의 활동들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서 독서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다. 평소에 하기 힘든 깊이 있는 소통을 독서모임에서 할 수 있어서 햄은 흥미로움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햄은 그동안 참여한 독서모임들의 장단점을 종합해서 “진지함”, “재미”, “깊이”를 추구하는 프리책을 만들었다. 유경은 책 읽기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며 독서토론을 진행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또한 상황을 늘 깔끔하고 일사불란하게 처리한다. 순영은 책 읽기나 토론보다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이라서 프리책에 많이 참여한다. 순영은 자주 자기가 말재주가 없다고 하지만 순영의 진술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지수는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 처음에 독서모임 사람들이 말을 너무 잘하고 너무 똑똑해 보여서 부담스러움을 느껴서 모임에 꾸준히 나가지 않았다. 지금은 지수도 남이 부러워할 정도로 토론을 잘하는 사람이 되었다. 카이는 다른 사람과 달리 프리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봤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뻔한 이야기”와 “아름다운 이야기”만 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독서토론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독서토론을 할 때 보통 사회자가 진행 과정과 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는 도입 단계를 한 후 본격적인 토론 단계에 들어간다. 사회자는 발제를 미리 준비하고 토론과정에서 구성원들이 궁금한 질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또 관련 주제에 대해 토론할 때 구성원들은 동의나 이의를 밝히고 의견을 교섭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토론이나 책에서 어떤 점이 좋았는지, 어떤 것을 배웠는지 밝히고 구성원들이 사회자의 수고에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며, 사회자는 구성원들의 참여를 환영하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전달한다.

둘째, 나는 독서모임의 참여 양상을 밝히고자 '프리책의 참여 양상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을 설정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참여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햄은 경제적인 성공보다 여러 면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현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크기에 "현자지향형"이라고 할 수 있다. 순영과 지수는 다른 구성원보다 성찰을 많이 한다. 따라서 이 둘은 "성찰지향형"이라고 할 수 있다. 유경은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회문제책임형"이다. 카이는 독서모임에서 지식이든, 감정이나 의견의 공유든, 모든 것을 공부하려는 "공부지향형"인 사람이다. 이처럼 독서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이와 같은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프리책 독서모임은 구성원들의 참여나 탈퇴를 개개인에게 맡긴다. 하지만 질이 높은 토론을 위해 완독하거나 존댓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칙, 즉 강요성도 어느 정도가 있다. 또한 프리책 독서모임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하고 활동에 참여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 그런데 카이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라는 개방성에는 긍정하지만 "새로운 회원이 오기 되게 어려운" 폐쇄적인 면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기술 및 분석을 바탕으로 프리책 독서모임에서 발견하는 교육적인 의미와 집단독서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독서토론 과정에서 사람들이 여러 원인으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카이는 사람들이 "이미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숨기고 있다고 하였다. 연구자 또한 이 부분적으로 동의한다.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진실한 생각을 숨기는 사람도 있지만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해서 그러는 사람도 있다. 아울러 성격, 성별, 관계, 말재주, 문화 등 여러 요소들도 여기에 작용한다. 그러나 이런 한계가 있어서 독서모임의 교육적인 의미를 부정할 수 없다.

독서모임 구성원들은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책과의 대화, 사람과 사람의 대화, 자기와의 대화를 통해서 지식을 나누고 학습한다. 본 논문에서 연구의 범위와 한계로 인해 자세히 다루지 못한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솔직한 문제의 원인이 제기한 요소 외에도

동조심리, 직업배경, 인지 수준의 차이, 대화 중의 해석 오류, 과도한 칭찬, 눈치, 체면, 사양 등 여러 원인들이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너무 자세하게 다루면 연구가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 이 부분을 더 깊이 다루고자 한다.

2. 결론

나의 학문적인 배경은 교육인류학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교육인류학이 무슨 학문이라고 물어보면 늘 답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이 연구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논문을 쓰고 수정하는 모든 과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면에서 나 자신의 부족함과 부딪쳤다. 나는 연구자로서 학문적 기초가 얼마나 부족한지 늘 절실하게 느낀다. 연구를 통해서 나는 “무이해”와 “전이해”부터 “새로운 이해”로 전환하는 해석학적 순환의 과정, 즉 학습의 과정을 겪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가 겪은 해석학적 순환을 “교육인류학”, “질적 연구”, “독서모임”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본 논문 전체가 독서모임에 대한 해석학적순환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겠다. “교육인류학”과 “질적 연구”를 알아보는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초기에 나는 교육인류학이라는 학문이 어떤 학문인지, 어떤 이론이 있는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잘 알지 못하였다. 헤매는 과정을 거듭하다가 교육학과 인류학의 서적들을 읽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교육학 지식과 인류학 지식을 어떻게 연결시킬지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교육학과 인류학을 융합시키는 것은 힘들었다. 교육인류학에서 교육학의 비중이 더 크냐, 인류학의 비중이 더 크냐의 틀에 갇혀져 있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조용환 교수가 학생들의 논문을 지도할 때 “철학”과 “인류학”이 인문학의 기초학문이라고 한 적이 있다. 교수의 본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 말은 교육인류학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었다. 철학이 논리적인 연역을 통해서 미지의 세계를 추리한다면 인류학은 현실적인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익숙한 세계를 깨트리는 면이 있다. 바꾸어 말하면 인류학은 학문인 동시에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이기도 하다.

마커스와 피셔(Marcus & Fisher, 1986)는 과학이 이미 신학이 되어버렸다고 하였다. 과학의 이론이나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지 않으면 이단시하기 일쑤이다. 그러나 과학도 인간이 정의하는 개념이므로 늘 정확하고 늘 맞다는 보장은 없다. 인류학에서 발전해 온 질적 연구는 전통에서 정의한 과학의 관념에서 벗어나 현장과 현상 자체에 집중하는 것을 강조한다. 또 타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문화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를 재조명할 수 있다. 교육인류학에서의 인류학은 대학에서 개설한 전공 학문보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종의 방법이나 시각에 가깝다.

다음은 “질적 연구”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학적 순환의 과정을 살펴보겠다. 교육인류학에서 나는 인류학을 몰랐지만 교육학은 계속 접해 왔다. 그러나 대학원에 들어오기 전에 질적 연구에 대해서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다. 질적 연구가 무엇인지, 교육인류학에서 왜 질적 연구를 많이 하는지, 양적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왜 질적 연구를 비판하는지를 나는 전혀 몰랐다. 강의를 듣고 논문을 보면서 질적 연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되었으며 의문도 많았다.

예를 들어 현장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레포(rapport)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정보를 얻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남을 속이는 것 같기도 하였다. 또한 “현장메모”, “현장노트”, “연구일지”, “현장일기”가 어떻게 다른지, 코딩이 무슨 뜻인지, 코딩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몰랐다. 나는 이런 무지(無知)의 상태에서 연구를 시작하였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질적 연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인류학자들의 연구와 교육인류학 선배들의 연구를 많이 참고하였다.

그들이 질적 연구를 진행하는 방식은 비슷하였다. 3Es 즉 참여관찰, 심층면담, 현지자료수집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방법은 비슷했지만

공감을 더 많이 불러일으키는 연구가 눈에 띄었다. 그런 연구는 거대한 이론이나 화려한 기술보다는 연구현장과 연구참여자를 “있는 그대로” 충실하게 기록하는 연구였다. 흥미로운 것은 훌륭한 소설과 다큐멘터리, 그리고 마켓 리서치에서도 질적 연구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햄은 질적 연구를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사고방식에서 질적 연구의 사고방식과 비슷한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인류학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목표라면 질적 연구가 (인류)학자들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탐색해 낸 일종의 도구와 비슷한 것 같다. 이 도구가 연구자들의 노력에서 계속 갱신되고 있다.

한편 초기 인류학에 3Es 연구방법은 없었다. 그때의 인류학자들이 “안락의자 인류학자”라는 별칭이 있었다. 그들은 여행을 가끔 하기도 했지만 자료는 주로 “여행가의 견문록, 식민통치자의 기록, 선교사의 글 등에서 구하였다.”(Marcus & Fisher, 1986: 40) 참여관찰이라는 연구 방식은 말리노브스키부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선교사를 통해서 원주민과 소통하는 것이 얻는 자료가 한계가 있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는 원주인들의 언어를 배우고 원주인들과 같이 살아야 하는 참여관찰 방식을 사용했으며 오래 세월에 걸쳐 지금의 체계적인 3Es 연구방법을 형성하였다.

독서모임을 연구할 때 3Es 연구방법의 부족한 점을 못 느꼈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지금의 3Es 연구방법은 최선의 질적 연구 방법이라고 다짐할 수 없다. 인류학자 베네딕트가 외부 조건으로 일본에 가본 적이 없지만 <국화와 칼>에서 일본과 일본 사람에 대해 깊이 있는 견해를 내놓을 수 있었다. 베네딕트가 질적 연구 방법을 엄격하게 이루지 않았지만 그녀의 연구가 훌륭한 연구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질적 연구를 한 도반들이 더 나은 질적 연구 방식을 탐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권현지(2019).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동네책방 중심 성인 북클럽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권호(2005). 독서 교육이 위험하다. 창비어린이, 3(3): 41-48.

김명순(2011). 읽기 교육내용의 선정 양상과 시사점. 국어교과교육연구(18): 39-66.

김명순(2012). 학교 독서운동과 독서교육. 독서연구(27): 64-88.

김병원(1978). 讀書論, 서울: 培英社.

김상욱(2012). 독서운동의 현황과 방향. 독서연구(27): 42-63.

김윤자·김현애(2017). 독서모임 과정에서 중년 여성의 생애 경험에 대한 인식 변화. 독서치료연구, 9(2): 61-91.

김은엽(2013). 중학생 고전문학 읽기 북클럽 운영의 의미와 과제: 김해기적의도서관 청소년 북클럽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독서교육학회지 1(1): 121-134.

김종원(1994). 21세기 맞이 '30대 모임'들. 월간말: 96-103.

김종윤(2017). 독서 연구 방법의 변화 경향성 탐색: 『독서연구』와 『RRQ』의 비교를 중심으로. 독서연구(42): 29-58.

김지원(2010). 국내 직장인들의 독서클럽 참여 실태 조사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창원(2018). '읽기'의 메타퍼 : 읽기는 학교교육의 축이 될 수 있는가? : 융합교육의 관점에서 본 2015 교육과정과 '읽기'. 독서연구(46): 9-34.

김혜정(2010). 대중독자의 독서 양상과 비판적 읽기 필요성. 독서연구(24): 51-86.

김혜정(2016). 독서 관련 학문의 동향과 독서교육: 독서교육 이론의 변화와 쟁점. 독서연구(40): 9-56.

김혜정(2019). 미디어 시대의 책맹(비독서) 현상과 독서 교육의 방향. 독서연구(52): 9-49.

로명완(1996). 독서개념(讀書槪念)의 현대적(現代的) 조명(照明). 독서연구(1): 55-88.
문화체육관광부(2018). 전국 독서동아리 현황 조사설계 연구 보고서.
모아라·이소현(2017). 대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경험에 관한 연구: 영유아교육 관련학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18(2): 303-309.
박정아(2018). 성인 독서 실천공동체 <책마루> 구성원의 학습경험 탐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홍규(2013). 킹의 독서. 인물과사상: 78-90.
박영목(2008). 독서교육론. 서울: 박이정.
박영목(2000). 독서교육활성화 방안연구. 국어교육(103): 1-51.
배성희(2012). 독서능력 향상을 위한 독서토론 모형 개발 및 적용.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배은주(2004). 청소년센터에서의 대안적 학습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변우철(2009). 독서교육의 이해. 고양: 조은 글터.
서덕희(2008). 홈스쿨링을만나다. 서울: 민들레.
서미경·송윤숙·조현행(2011). 창의적 글쓰기를 위한 독서토론 수업의 모형. 독서교육연구(7): 103-126.
손영은(2014). 독서경험 확장을 위한 북 콘텐츠 시각화 방안에 대한 연구-파라텍스트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지현(2016). 사교육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 지위경쟁의 관점에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심현녀(1991). 연구모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5): 1-2.
안상헌(2010). 생산적 책읽기 두 번째 이야기: 읽고 정리하고 실천하기. 서울: 북포스.
안시아(2008). 독서. 시와세계(23): 53-53.
오윤주(2019). 독서 향유자의 기원과 성장에 대한 질적 연구. 독서연구

(51): 211-250.
요시우라 미와·이채식(1995). 『장애인 모임』 만들기. 장애와 고용, 5(2): 104-107.
우한용(2013). 디지털시대의 독서와 독서교육의 정체성. 독서연구(30): 9-40.
우창호(1997). 독서교육에 대하여. 국어교육연구(29): 153-172.
윤근선(2008). 2000년대 독서운동과 독서경향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3): 267-297.
이국환(2010). 조선시대 사가독서(賜暇讀書)와 "평생독서교육" 연구. 석당논총(47): 31
이선연(2016). 독서토론을 위한 플립러닝 교수형 개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순영(2011). 읽기 연구의 최근 동향과 과제: 국내외 2005년-2010년 연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학술발표논문집(1): 119-136.
이옥부(2021). 부산 피난학교 시절 어느 고등학생의 일상과 독서모임. 한국교육사학, 43(1): 141-165.
이용준(2014). 직장 독서동아리의 특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독서연구(31): 165-193.
이중연(2001). '책'의 운명: 조선~일제강점기 금서의 사회·사상사. 혜안.
임헌혁·최재혁(2013). 창의적 사고 함양을 위한 교과서 편집디자인 분석 및 방안 연구. 디지털다자인연구, 13(3): 255-268.
장상호(1997). 학문과 교육(상): 학문이란 무엇인가.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장상호(2009). 학문과 교육(중2): 교육본위의 삶.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정재기(2011).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형태. 한국사회학, 45(5): 197-225.
전유미(2016). 책을 미끼로 바라는 대로 살아가기 위한, 땡땡책협동조합

의 실험. 로컬리티 인문학, (16): 329-344.
조옥라(1989). ‘작은 모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월간 샘터, 20(01): 22-25.
조용환(1997). 사회화와 교육: 부족사회 문화전승 과정의 교육학적 제검토. 서울: 교육과학사.
조용환(1999). 질적 기술, 분석, 해석. 교육인류학연구, 2(2): 27-63.
조용환(2001). 문화와 교육의 갈등-상생 관계. 교육인류학연구, 4(2): 1-27.
조용환(2004). 질적 연구와 질적 교육. 교육인류학연구, 7(2): 55-77.
조용환(2011). 다문화교육의 교육인류학적 검토와 존재론적 모색. 교육인류학연구, 14(3): 1-29.
조용환(2012a). 교육인류학과 질적 연구. 교육인류학연구, 15(2): 1-21.
조용환(2012b).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 새로운 공교육의 이해와 실천.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pp3-15.
조용환(2012c). 교육의 본질에서 본 공교육 개혁의 의미: 본질적인 개선을 위한고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 새로운 공교육의 이해와 실천.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pp18-35.
조용환(2021). 교육다운 교육: 어떤 교육이 교육다운 교육인가? 서울: 바른북스.
진선희(2019). 인공지능시대 문학 독서 교육의 쟁점 : ‘자각’으로서 문학 독서 교육의 방향을 중심으로. 독서연구(51): 9-40.
천전환(2003). 근대의 책 읽기 : 독자의 탄생과 한국 근대문학. 서울: 푸른역사.
최지현(2015). 독서교육전문가의 자격 관리에 관하여. 독서연구(36): 235-265.
최지원·서문기(2018). 성찰적 여가를 통한 나 표현하기, 문화콘텐츠연구(13): 7-41.
최영미·김용경·원훙연·이만식(2016). 독서와 토론. 서울: 박이정.

한철우(2001). 과정중심 독서지도. 서울: 교육사.

황혜진(2007). 독서생활사 연구를 위한 시론- 연구 방향과 자료 기술 방안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19): 399-436

허애란(2012). 독서지도에 대한 약간한 생각. 중국조선어문2012(2): 76-77.

허재영(2005). 국어과에서의 독서교육 발달 과정 연구.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28(3): 61-98.

Benedict, R.(1935). Patterns of Culture. Milton: Routledge. 이종인(역)(2008). 문화의 패턴. 고양: 연암서가.

Greg, L. and Jonathan, H.(2018). The Coddling of the American Mind: How Good Intentions and Bad Ideas Are Setting Up a Generation for Failure. New York: Penguin Press. 왕수민(역)(2019). 나쁜 교육. 파주: 프시케의숲.

Malinowski, B.(1989). A Diary in the Strict Sense of the Term.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Marcus, G. and Fischer, M.(1986). Anthropology as Cultural Critique: An Experimental Moment in the Human Science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유철인(역)(2005). 인류학과 문화비평. 서울: 아카넷.

Mead, M.(1928). Coming of Age in Samoa: A Psychological Study of Primitive Youth for Western Civilization. Washington, DC: 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

Neil, P.(1986). Amusing Ourselves to Death: Public Discourse in the Age of Show Business. New York: Permission of Penguin Books. 정탁영·정준영(공역)(1997). 죽도록 즐기기. 서울: 참미디어.

Yin. R.K.(2014).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5th ed. 신경식·서아영·송민채(공역)(2016) 사례연구방법 5판. 서울: 한경사.

鄂麗君(2016). 美國大學圖書館讀書會考察分析[J]. 圖書館建設(01):67-70,

75.
符克議·王禹涔·章文(2021).新媒体時代大學生讀書社群運營模式實踐研究－－以東莞理工學院城市學院“煉鋼”讀書會爲例[J].新聞研究導刊,12(10):71-72.
耿鈺珠(2021). 高校讀書會的閱讀推广研究[J]. 決策探索(中)(08):87-88.
賀雪峰(2020).研究生培養中的集体讀書与集体調研[J].關東學刊(05):180-186.
李靜(2018).我國高校圖書館讀書會現狀与發展對策探討[J].課程教育研究(48):32-33.
李孝更(2021).基于“一會一坊一沙龍”本科生導師制的實踐与探索[J].現代教育科學(04):47-54.
林曉鋒(2021).學習和傳揚冰心精神，創新性發展大學生社團－－以閩江師范高等專科學校冰心讀書會爲例[J].江西電力職業技術學院學報,34(03):166-168.
凌冬梅(2021). 我國傳統讀書會及其分期[J]. 新世紀圖書館(01):75-80.
劉炳輝(2020).理想共同体:高校讀書會的動力机制与德育功能－－以轉型中國讀書會爲例[J]. 青少年研究与實踐,35(04):54-63.
劉江波(2021).全民閱讀視域下我國讀書會發展概貌及對策探討[J].新閱讀(08):50-52.
馬曉雯(2018).高校圖書館讀書會實踐探索[J].濟南職業學院學報(06):100-103.
秦疏影·陳陽·田曉云(2017). 高校圖書館讀書會建設的實踐与探索[J]. 産業与科技論壇, 16(6):278-279.
全燕利(2020).文化育人視角下高職院校學生讀書會發展初探[J].科教文匯(中旬刊)(10):138-139.
阮健英(2017). 我國大陸地區讀書會實証分析[J]. 情報探索(07):62-66.
田紅偉(2019).大學圖書館讀書會發展路徑探析[J].創新創業理論研究与實踐,2019,2(24):12-14.
万春燕(2021).文化育人視角下學生讀書會的發展[J].文學教育(下)(09):174-17
万春珍(2016). 國內高校讀書會發展策略研究[J]. 新世紀圖書館(07):72-74.
王璐·王丁(2021).基于讀書會模式的高職學生工匠精神培養實踐研究[J].新紀

實(08):57-59.
汪曉艷(2021).全民閱讀視域下老年讀者閱讀推广模式[J].家庭科技(09):48-49.
吳惠茹(2014). 閱讀推广視角下的高校圖書館讀書會實踐研究[J]. 圖書与情報(06):76-81.
項飆(2018). 跨越邊界的社區：北京“浙江村”的生活史[M].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楊清琴(2021).公共圖書館開展學齡儿童讀書會活動的探討[J].黑龍江檔案(02):204-205.
曾莉嬋(2013). 社區老年教育中的讀書會研究[D]. 華東師范大學 碩士學位論文.
張啓林(2019).新時代公共圖書館以“讀書會”模式推广主題閱讀－－以“溫州讀書會聯盟”爲例[J]. 新閱讀(12):33-34.
鄭景林(2017). 广東實驗中學讀書會實踐与反思[J]. 辦公室業務(15):43.

Abstract

A Qualitative Case Study on Book Club Members' Participation

Zhang, Cai Hua

Major in Educ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When I arrived at Seoul, I was impressed by Korean youths attending reading club meetings regularly. I was curious to know what made them enthusiastic about such meetings. While getting to know more about the fad, I happened to find out that there were only a few studies conducted on them. Moreover, even the smaller number of existing studies reflect educational points of view. Today people have varied ways of spending their time ever before. People prefer playing their mobile phones to reading books. Considering significant benefits that studying reading clubs would bring us academically and socially. I decided to begin this stud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such book clubs are functioning, which has sparked almost no interest among the education sectors. This study goes deeper down to the core aspect of the reading club as well as its surface appearance. The main focus is on participants in the meetings. Based on years of research, this study is to shed a new light on the educational benefit of book meetings. To have a close look at deep structure of the book club, I did a qualitative case study. I chose out a book club called 'Free Books' which is composed of its members with dedication, depth, and fun. The participation is voluntary. To reach its goal, I posed three questions as follows: First, what does Free Books club look like? Second, what characteristics does Free Books club have? Third, what is the educational and anthropological meaning of Free Books club?

Throughout the study, I met five members of the club who seemed to have impacted the form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book club. For collecting materials, I did participation, field research, and interviews which are commonly used in qualitative studies. I have three outcomes from this study.

First, what does Free Books club look like? Captain Ham started this book club with three other members, believing book club meeting was worthwhile. To recruit members, he used an Android app, called "Small Gathering". The club needs its members' assistance in reserving venues, selecting books, dealing with agenda, and holding meetings. Active participants became board members. A typical meeting usually ends with afterward hangouts.

To understand how the club operates, I divide into six categories: participants, managerial members, mini meetings, books discussion, afterward hangouts, and regulations. To pursue its original goal, the club prioritized participants and books discussion. Therefore, I tried to

look into those two aspects deeply.

To understand the club members' participation, I delve into the kinds, characteristics, and attitudes, of participants. I found four distinctions of it. Captain Ham wants to be a wise man rather than to be successful in money-making. Soon-Young and Ji-Soo are thinkers. They are introspective. You-Kyung is interested in societal problems and thus wishes to find solutions to them. She deserves the title of an active responder to societal problems. Kai is an eager learner, willing to learn anything from sharing emotions and feelings through interactions.

Free Books club does not influence its members when anyone wants to join or leave the club. However, it requires all members to read an assigned book and to show mutual respect by using polite expressions, not swear words. Although widely open to anyone who wants to join, it did not seem that every member enjoyed the degree of openness when it comes to book discussions. Ham, You-Kyung, Soon-young and Dong-gue-rami were regular members. However, Kai did not attend all the club meetings. He poorly participated in the meetings due to lack of frankness. He did not like to hear cliches and bromides. He could not stand people telling beautiful stories. In addition, he claimed that he gained little or nothing from book selection processes and communications.

This analysis provides me with an opportunity to study the book club from an educational viewpoint. All members are trying to become better persons and to make a better society. They learn and develop themselves by having conversations about books, people, and themselves. When compared with school education, book club meetings follow a different path although the two share the same goal. Members of book clubs are more active than students at school.

In book clubs, no one pushes them to work harder, to check their progress. When member have questions, they must find their solutions and answers on their own. On the other hand, they can get access to many different viewpoints, although there are occasions where they cannot express their thoughts as freely as they can for some reasons. Some are reluctant to put out their thought, and others are worried that they might hurt others' feelings. Besides, personalities, sexes, tactfulness, cultures in which they grow play distinctive roles in restricting a free flow of thoughts.

The entire process of this research is a pilgrimage to wisdom. Through conducting this research, I can get some understanding of qualitative case study based on Anthropology of education and nature of book club meetings. I must confess the lack of my study due to the given extent and scope of this research. However, I hope to gain a newer understanding about book clubs through further follow-ups in the field.

keywords: book club, participation, book discussion, the matter of frankness.
Student Number : 2017-28748

감사의 글

만약 유학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어디에 있을까? 아마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며 살았을 것이다. 그런 인생도 나쁘지 않겠지만 나는 지금의 삶에 감사한 마음을 느낀다. 한국에 있는 동안 무엇보다 나와 화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여기서의 공부가 나에게 큰 힘을 주었다.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나는 학술적인 분야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다. 이후 교육인류학을 통해서 몰랐던 세계를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야노마모 부족에서는 남자아이가 아버지를 때리는 것이 칭찬받을 일이다. 주니족은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권위적이다. 에스키모인들은 노래 시합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한다. 이처럼 각자 추구하는 것이 시간과 공간이 바뀌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지식이 나에게 나로 살아가는 용기를 주었다.

미국 인류학의 아버지가 보아스라면 한국 교육인류학의 아버지는 조용환 교수님이라고 감히 꼽고 싶다. 나는 인류학의 기초 지식이 없었지만 행운으로 조용환 교수님 통해 최첨단의 교육인류학 지식과 문제의식을 배울 수 있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 않았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10시에 조용환 교수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읽고서를 제출해야 돼서 전날에는 항상 밤을 새야 하였다. 컴퓨터 앞에서 무수히 “못하겠다,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였다. 옛날에 작성했던 읽고서를 읽었을 때 창피할 정도다. 이런 부족하고 미숙한 나를 포용해 주시고 인내심 있게 가르쳐 주신 조용환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오성철 교수님, 한기철 교수님, 백순근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또한 우용제 교수님의 격려와 배려가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 소경희 교수님과 강대중 교수님께서도 논문에 좋은 조언을 해 주셨다. 이처럼 존경하는 많은 교수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올린다.

나는 내향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공동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불안을 많이 느낀다. 하지만 석사과정 동안에 같이 공부한 학습 공동체인 기오재 도반 선생님들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 주셨다. 이런 환경이 있어서 내가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다. 나에게 큰 도움과 따뜻함을 많이 보내주신 기오재 도반 이진주, 하유, 이형연, 최문연, 윤혜경, 강진아, 조지혜, 이정희, 이은지, 김경미, 김은아, 박임효, 김봉관, 김양주, 임자영, 박석준, 손예초, 양멍루, 이현수, 조영희, 차오팡 등의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프리책은 내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참여한 독서모임이다. 프리책은 최고의 독서모임이다. 프리책에서 선량하고 진지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당연히 관련 연구가 아니어도 프리책은 나에게 특별한 존재이다. 프리책을 만든 햄님, 프리책 운영에 심혈을 많이 기울인 운영진과 구성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연구참여자들이 없으면 이 논문이 완성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연구참여자인 햄님, 눈을감은님, 순영님, 지수님, 카이님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나에게 도움과 따뜻함을 많이 보내 준 니모님, 현진님, 우진님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이 논문은 한국어로 작성하였다. 외국인으로서 문법이나 표현의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기는 매우 어렵다. 논문 윤색에 박수정 선생님, 이형연 선생님, 김재춘 선생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 이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무수히 절망스러운 순간이 있었다. 좌절을 많이 겪은 내 옆에서 항상 격려해 주고 조언을 해 준 내 친구 이설(李雪), 고동(古棟), 신문봉(申文峰), 화장(華藏), 왕운(王芸), 손패패(孫貝貝), 이리나에게도 감사드린다.

2015년에 나는 상하이에서 한국 아버지 어머니 김재춘, 양옥순님을 만났다. 이분들은 나를 진정한 딸로 사랑해 주셨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내가 무슨 선택을 하든 언제나 나를 지지해 주신 고향 부모님께도 심히 감사드린다.

이 연구에서 깊이 다루지 못한 부분도 있다. 기회가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도록 하겠다. 독서 모임 경험이나 다른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란다. 나의 이메일 주소는 zhangcaihua@snu.ac.kr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다들 건강하고 행복하시길.